

# 경기 천년 및 고려 건국 천백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 중세고고학과 고려시대 경기의 위상변화 -

2018

일시 | 2018. 6. 15(금) 13:00-18:30  
장소 | 경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

주최 | 경기문화재연구원  
주관 | 한국중세고고학회



## | 학술대회 일정표 |

1. 일시 : 2018년 6월 15일, 금 (13:00~18:30)

2. 장소 : 경기문화재단 다산홀

3. 주제 : 경기 천년 및 고려 건국 천백주년 기념 학술대회 - 중세고고학과 고려시대 경기의 위상변화

4. 일정 :

13:00 ~ 13:20	개 회	사 회   류형균(미래문화재연구원)
	개회사	개회사   정의도(한국중세고고학회 회장)
	환영사	환영사   김성명(경기문화재연구원 원장)
	축 사	축 사   설원기(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 | 주제발표 |

13:20~13:50	경기지역 고려시대 발굴조사 성과	발 표   김영화(경기문화재연구원)
13:50~14:20	강화 고려 왕릉의 조사성과와 과제	발 표   정해득(한신대학교) 토 론   이상준(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4:20~14:50	고려시대 경기지역의 명문 기와 사례와 명문의 성격	발 표   흥영의(국민대학교) 토 론   최정혜(부산근대역사관)
14:50~15:10	휴식	
15:10~15:40	고려시대 경기지역 사원의 성격	발 표   이승연(경기문화재연구원) 토 론   한지만(명지대학교)
15:40~16:10	고려전기 경기의 설치와 그 의미	발 표   신은제(동아대학교) 토 론   정은정(부산대학교)
16:10~16:40	고려시대 강화의 유적과 공간	발 표   이희인(인천광역시립박물관) 토 론   정학수(인천문화재단 인천역사문화센터)
16:40~17:00	휴식	
17:00~18:30	종합토론	좌 장   정의도(한국중세고고학회장)



## 목 차

• 경기지역 고려시대 발굴조사 성과 .....	7
김영화(경기문화재연구원)	
• 강화 고려 왕릉의 조사성과와 과제 .....	37
정해득(한신대학교)	
토론 이상준(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고려시대 경기지역의 명문 기와 사례와 명문의 성격 .....	53
홍영으(국민대학교)	
토론 최정혜(부산근대역사관)	
• 고려시대 경기지역 사원의 성격 .....	81
이승연(경기문화재연구원)	
토론 한지만(명지대학교)	
• 고려전기 경기의 설치와 그 의미 .....	105
신은재(동아대학교)	
토론 정은정(부산대학교)	
• 고려시대 강화의 유적과 공간 .....	125
이희인(인천광역시립박물관)	
토론 정학수(인천문화재단 인천역사문화센터)	



# 경기지역 고려시대 발굴조사 성과

김영화 | 경기문화재연구원

## | 목차 |

- I. 머리말
- II. 주요유적
- III. 맺음말

## I. 머리말

‘경기’는 당나라시대에 왕도의 주변지역을 경현 또는 적현(京縣, 赤縣)과 기현(畿縣)으로 나누어 통치했던 데서 유래하며, 왕도의 외곽지역을 ‘경기’라 칭한 것은 1018년(현종 9)이다. 고려시대 경기의 영역은 행정조직의 편제에 따라 변화를 겪었으며, 조선이 건국되고 도읍을 한양으로 옮기면서 지금의 행정구역과 비슷하게 되었다.

고려시대 유적 조사는 1947년 개성 장단 법당방 석실분 발굴이 처음으로 알려져 있다. 이 석실분에는 고려회화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십이지를 올린 관을 쓴 인물그림이 현실벽에 그려져 있다. 이후 1957년 일제강점기 도굴된 개성 공민왕현릉, 철원군 내문리에서 수혈식 석관묘가 조사되었는데 십이지를 올린 관을 쓴 인물벽화, 십이지상과 팔괘 벽화가 각각 확인되었다. 이 후 1980년대에 학술발굴로 용인 서리 기와가마를 조사하였으며, 수도권 개발과 맞물려 1990년대에 택지조성, 도로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발굴조사의 수요는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지금에 이르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개발에 따른 구제발굴조사는 그 규모가 확대되는 한편, 산성이나 사지 등 주요 유적에 대하여 보존정비 및 복원을 위한 자료 확보 차원에서 학술발굴조사도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경기지역은 수도와 근기지역의 특성상 다른 지역에 비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유적이 솟적으로 우세하고 유적의 분포 또한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거나 집중되지 않

고 경기도 전역에서 다양한 성격의 유구가 확인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한국중세고고학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기초자료 표준안의 유적분류에 따라 발굴조사된 유적을 생활유적, 행정유적, 관방유적, 교통유적, 생산유적, 무덤유적, 종교유적, 기타 유적으로 나누어서 주요유적의 조사성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 Ⅱ. 주요유적

### 1. 생활유적

생활유적은 주거지와 건물지, 수혈 등이 있으며 개발에 따른 구제발굴조사를 통해 경기 지역 전역에서 유적의 규모와 상관없이 확인되고 있다. 수원 구운동 유적 조사를 통해 중 세 주거유적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으며, 선사시대처럼 집단적인 사례는 드물고 이전 시기와 이후 시기 유구와 함께 소수가 확인되는데 유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거지는 풍화암반토를 골광하여 조성하며 평면형태는 방형·장방형·원형·부정형이 모두 확인되고 내부시설은 아궁이·구들·배수로·저장공·주공 등이 있으나 유구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다수의 주거지가 조사된 유적으로는 화성 화산동, 인천 중산동, 여주 양귀리, 성남 여수동 유적 등이 있다. 건물지 역시 구제발굴조사에서 기단·초석·적심·석렬·온돌시설 등의 다양한 구조가 나타나며, 양호한 상태로 남아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시흥 거모동, 이천 증포동, 서울 세곡동, 평택 백봉리, 인화~강화간 도로구간 유적에서 일면을 엿볼 수 있다.

#### 수원 구운동유적

수원시의 서쪽 황구지천 인근 해발 42m 정도의 길고 평탄한 구릉상에 고려시대 수혈주 거지 2기가 조사되었다. 경작과 과수원 조성 등으로 구릉 표면이 삭토되어 원지형이 많이 훼손되고 상부층이 교란된 상태였으나 유구의 잔존 현상이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방향과 고래시설의 상태로 보아 2기의 주거지가 중복된 것으로, 각각 한 두

차례의 개축이 있었으며, 소규모 온돌시설과 저장수혈 등 내부 시설이 있다. 사각형의 기둥구멍에 원형기둥을 쓴 것, 모퉁이에 수혈을 파고 그 수혈의 바닥에 여러 개의 수혈을 다시 파서 토기를 넣어둔 특이한 형태로 확인되었다. 유물은 내부에서 주조괭이와 도기 등 확인되었다.

#### 인천 중산동유적

영종도 하늘도시 3구역에서 주거지 17기가 조사되었다. 경사면 아래쪽이 유실되어 원형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말각방형 또는 장방형, 부정형으로 내부에서 아궁이와 온돌시설이 확인되는 것도 있다. 유물은 청자·도기가 출토되었다. 청자는 완·발·접시·잔이 주를 이루고 매병·장고·항·베개 등 고급 기종도 확인되는데 운학문·초화문·연당초문 압출양각과 연화문·당초문·국화절지문 상감을 하였다. 도기는 매병·병·동이·옹·호가 출토되었다.

#### 여주 양귀리유적

주거지 16기, 수혈 21기, 건물지 12기, 고상식 건물지 1기가 조사되었다. 주거지의 평면 형태는 방형 12기, 원형과 타원형 1기이며, 장축방향이 등고선과 평행한 것이 12기, 직교 또는 비스듬한 것이 4기이고, 내부시설로 화덕이 설치된 것 7기, 고래 석렬이 확인되는 것이 3기이다. 수혈은 건물지와 주거지 주변에서 확인되는데 깊이가 20cm내외이며 평면형태는 타원형·방형·장방형이 있다. 건물지는 내부에 구들시설이나 초석이 둔 건물지와 구릉 경사면을 수직에 가깝게 굽착하여 ‘ㄷ’자형 배수로를 설치하고 내부에 구들시설과 굴립주를 조성한 것, 경사면의 하단의 적심과 상단의 초석의 높이차 135cm나 되고, 석조 배수로가 부가된 계단형 석렬이 있는 누각식 건물도 확인되었다. 유물은 고려 중기~조선 전기로 편년되는 도기류·자기류·기와류·철기류가 다양하게 출토되었다.

#### 시흥 거모동유적

건물지 2동과 석축 2기, 담장지, 배수로 등이 확인되었다. 건물지는 후대의 교란과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초석이나 적심은 유실되었고 기단석만 남아 있었다. 고지도를 통해 보면 이 지역은 조선시대 중반까지 거모포가 자리하고 있었는데 현재의 해안선은 간척 사업으

로 인하여 변화된 것이고 원래의 해안선은 유적이 위치하는 거모동 일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아 포구와 관련된 시설일 가능성 있다. 1호 건물지 주변 퇴적층에서 완형으로 출토된 철화청자모란당초문매병과 압출양각 기법의 청자완으로 보아 건물의 조성 시기는 11세기대로 추정하였다

#### **화성 화산동유적**

5개의 지점으로 나누어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주거지 5기, 수혈 45기, 구상유구 1기, 고상건물지 2기, 건물지 6기, 야외노지 5기, 주혈 6기, 축대, 담장지, 적석유구 등 모두 70여기의 다양한 유구가 조사되었다. 2지점에서는 상층 조선시대 유구 아래에서 고려시대 야외노지, 고상식건물지, 수혈이, 3지점 가구역에서는 건물지는 1차 건물지 석렬위에서 2차 건물지 석렬이 확인되었다.

#### **이천 증포동유적**

주거지 1기, 수혈 77기, 건물지 11동, 석렬이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아궁이 · 고래 · 굴뚝이 갖추어져 있으며, 전면에 구들이 시설되었다. 아궁이와 고래 부분과 연도부 부분은 단차를 이 이루고 있으며 구들은 건물지 기와를 재사용하여 축조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건물지는 후대 경작과 중복 등으로 상태가 불량하나 동서 300m, 남북 430cm 되는 장방형 평탄지에 문지를 조성하고 건물지와 부속시설을 축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정을 중심으로 사방에 건물을 배치하였으며 중정의 4곳 대칭되는 지점에 진단구를 매납하였다. 유물은 양질의 강진상 청자와 중국자기, 도기를 비롯하여 잠글쇠 · 주조괭이 · 철제솥 등의 금속류 등 다양하게 출토되었는데 특히 벼루가 7점이나 출토되었고 그 중 1점에는 ‘서윤’으로 추정되는 인명이 새겨져 있다.

#### **평택 백봉리 · 칠원동 유적**

백봉리유적에서는 일정 거리를 두고 위치하는 건물지 2기가 조사되었다. 건물지는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왼쪽에는 부엌 공간을 두고 있으며 내부에 전면 구들과 아궁이가 설치되었다. 구들시설과 기와, 자기 등 출토유물로 12세기 후반~13세기 전반의 단독으로 조영된 일반가옥의 하부 구조로 보았다. 칠원동유적에서는 건물지 11기, 주거지 2기가 조사

되었으며 주변에 수혈과 구상유구가 분포한다. 건물지는 원지형을 그대로 이용한 구축 형태, 원지형을 이용하면서 건물을 구축하고 배후에 구를 설치한 형태, 사면을 L자형을 굴토하여 평탄대지를 조성하고 건물을 구축한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조사지역의 지명 유래와 이 일대가 고대이후 남북으로 연결되는 교통로상에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고려시대 원의 배후에 형성된 취락으로 추정하였다.

### 인화~강화간 도로구간 유적

고려시대 건물지가 30여기 조사되었다. 온돌시설과 배수시설이 있는 건물지, 능선 사면에 석축을 쌓아 평탄대지를 조성한 후 축조한 건물지, 기단시설이나 초석, 적심만 남아 있는 건물지 등이 다양하며 규모는 길이 10m이나 17m가 넘는 대형도 확인되었다. 유물은 청자완, 병·매병 등 자기류와 도기류, 기와류, 금제·은제 장식품, 동전 등이 출토되었다.

## 2. 행정유적

행정유적은 궁궐·도성·관아 등으로 구분하였다. 궁궐지는 개성 만월대, 강화 가궐지와 이궁, 행궁지로 파주 혜음원지가 조사되었다. 개성 만월대는 남북한공동으로 7차례 발굴하였고, 혜음원지는 행궁지, 원지, 사지가 복합된 유적으로 10차례 발굴되어 유구와 유물이 개성 만월대와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강화에서는 이궁과 가궐지에 대한 조사가 있었으나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관청리, 월곶리 등에서 관영건물지 일 가능성 있는 유적이 다수 조사되었다. 관아와 읍성은 온전하게 조사된 사례는 없지만 하남 교산동 건물지, 광주 향교, 양주 관아지, 수원 고읍성 등지의 발굴조사에서 단편적인 유구와 유물, 문화층이 확인되어 읍치의 행정치소로 고려시대부터 계속되어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 개성 만월대

만월대는 둘레 2,170m, 넓이 25만m<sup>2</sup>로 개성의 송악산을 주산으로 해서 남쪽으로 해발 약 40~60m의 낮은 구릉에 자리한다. 궁성은 길이 북벽 220m·남벽 450m·동벽 755m·서벽 745m이며 남쪽이 넓은 형태로 성벽에는 황성으로 통하는 문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만월대’는 ‘발어참성’을 바탕으로 광종 원년(950년)부터 규모가 확장되고, 이후

현종 대에 두 차례 대대적인 복구를 통해 중세수도로서 면모를 갖추게 되는데 만월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회경전’과 4개의 대형 돌계단도 이때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에는 이자겸의 난과 무신정변, 몽고 침략을 거치면서 차츰 쇠락하고, 특히 원제국의 침입적인 영향력 아래 놓이면서 정궁보다는 별궁으로 운영되다가 점차 상징적인 존재로 변해 갔다. 500여 년을 이어온 만월대는 공민왕 때 홍건적의 난으로 파괴되고 1392년 조선의 건국으로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만월대의 학술조사는 남북한 공동으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7차례 진행되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차는 2007년 5월 15일부터 7월 13일까지 회경전 서쪽 ‘서부건축군’ 33,000m<sup>2</sup>에 대한 시굴조사로 조사결과 ‘서부건축군’ 내부 건물지 배치 양상을 파악하였고, 『고려사』에 기록된 5대 왕의 초상화를 봉안하였다는 ‘경령전’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2차는 2007년 9월 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서부건축군’ 북동쪽 1건물지군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동서 47m, 남북 90m 규모로 7개의 건물이 일곽 건물지군을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북쪽과 남쪽의 계단과 문지를 조사하였다. 3차는 2008년 11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서부건축군’ 북쪽 2건물지군과 북서쪽의 3건물지군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2건물지군은 동서 32m, 남북 37m로 건물 내부에 벽이 설치된 특수한 용도로 추정되는 2-1건물지 3동의 건물이 둘러싼 일곽 건물지이다. 4차는 2010년 3월 23일부터 5월 18일까지 ‘서부건축군’ 1·2·3 건물지군 토층조사로 건물지군의 아래에서 선대 유구의 흔적이 확인되어 이 지역이 궁성축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음을 파악하였다. 5차는 2011년 11월 24일부터 12월 20일까지 폭우로 파괴 위험성이 높은 1건물지군 남쪽 석축과 건물지 등에 대한 보존 조치를 중심으로 긴급 조사가 이루어졌다. 6차는 2014년 7월 22일부터 8월 16일까지 ‘중심건축군’과 ‘서부건축군’을 연결하는 5건물지군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대형 계단 2개소, 계단과 연결되는 문지, 계단주변 배수로가 확인되었다. 7차는 2015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서부건축군’ 5·6·7·8 건물지군 7,000m<sup>2</sup>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경령전 일곽과 대형 계단, 회랑, 6차 조사에서 확인된 대형 계단 서쪽의 보도와 문지, ‘중심건축군’ 장화전 서쪽 축대, 우물 등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7차에 걸친 조사를 통해 ‘서부건축군’의 전체 면적인 33,000m<sup>2</sup> 중 약 56%인 18,700m<sup>2</sup>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고려궁성의 건립 당시부터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제2정전인 건덕전을 비롯하여 대형 축대 3개소, 건물지 40여동, 대형계단 2개소가 확인되었고, 7차조사에서 확인된 만월대 금속활자, 원통형 청자, 용두 등 13,500여 점의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 강화 중성

강화 중성은 개경에서 강화도로 천도를 단행한 강도시기(1232~1270)에 축조한 성곽)이다. 『고려사』에 몽고의 침입으로 1232년 강화로 천도한 뒤 궁궐 보호를 위한 내성 쌓고, 1237년에는 외성을 축조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중성은 내성 방어를 목적으로 1250년 축조하였으며, 둘레는 8.1km이다. 4개지점에서 조사가 이루어져 구간별로 다양한 축조기법이 확인되었으며 옥립리구간에서는 중성의 토축구간 120m를 비롯한 고려시대 건물지 6동 등이 확인되었고, 성벽의 축조를 위한 판축용 틀인 석렬유구와 이를 고정하기 위한 기둥이 확인되어 고려시대 토목기술 복원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였다. 유물은 고려 중기에 편년되는 자기류, 기와류 등 다양하게 출토되었는데, 접시 · 대접 · 잔반침 등 최상품의 다양한 청자와, 일휘문 막새와 어골문 평기와 등은 강도시기와 고려 중기의 문화상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다.

### 파주 혜음원지

혜음원은 『동문선』 권 64 「혜음사신창기」에 창건배경과 그 과정, 창건과 운영의 주체, 왕실과의 관계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혜음원은 남경과 개성간을 통행하는 관료 및 백성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고려 예종 17년(1122)에 건립된 국립숙박시설이며 국왕의 행차에 대비하여 별원을 축조하였다고 한다. 고려 및 조선시대에 중요한 교통로로 이용되었던 혜음령이라는 명칭의 유래에서 그 위치가 추정되어 오다가 1999년 ‘혜음원’ 새겨진 암막새가 수습됨에 따라 현재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었으며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0차례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혜음원지는 크게 행궁지, 원지와 사지로 구분되는 2개의 건물일곽임을 알 수 있는데 현재까지의 발굴조사 결과, 동서 약 100m, 남북 약 129m에 이르는 면적에서 11개의 단으로 이루어진 경사지에 35개의 건물지와 외곽담장지, 수로, 집수정, 우물, 화계시설, 연못지 등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다. 행궁지는 북동쪽에 1~4단 위치하며 원지를 헐고 조성한 흔적을 확인되어 원지보다 나중에 축조하였다. 가장 위쪽에 정전, 입구쪽에 연회나 모임을 위한 대형 누각지가 위치하는데 두 건물지의 중앙을 연결하는 중심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을 이룬다. 외곽 담장과 별도로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내곽 담장을 시설하였다. 사지와 원지는 같은 건물군으로 앞쪽(5~9단)에 원지가, 뒤쪽(3~4단)에 사지가 있다. 금당지, 중정이

있는 건물지 등 축조방법이나 석재가 원지 건물지와 차이가 있으며 경전을 보관하는 윤장 대와 청자 등 생활유물이 집중 출토되기도 하였다. 원지는 2x1칸이 하나의 방을 이루고 있는데 2칸에 하나씩 한쪽으로 치우쳐 4각형의 화덕과 같은 난방시설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남쪽에 혜음원의 정문으로 볼 수 있는 주출입문이 있다. 유물은 정전지 주변에서 용두·취두·잡상 등 건축재가, 전역에서 귀면와·막새·명문와·청자·중국자기·금동불·칠기굽접시 등 다양하게 출토되었다. 혜음원지는 문헌과 유구, 유물을 통해 원(院)의 구조와 형태, 운영실태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왕실·귀족·평민 등 각 계층의 생활양식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고려 시대 건축 및 역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 강화 관청리 · 월곶리유적

관청리 일대에서는 소규모 시설이나 건축을 위한 조사가 다수 이루어졌다. 한정된 조사 구역에서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궁궐이나 관아의 시설일 가능성의 회랑건물지기가 조사되었다. 월곶리유적은 강화 중성의 바깥쪽, 외성의 안쪽에 위치하며, 건물지 7동을 비롯하여 건물지와 관련된 기단석축·축대·배수로·담장지 등이 확인되었다. 건물지는 상단과 하단 계단식으로 조성되었고 중정이 있는 'ㅁ'자형 중앙건물지를 중심으로 좌우측과 앞쪽에 배치되어 있다. 중정의 바닥에는 연화문 청석이 깔려 있고 배수로와 집수지가 있으며 집수지 상부에 누각으로 추종되는 초석이 남아있다. 상단의 중앙건물지와 하단의 누각건물지는 계단으로 연결되며, 7동의 건물지에서 온돌 관련 시설은 확인되지 않는다. 월곶리 건물지는 파주 혜음원지, 개성 만월대 등 고려시대 관영건물지의 배치양상을 충실히 따르고 있어 강도시기 고려 건물지의 구조와 성격을 살펴볼 수 있는 유적으로 평가된다. 유물은 강도시기인 13세기대 청자가 대부분으로 기종은 발·대접·완·접시·잔·뚜껑 등 일상기명이 주를 이루며, 발우·잔탁·항·병·매병·마상배·베개·연적 등 특수기종과 중국자기편, 차마구로 추정되는 철기가 출토되었다.

#### 하남 교산동 건물지

1998년 세종대학교박물관에서 실시한 하남시 광역지표조사에서 지표면에 초석이 일부 노출된 상태로 확인되어 보존 및 관리대책 수립을 위하여 1999년부터 2003년까지 4차에 걸친 학술조사가 실시되었다. 이 건물지는 『동국여지승람』과 『대동여지도』를 비롯한 여

러 문헌에서 보면 광주 고읍의 위치와 비교된다. 통일신라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충복하여 조성된 동·남·서측의 건물지 3개소를 비롯하여 용도를 알 수 없는 집석유구, 소성유구, 석축 연못지가 확인되었으며 건물지 외곽으로 담장지 혹은 토루가 둘러져 있다. 유물은 귀면와·막새·평기와 등 기와류, 주름무늬병편·파상문토기편·도기와 흑유도기, 청자와 백자 등이 출토되었고, 건물지의 성격과 조성주체를 추정할 수 있는 ‘광주객사(廣州客舍)’·‘성달백사(成達伯士)’·‘애선백사(哀宣伯士)’ 명문와도 수십 점이 출토되었다. 명문기와로 볼 때 이 건물지는 통일신라 말기 및 고려 초기 향촌의 토호 세력의 거점이거나 고려 전기 광주읍치소의 객사와 관련된 관영 건물지로 추정된다.

#### 수원 고읍성

고읍성이 위치한 곳은 고려시대에 수주의 읍치 있었던 곳으로 정조 13년(1789)에 사도 제자의 능을 이곳으로 옮기기 전까지 수원지역의 행정 중심지이었다. 1999년 발굴조사에서 통일신라시대층, 고려시대 전기와 후기층, 조선시대 전기와 후기층이 확인되었다. 고려시대 문화층은 트렌치조사로 일부만 이루어졌는데 직경 2m의 적십이 확인되어 건물지가 존재할 가능성을 파악하였다. 유물은 해무리굽 청자완과 고려 백자, 어골문 기와가 출토되었다.

### 3. 관방유적

관방유적은 단시간 한 시기에 사용되고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상황에 따라 수축과 개축을 하면서 오랜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특징이 있다. 고려시대 사료에 관련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나 발굴조사를 통해 보면 고려시대 초축된 것보다 그 이전 시기에 축조되어 이후 시기인 조선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삼국시대 성곽으로 알려진 곳의 발굴조사에서 양적인 차이는 있지만 고려시대 유물이 출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곽 조사는 대부분 지정된 문화재로 학술 및 정비 보존을 위한 목적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발굴조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수원 고읍성, 용인 쳐인성, 평택 서부의 관방산성(무성산성·자미산성·비파산성·용성산성·덕목리성), 안성 죽주산성과 망이산성 등이 조사되었다.

### 용인 처인성

처인성은 『고려사』의 기록에 몽고의 2차 침입(1232년) 때 승려 김윤후가 몽고 장수 살리타를 사살한 전투가 있었던 곳으로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에서 199년 시굴조사를 하였다. 조사결과 구릉 경사면의 위쪽에 중심토루를 축조하고 외면에 보축을 실시한 토축성이 밝혀졌으며, 남문지, 초석·적십·저장구덩이 등 유구를 성내부에서 확인하였다. 유물은 통일신라양식 암막새와 토기편, 사각편병, 도기편, 기와류, 철기류 등 처인성의 사용시기를 알려주는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특히 철기류는 철촉·철창·환두대도 등의 무기류와 취사용구인 솥과 솥뚜껑, 농공구인 따비가 출토되어 처인성 전투에서 보다시피 방어용 취락의 성격을 가졌다는 짐작할 수 있다.

### 안성 망이산성

경기도 안성과 충북 음성에 걸친 망이산에 위치하며, 9부 능선을 따라 테뫼식으로 축조된 토성인 내성과 포곡식 석축산성인 외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6차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1~3차는 안성구간, 4~6차는 음성구간에 해당한다. 서문지 일대 발굴조사에서는 이전 시기에 축조된 성벽과 성문을 고려시대 초기에 성문지를 방어하기 위한 등성시설과 문 안쪽에 내옹성을 쌓아 개축하였음을 고려 광종의 연호인 ‘준풍4년(峻豐四年, 963)’ 명기와가 서문 함몰부 와적층에서 출토됨으로써 확인되었다.

### 안성 죽주산성

중부내륙 교통의 요지로 고대부터 군사적 요충지이며, 대몽항쟁의 격전지로 고종 23년(1236) 몽고군과의 전투에서 죽주방호 별감 송문주 장군의 전승지로서 알려져 있다. 1970년대 성벽에 대한 조사없이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져 성벽 붕괴 및 원형의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정비와 보수,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를 10차례 실시하였다. 산성은 내성과 중성, 외성의 삼중성으로 충축과 축소했음을 보여준다. 중성은 평면 장방형으로 산성의 중심부에 해당하며 신라시대 축성되어 조선시대까지 사용하였다. 외성은 중성의 북벽 외부에 덧붙여 타원형으로 쌓았는데 고려시대에 축성한 것으로, 내성은 조선시대에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유물은 ‘관초(官草)’ 명기와와 어골문 기와, 청자 등이 수습되었다.

### 평택 서부 관방산성

고려시대의 관방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해안 인근 평택지역에 남북으로 이어진 능선상에 일렬로 배치되어 있는 무성산성, 자미산성, 비파산성, 용성리산성, 덕목리산성 5개소를 2004년 시굴조사하였다. 5개소의 성 중 삼국시대에 축성된 자미산성을 제외한 4개소는 통일신라~고려시대에 축성되었거나 수축되어 사용된 것으로 축조방법이 대동소이함을 확인하였다. 토성벽은 암반면에 점토를 다져 기저부를 조성하고 그 위로 점토와 모래를 수평으로 차례차례 다져 올려 토루를 만들었는데 비파산성과 덕목리성은 성벽의 기단에 2~3단 석축을 한 다음 토사를 다쳤으나 용성리성은 암반을 삭토한 후 그대로 토사를 다져 올린 점이 차이가 있다. 용성리성과 덕목리성에서는 외황과 해자 시설이, 비파산성에서는 내외벽의 기단부를 보호하기 위한 와적층 시설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고려시대~조선시대에 이르는 기와 및 자기와 토크편이 출토되었다. 특히 비파산성에서는 1998년 경기도박물관 지표조사에서 ‘건덕3년(乾德三年, 965)’명 기와가 수습되었고, 시굴조사 와적층에서 ‘거성’이라는 명문기와가 출토되어 이곳이 고려시대 용성현의 치소였음이 밝혀졌으며, 이 명문기와는 산성의 축조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무성산성, 비파산성, 용성리성, 덕목리성 4개소는 성의 축조방법과 출토유물로 볼 때, 사용시기는 통일신라~고려시대로 추정되며 아산만 일대 해안방어 및 행정치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 4. 교통유적

역참, 도로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유적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주요 교통로상에서 확인되는 유적사례로 서울 원지동 원지유적, 안성 보동리유적이 있다. 원지동유적은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 구간에서 확인되었으며 측면 1칸 건물지 2동과 출입시설, 담장지, 배수로 등이 조사되었고, 유물은 고려시대 연화문과 일휘문 수막새, 어골문 평기와, 청자, 중국자기, 조선시대 수지문 막새, 파문청기와, 분청사기, 백자 등이 출토되었다. 조사지역이 제한적이어서 규모와 성격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고려시대 남경 건설에 따른 남북교통로상에 설치된 원이 조선시대까지 유지된 것과 구전으로 전해 온 원지의 실체를 확인한 점이 중요하다. 보동리유적에서는 석축과 기단을 갖춘 중심

건물지를 중심으로 남남쪽과 서쪽에 측면 1칸의 행랑형 건물지가 확인되었는데 초석과 적심, 건물지의 배치양상으로 원지일 가능성이 있으며 유물은 연화문 수막새와 어골문가 집선문 평기와가 출토되었다.

## 5. 생산유적

생산유적은 자기가마, 도기가마, 기와가마가 주로 조사되었다. 고려시대 자기가마는 축조 재료에 따라 벽돌가마와 진흙가마로 구분되며 벽돌가마에서 진흙가마로 변화하며 양상을 보인다. 벽돌가마는 용인 서리 중덕 하층, 시흥 방산동에서, 벽돌가마와 진흙가마 혼축은 여주 중암리, 용인 서리 중덕 상층과 상반에서, 진흙가마는 인천 경서동, 용인 서리 하덕, 용인 보정리, 여주 안금리, 부평리에서 조사되었다. 도기가마는 시흥 방산동, 안성 화곡리 · 오촌리, 용인 동백동 · 죽전지구 · 청덕동 · 보정리, 화성 가재리 · 매곡리, 여주 연라리 · 안금리 등지에서 고화도 소성의 도기 가마들이 발굴되었다. 도기가마는 생토층을 굴착하며 만든 지하식 등요로 연소부, 소성부, 연도부를 갖추고 있으며 평면형태가 대부분 ‘고구마형’이다. 기와가마는 용인 서천동 · 역북동 · 남사 완장리, 안성 만정리 · 도기동(중앙), 화성 청계리 · 분천리, 이천 장천동, 양주 삼숭동, 평택 남산리, 이천 목리, 파주 운정(3)지구 등에서 조사되었다. 제철유적은 고양 벽제동, 수원 영통, 용인 서천동 · 남사 완장리, 오산 세교지구 · 가장동(서해), 평택 토진리 · 평택 고렴리에서 조사되었다. 그리고 고양 벽제동과 용인 남사 완장리에서는 철제 솔 주조, 봉업사지에서는 범종 주조 등 금속기 생산유적도 조사되었다.

### 시흥 방산동 청자 백자요지

이 유적은 1990년대 초반에 알려져 1997년과 1998년 2차례 발굴조사되었다. 조사결과 청자와 백자를 함께 생산한 자기가마 1기와 도기가마 2기가 조사되었다. 자기가마는 천정부만 함몰되었을 뿐 봉통부, 소성부, 굴뚝부 등 모든 구조가 완전하게 확인되었는데 규모는 길이 39.1m, 폭 2.22m이다. 초축이래 2회 보수과정을 거쳐 개축되었는데 초축 당시보다 규모가 축소됨을 알 수 있다. 유물은 청자와 백자 함께 출토되나 청자가 주를 이루고, 기종은 대접, 접시, 밥, 완, 잔 등 20여종이 있으며 완이 50%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해무리굽완,

화형접시 등 중국 월주요 청자와 유사한 것 출토되었는데 이는 있어 중국의 제작기술을 수용하여 제작했을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 용인 이동 서리 백자요지

용인 이동 서리 백자요지는 1984년 · 1987년 · 1988년 호암미술관에서 중덕요지를 조사하였고 2001~2006년까지 5차례 경기문화재연구원에서 상반요지를 조사하였다. 중덕요지는 하층에 벽돌가마, 상층에 진흙가마가 중첩되어 있으며, 퇴적층은 거대한 'M'자형을 이루고 있다. 벽돌가마는 길이 40m, 너비 1.8m이고, 그 위에 개축한 진흙가마는 길이 83m, 너비 1.2~1.5m에 달하는 대형으로 측면출입구가 23개소 확인되었다. 이 요지는 우리나라 최초로 알려진 벽돌가마이고 진흙가마로는 최대 규모이다. 요지 발굴에서 4개의 자연층위를 확인하여 우리나라 자기의 발생 및 변화과정을 파악하는 중요한 근거자료를 확보하였다. 출토유물 완, 발, 화형접시 등이 있으며 완이 주류를 이룬다. 퇴적층의 유물출토 상황으로 보면 처음에는 청자를 굽는 가마에서 백자를 같이 굽게되고 이어 백자만 굽는 가마로 변화하며, 우리나라 청자나 백자의 가장 이른 굽형식으로 알려진는 해무리굽보다 더 이른 시기의 선해무리굽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가마의 제작시기는 10세기 중반부터 11세기 전반까지로 추정한다. 상반요지는 반지하식 진흙가마로 길이 53m, 폭 1.5~1.7m, 아궁이 4개소, 측면출입구 4개소가 확인되었다. 아궁이는 입구는 갑발로, 벽면은 진흙과 갑발을 이용하여 축조하였고, 고려시대 가마에서 드물게 연도시설이 확인되었고 갑발을 사용하여 배연시설을 만들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유물의 기종은 일상 용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보, 궤로 추정되는 제사용기가 상당수 출토되었다. 사용 시기는 중덕요지 3 · 4기층과 유사하며 10세기 후반부터 11세기 중반으로 추정하였다.

### 여주 중암리요지

가마는 경사면에 조성한 등요이며 규모는 길이 20.4m, 너비 1~1.7m이다. 아궁이, 소성실, 굴뚝부가 완전하게 남아있고, 5회 이상 수축과 개축이 있었는데 축소하여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최초에는 벽돌가마로 축조되었으나 3차 개축이후부터 진흙가마로 변화하며 가장 늦은 시기에는 아궁이와 굴뚝부에 석축으로 벽체를 조성하였다. 벽돌가마에서 진흙가마로 변화하는 고려전기 가마유적으로 중요하다. 유물은 완 · 발 · 화형접시 출토되

었는데 5층인 최하층에서는 선해무리굽완·음각연판문발·연판문잔탁이, 3층과 1층에서 제기편이 출토되었다.

### 용인 보정리 청자요지

청자가마와 도기가마, 공방지 및 기타 석렬유구 등이 조사되었다. 가마는 경사면을 따라 조성된 등요로 소성실 격벽시설이 없는 단실요이며, 규모는 길이 약 16m, 너비 1.1~1.4m, 경사도는 10~15°로 잔존 깊이는 10~86cm이다. 가마의 구조는 아궁이, 소성실, 연도로 이루 어져 있으며 4회이상 보수가 있었다. 가마는 진흙으로 축조하였으며 아궁이와 연도에 인접한 소성실 뒤쪽은 할석을 이용하여 조성하였다. 유물은 청자가 대부분이고, 백자는 소량 수습되었으며, 기종은 청자는 대접, 접시 등 24개로 다양하나 백자는 대접·발·완·접시·잔·뚜껑만 확인되었다. 유물의 대다수가 일상기명이지만 불교 공양구와 화분 특히 출토예가 드문 보살상과 나한상으로 추정되는 청자 불상은 등도 수습되어 주목된다. 또한 자기의 제작생산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작업장 시설과 도구 수비공 역할을 한 도기도 출토되었다. 가마의 규모나 구조, 연판문의 대접·접시·통형잔, 압인양각기법의 접시 등 유물의 특징이 고려 중기에 유행하던 양식으로 연대는 12세기경으로 추정된다. 이 유적이 위치한 곳은 고려시대 읍치가 있던 용인 구성의 외곽지대로 인근에서 조사된 고려시대 건물지와 분묘에서 유사한 청자가 확인되므로 이 일대에서 소비되는 자기를 생산하는 공급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고려 중기 도자의 생산과 유통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다.

### 용인 죽전 도기 가마

도기가마는 4기가 조사되었으며, 구릉의 사면에 축조되었다. 가마는 단실의 지하식 평요로 잔존길이 4.45m, 폭 1.66m, 높이 1m 내외이다. 아궁이와 연도는 거의 유실되어 소성실과 연도 일부만이 남아있는 상태이며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이다. 소성실은 타원형으로 경사도가 거의 보이지 않으며 벽은 진흙을 발라 조성하였다. 가마의 주변으로는 폐기장이 넓게 펼쳐져 있으며 유물은 대부분 폐기장에서 수습한 것으로 호·병·옹·장군·시루 등 다양하게 출토되었는데 평저의 호가 압도적으로 많고 호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하여 동체부에 구연부를 만든 장군도 다수를 차지한다. 유물중 ‘司醞署’라는 음각명문이 새겨진

호편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온서’는 고려시대 궁중에서 술의 공봉을 맡아 보던 관청으로 유물의 시기와 용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용인지역에서는 성복리 통일신라시대 가마, 보정리, 청자가마, 동백지구 도기가마 등 다양한 가마가 조사되었는데 이 일대가 통일신라부터 고려시대에 도자기 생산지로서 상당한 역할을 담당했던 곳으로 생각된다.

### 이천 목리 기와가마터

통일신라~고려시대 기와가마 6기와 적석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가마는 등고선과 직교하게 비교적 등간격으로 조성되었다. 모두 지하식 등요로 요전부는 점토층의 굴착면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아궁이는 석재를 사용하여 조성하였고 아궁이에서 연소실로의 불턱은 가파르다. 소성실은 무시설, 주형으로 6열의 횡와열 시설, 방형으로 구들장을 기와편으로 대체한 토대식인 점. 6호는 바닥의 부와(敷瓦)시설이 주목된다. 연도부 굴뚝은 석재를 이용하여 만들었다. 출토유물은 모두 평기와로 문양의 종류는 고려초기의 대표적 문양인 태선문 계열을 비롯하여 사선문, 집선문 격자문, 어골문, 방사선문 등이 중심이다. 명문과는 집선문에 시문된 ‘因国’명과, 사격자문에 시문된 ‘南川官’명, 방사선문에 횅으로 시문된 ‘南川’銘 그리고 어골문에 시문된 ‘田’자 명문와 4가지 종류이다. 특히 ‘南川官’銘 명문와가 주목되는데, ‘官’이라는 의미에서 수요처로서의 관영시설을 추정할 수 있다. 인근의 관방유적인 설봉산성에서 사격자문에 ‘南’명문, 집선문 ‘因国’명문, 어골문 ‘田’명문과가 확인되는데 문양의 구성이 동일하므로 설봉산성에 기와를 납품하던 공급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목리 기와가마터의와 설봉산성 편년의 간극과 설봉산성의 ‘南’명문와를 신라의 ‘南川州’, ‘南川停’과 관련시켜 해석이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

### 주조 · 제철 유구

봉업사지 3차 발굴조사에서 범종을 주조하기 위한 주형유구와 용해유구가 조사되었다. 주형유구는 형틀을 놓았던 흔적이 원형으로 남아있는데 주변은 열에 의해 단단하게 소결되어 있으며 종구의 지름은 76cm, 폭은 5cm로 확인된다. 주형유구의 하부에서는 석재와 기와를 이용하여 기초와 가스배출을 위한 통풍시설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용해유구는 주형에 주입할 청동을 녹이기 위한 시설로 장방형의 적석 하부에 목탄이 다량으로 퇴적된 양

상이다. 고양 벽제동과 용인 남사 완장리에서는 무쇠솥 주조와 관련한 용해로와 용범제작소, 용범을 만들기 위한 토취장, 공방지 등이 조사되었다. 완장리에서는 무쇠솥 뚜껑, 봄체, 다리부분을 제작한 용범 출토되었는데 남아있는 용범으로 추정할 때 다리는 단면 삼각형이고, 뚜껑과 전에는 침선이 외면 전체에 횡선문이 돌려진 형태로 서궁의 ‘고려도경’에 발이 세 개 달린 ‘죽부’로 소개된 것을 알 수 있다.

## 6. 불교유적

고려시대 사지는 유적의 성격을 파악하고 정비와 보존을 위한 학술자료를 확보하기 1990년대 후반부터 발굴조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역사적 사실이나 문현에 근거한 내용을 밝히고 또 고고학적으로 자료를 통해 사람 성격과 변천양상 당시의 생활상과 사회상을 알 수 있다. 대부분 지정된 문화재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학술조사가 진행된 주요유적으로는 강화 선원사지, 여주 고달사지, 안성 봉업사지, 하남 천왕사지, 용인 서봉사지, 수원 창성사지 등이 있다. 개발에 따른 구제조사에서 확인된 주요 유적으로는 여주 원향사지, 오산 갈곶리 유적, 안성 장능리 사지, 안양 안양사지 등이 있다.

### 강화 선원사지

1976년 동국대학교 지표조사에서 발견하여 1996년부터 2001년까지 4차례에 걸쳐 발굴조사 되었고 2012~2013년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독립된 건물지 21개소와 부속 행랑지 7개소, 축대, 배수시설이 확인되었으며, 서쪽구역은 북고남저의 지형 위에 동서로 긴 4개의 충단을 두고 건물지가 대칭되게 배치되어 있다. 제1단에는 중문지와 동서회랑, 제2단에는 동서건물지, 제3단에는 금당지를 중심으로 좌우에 같은 규모의 건물지가, 제4단에는 중앙건물지를 두고 좌우에 건물지가 배치되었다. 동쪽구역은 건물지는 남향이며 일렬로 배치되었으며 온돌시설이 확인되어 주거공간일 가능성성이 높다. 선원사지 건물지는 유구간에 시기차를 둔 중복현상이 없음에 주목하여 단기간에 집중 조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유물은 양질의 자기류, 연화문·당초문·범자문·귀목문 막새, 평기와, 취두·잡상·용두 등 특수기와와 유적의 성격을 말해주는 금동탄생불, 청동나한상, 탄화된 금니사경, 묵서사경 등 다양하게 출토되었다. 발굴조사에서 고려팔만대장경을 판

각했던 선원사(禪源寺)터로 볼 수 있는 직접적인 고고학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출토유물의 편년을 고려할 때 선원사의 존속시기인 1245~1398년과 관련한 시기에 해당한다.

### 여주 고달사지

고려시대 대표적인 선종사원으로 사료에 따르면 현욱이 개성연간(836~840) 혜목산에서 개창하고의 제자 심희와 찬유가 선종사원의 종풍을 유지해 나갔다. 고려 광종대에는 부동사원 왕실의 후원을 받으며 확고한 위상을 정립하였으며 12세기초 의천에 의해 천태종으로 회합하였다가 의천이 입적하자 다시 산문으로 돌아와 17세기 전반까지 명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1998년부터 2014년까지 8차례 걸쳐 이루어진 고달사지 발굴조사에서 건물지 31동, 축대 10기, 쌍사자석등지, 탑지 2기, 석조 2기 등 유구를 확인하였고 고달사지 승탑 및 원종대사혜진탑비 주변 일대를 조사하였다. 유구는 통일신라말 이래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의 중창과 개수를 거치면서 변화를 겪어왔는데 지형을 따라 크게 3단의 축대 위에 법당지와 불전지, 승방지, 욕실, 요사채 등 31동 이르는 건물지가 쌍사자석등지와 탑지, 담장지 등과 어우러져 여러 개의 축과 원을 이루면서 영역을 구성하고 전체적인 질서를 갖추어 나갔다. 이는 사료상에 보이는 의천 입적 후 기록과 17세기초 까지 사원이 존재했던 기록과 상통하는 부분이다. 유물은 연화문·귀목문 수막새와 당초문·인동당초문·초엽문 암막새, 귀면와, ‘고달사’명을 비롯한 여러 점의 명문와, 평기와, 전, 도기, 청자음각국화문화형잔탁을 비롯한 자기, 중국자기, 청동향로, 청동여래입상 등이 출토되었다.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와 유물은 고려시대 선종사원이 갖는 역사적 가치와 특징을 밝혀내는 실마리와 건축적인 부분은 물론 미술사·고고학·불교사 등 다양한 분야에 중요한 연구자료를 제공해 준다.

### 안성 봉업사지

‘봉업사’는 1966년에 수습된 향로와 반자의 명문을 통해 이름이 알려졌다. 『고려사』에 공민왕 12년(1363년) 왕이 죽주에 묵었으며 봉업사에서 태조의 진전을 알현하였다는 기록으로 태조 왕건의 진전사원으로 주목되었다. 1997년부터 2005년까지 3차례 발굴조사를 통해 통일신라시대 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목탑지를 비롯하여, 금당지, 강당지, 진전지 등 31개소의 건물지와 부속시설을 확인하여 중부지역 최대의 평지가람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물은 기와류, 자기류, 도기류, 금속류, 불상편 등 다양하며 출토량도 상당하다. 특히 명문기와가 단일 유적으로는 최대인 60여종 700여점이 출토되어 봉법사 이전의 창건, 사찰명, 중창 등에 대한 역사적 내용을 알려준다. 자기류는 고려청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소량의 고려백자와 송대 월주요와 요주요, 정요, 건요에서 생산된 중국자기도 확인된다.

### 하남 천왕사지

천왕사는 975년(광종 26) 제작된 ‘원종국사혜진탑비’에 태조 왕건의 청에 따라 원종국사 찬유가 머물렀고,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 1366년 천왕사의 사리를 왕륜사에 안치하였다가 되돌아 온 기록이 남아 있으며 국내 최대인 보물332호 철조석가여래좌상이 있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2000년~2001년 2차례 시굴조사후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었으나 2009년 이후 소규모 개발에 따른 조사가 20여 차례 실시되었다. 조사결과 탑지, 금당지, 강당지, 회랑지 등의 중심사역과 요사채 등 부속시설, 기와가마, 숫가마 등 생산유구가 확인되었다. 중심사역의 가람배치는 중문(남문)-탑-석등-금당-강당이 일렬로 배치된 1탑1금당으로 추정되며 탑과 금당의 주위에 회랑을 돌려 부속건물과 구분되게 하였다. 또한 주변에서 확인된 생산유구는 천왕사에 사용되는 기와 등을 수급하기 위해 운영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물은 ‘천왕사’ 명문와, 막새, 평기와, 자기류, 도기류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 여주 원향사지

원향사는 1999~2001년도에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발굴조사에서 ‘원향사와장승순문元香寺瓦匠僧順文’명 기와를 비롯하여 ‘원향사’명 기와가 다수 출토되어 ‘영월 흥녕사 징효대사탑비」(寧越 興寧寺 澄曉大師塔碑)’(944년 고려 혜종 원년 건립)에 나오는 ‘음죽현원향사陰竹縣元香寺’가 이 유적임이 밝혀지게 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금당지, 추정 목탑지 등 21기의 건물지가 확인되었는데 8~9세기에 작은 규모의 초창 가람이 조성되어 9세기 말 사자산문과 관련된 선종계 사찰로 존속되다가, 11세기에 들어서면서 호족세력의 후원으로 대대적인 중창이 이루어져 문지, 탑지, 불전지와 법당지, 회랑지이 건립되면서 사세가 확장되고, 12세기에 한 차례의 중창후 13세기에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소조나한유희좌상, 소조나한상, 소탑, 귀면와, 연목와, 인화문토기편, 고식기와, 전형적인 신라양식의 막새기와, 명문와, 고려청자 및 고려백자, 중국자기 등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공양구, 장엄구, 의식구, 생활용구 등이 출토되었고, 고려전기에 주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탄생불과 청동법종이 발견매장문화재로 신고·수습되었다. 건물지의 형태와 다양한 출토유물로 볼 때 상당한 사세와 위엄을 갖춘 고려시대의 사찰로 이 시기 지방사찰과 청자, 기와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그러나 가람 배치의 대략적인 양상은 파악되었지만 도로공사 구간에 한정한 구제발굴이라 원형사의 전모를 밝히지 못하고 추정되는 사역의 절반밖에 조사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 창성사지

진각국사대각원조탑비(보물 제14호)를 통해 진각국사 천희가 1382년 이곳에서 입적하였고 1386년 승탑과 탑비가 조성된 것을 알 수 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이곳에서 나말여초(9~10세기), 고려시대(10~14세기), 14세기~17세기, 18세기 후반의 문화층과 유물이 확인되었다. 고려시대 창성사의 위상을 알려주는 유물로 석탑부재, 석조불상편, 건축부재, 북송대 중국자기 및 청자양각접시, 창자 투각 돈, 운학문과 모란문 청자 등 최고급 청자류가 출토되었다.

### 오산 지곶동유적

건물지는 A구역 건물지(선축, 역 'ㄱ'자형)와 B구역 건물지(후축, 'ㅁ'자형)로 구분된다. A구역 건물지는 정면 3칸, 측면 1칸이며 할석으로 기단을 쌓았다. A구역 상부에는 B구역 건물지의 요사체로 보이는 구들유구 2기와 건물지 주변의 부속시설물인 담장, 암거시설, 벽체건물지 등이 밀집하여 분포하고 있다. B구역 건물지는 불당지 있는 북쪽 건물지를 중심으로 동·서·남쪽에 배치된 형태이고, 정면 3-3-5-3칸, 측면 1칸으로 이루어져 있다. B-1 건물지의 초석은 치석된 단면 철(凸)자형이며, 초석과 마주한 기단석은 다른 것에 비해 크고 편평한 점이 퇴칸의 존재를 추정하게 한다. 중앙부 계단지가 남아있다. B-1 건물지 서측에 치우쳐 불당지가 확인되었는데 동쪽을 향하고 있어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과 비슷한 것으로 판단된다. 불당지 북동쪽에서는 상륜부 등은 불에 녹고 탑신과 기단 일부만 남아 있는 청동제소탑이 1점 출토되었는데 논산 개태사지 출토품과 비교연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유물은 고려시대 이후의 무문, 어골문, 사격자문, 어골복합문 기와와 청자, 고려백자가 출토되었다. 건물지의 조영연대는 출토유물로 보아 선축인 A구역 건물지는 11C 후반

에서 12C로, 후축인 B구역 건물지는 12C에서 13C 전반으로 보았다.

#### 안성 장능리사지

건물지 6동과 온돌유구, 적석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금당지로 추정되는 2호 건물지를 중심으로 동쪽에 4호, 서쪽에 5호, 남쪽에 3호 건물지가 조영된 ‘ㅁ’자형 배치이다. 유물은 금동불상과 청동종을 비롯하여 ‘태평홍국칠년임오...’명 기와, 청자, 백자 등 유물이 다수 출토되었다. 유구와 유물로 보아 10세기 중엽에 창건되어 중수와 개축을 하다가 16세기에 폐사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 7. 무덤유적

1947년 개성 법당방 벽화분을 시작으로 1980년대까지 북한지역에서 왕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남한에서는 여주 상교리 상방하원석실묘, 강화 허유전 묘가 조사되었다. 1990년대 묘지석이 출토된 파주 서곡리 벽화묘를 비롯하여 고양, 용인에서 석곽묘와 토광묘가 조사가 이루어졌다. 규모에 따라 한 기 또는 수십 기의 무덤이 조사되었다. 고려시대 무덤은 석실묘, 석곽묘, 화장묘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석실묘는 지배계층의 묘제로 개성지역과 강화도에 분포한다. 개성지역에서 조사된 고려 왕릉은 묘역과 봉분 매장주체부로 구분할 수 있다. 묘역은 능선의 남쪽 경사면에 석축으로 3~4단 구분하여 장방형으로 조성하여 제1단에는 매장주체부인 석실과 곡장, 제2단에는 석등과 문인석, 제3단에는 무인석, 제4단에는 정자각과 비가 배치되는 구조이다. 봉분은 원형이며 하단에 12지상을 새긴 병풍석을 설치하고 그 주위 난간석을 돌렸다. 매장주체부는 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지하 또는 반지하식의 횡구식이다. 벽체는 가공한 장대석이나 할석을 수직으로 쌓았고 천장은 평천장으로 3매의 석재로 마감하였다. 입구인 남쪽을 제외한 3벽면과 천장에는 회칠을 하였으며 벽화가 그려진 것도 있다. 바닥에는 관대를 설치하였는데 1매의 대형석재, 2~3장의 석재를 짜맞춘 것, 가장자리를 할석으로 돌리고 내부를 채운 것, 4매의 가공한 장대석을 돌린 것이 있고 유물받침대를 설치하고 관대와의 공간에 전을 깔기도 하였다. 입구는 남쪽 벽에 문주석을 세우고 문주석사이에 문지방석을 놓았으며 바깥쪽에 1매의 대형석재로 막았다. 매장주체부 축조는 후대로 갈수록 벽체와 관대 등 전반적으로 간략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강화도에서는 4개의 석실묘는 4기가 발굴조사되었는데 규모나 형식 면에서 개성 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석릉과 가릉의 천정부 위에 설치된 팔각구조물과 가릉의 지상식 석실 등은 특징적이다. 여주 상교리에서 조사된 상방하원석실묘는 지금까지 확인된 사례가 없는 특이한 구조이다.

석곽묘는 판석조와 할석조로 구분되는데 판석조석곽묘는 관료 계층의 묘제로 강화지역 지표조사에서 다수 확인되고 있으나 발굴조사된 것은 파주 서곡리 벽화묘와 강화 허유진 묘가 있다. 할석조석곽묘(이하 석곽묘)와 토광묘는 1980년대 여주 매릉리 용강골고분 발굴조사이해 1990년대부터 주로 조사되었으며 발굴조사가 증가하면서 유적 사례를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전역에서 확인된다. 주로 복합유적에서 다른 시기 유구와 함께 확인되는 수가 10여기 이내이며 수십기 씩 집중되는 경우는 드물다. 석곽묘과 토광묘는 특징으로 묘역이 설치되는 것, 석단과 곡장이 설치된 것, 바닥에 요갱이 있는 것, 묘역의 상부에 적석한 것, 내부 관대로 기와를 사용한 것 등 다양하다. 주요유적으로는 2000년대 이전에 조사된 여주 용강골, 고양 중산동유적, 용인 마북리·좌항리 등을 비롯하여 안산 대부도 육곡고분군, 용인 보정리 소실유적·완장리·공세동·창리, 평택 수월암리, 파주 운정신도시, 여주 상거동, 이천 증포동, 화성 장지리·삼존리·우음도, 수원 광교지구, 김포 풍무동 등이 있으며, 인화~강화간 도로건설구간에서 토광묘 160여기가 조사되었다. 화장묘는 장례방법으로 묘제로 본다면 2차장일 가능성이 많은 옹관묘로 볼 수 있는데 옹관묘는 평택 궁리에서, 석곽에 옹관을 안치한 석곽옹관묘가 안성 매산리유적에서 확인되었다.

#### 강화도 고려왕릉(사적369호)

강화도에는 왕릉 2기, 왕비릉 2기, 왕릉급 석실분인 능내리석실분이 알려져 있으며 2001년에 석릉(희종, 1204~1237), 2004년에 가릉(순정태후~1244)과 곤릉(원덕태후, 몰년미상), 2006년에 능내리석실분 등 4기가 발굴조사되었다. 왕릉의 축조는 가릉을 제외한 3기는 개성지역 고려왕릉의 일반적인 특징을 따르고 있는데 묘역은 2~3단으로 조성되어 각 단에 석상이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며 지상식인 가릉 외에 3기는 지하식이다. 호석으로 판단되는 개석 상부의 석구조물은 개성지역에서는 12각만 확인되었으나 강화도에서는 8각(가릉, 석릉), 12각(곤릉, 능내리석실)이 확인되는데 이를 불교적인 요소로 해석하거나 신분상 반영 또는 간략화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벽면은 가공한 장대석(가릉, 능내리석실)이나

할석(곤릉, 석릉)을 이용하여 축조하고 회칠로 마감하였다. 입구는 남쪽 벽면으로 양끝단에는 문주석을 세우고 문주석 사이 바닥에 문지방석을 놓았으며 대형 판석 1매로 막았다. 입구쪽 석실 좌우 벽석 최상단과 최하단에는 목재를 가로로 걸어 나무문을 달았거나 휘장을 드리웠던 추정되는 방형 흔을 만들었다. 판대는 모두 가공한 장대석 돌려 4면을 만들고 내부에 전(곤릉)을 깔았거나, 회칠(가릉), 돌을 깔고 회칠(능내리 석실)을 하였다. 가릉의 구조가 다른 3기와 차이가 있는 것은 말단부의 평지에 조성된 입지의 취약성을 극복하고자 경사면의 최상단에 지하식으로 조성한 곤릉, 석릉, 능내리석실과 달리 매장주체부를 지상에 설치하고 할석으로 넓게 봉분을 축조하여 언덕처럼 보이는 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곤릉과 능내리석실분의 전면에서 건물지가 확인되었는데 곤릉 건물지는 정면 3칸으로 중앙어칸을 따라 돌출된 부분이 이어지고 있어 '정자각'으로 추정되며 능내리 석실분 건물지는 정면·측면 1칸인 적심식과 달리 있다.

석릉, 가릉, 곤릉, 능내리석실분은 모두 몇차례 도굴되었음에도 금속류, 옥장식품, 청자류, 기와류 등 다양한 유물이 다량 출토되었다. 능내리석실분에서는 동서남북 4방향에서 도기호 진단구와 건물지 출토 취두와 막새가, 가릉 석실 내부에서는 당송대 동전 100점과 옥장식품이, 곤릉과 석릉에서는 삼족향로와 최상품의 청자가 다량 출토되었다. 또한 강화 곤릉 및 능내리석실분 건물지에서는 귀목문 수막새 및 취두를 비롯한 다수의 기와류가 수습되었다.

#### 파주 서곡리 벽화고분

서곡리 벽화분은 권준(1280~1352)의 묘로 묘역은 동서 14.2m, 남북 27m이며, 5개의 장방형 석단을 조성하고 제2단에 매장주체부를 지하식으로 길이 285, 너비 118, 높이 128의이며 동벽과 서벽은 2매, 북벽은 3매의 화강암 판석으로 축조하였고 바닥에는 전을 깔았으며 입구인 남벽은 판석 1매로 막았다. 내부의 4벽면에는 모자를 쓴 인물상이 천정에는 성신도가 그려져 있다. 묘역에 곡장과 석단이 조성되어 석실묘의 묘역 구조를 보이고 있다. 유물은 석곽 내부에서 중국 당·송대 동전 43점과 관정이, 외부에서 청자, 토기편, 주인공의 묘지석 3매가 출토되었다.

### 안산 대부도 육곡고분군

2002년과 2004년에 제2차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석곽묘 10기, 토광묘 37기 등 모두 47기이다. 석곽묘 4기에서는 묘역시설로 볼 수 있는 석단이, 일부 석곽묘와 토광묘에서는 철기가 부장된 요갱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토기류, 청자류, 청동제, 철제 등 다양하게 출토되었는데 특히 7호 토광묘에서 청동제인장과 중국 송대의 동전이 출토되어 주목된다. 청동제인장은 문서나 서신 또는 물목을 봉인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이로 보아 피장자 중 일부는 중국과의 교역을 담당하던 상인계층이나 하급관리일 가능성이 있다. 육곡 고분군은 고려시대 서해 도서지역의 장제와 생활상을 밝히고 당시의 문화양상 파악에 중요한 자료이다.

### 화성 반송리 행장골 · 장지리 · 우음도유적

화성 반송리 행장골유적에서는 석곽묘 9기, 토광묘 7기가 조사되었다. 유물은 청자대접, 청자완, 도기를 비롯하여 고려시대 전형적인 동경인 쌍용문운문대경, 팔각능형연주문좌경 등의 청동거울과 철제가위, 동전(개원통보, 원풍통보 희녕원보) 등이 출토되었다. 장지리 유적에서는 석곽묘 7기, 토광묘 1기가 확인되었다. 분포양상이 이전시기와 구분되며 장축 방향은 등고선과 직교한다. 경사면 유실이 있지만 획구식으로 추정되며 경사면 아래쪽에 호석이 확인되고 바닥은 생토면을 이용하였다. 유물은 백자완, 청자반구병, 청자대접, 자기소접, 철제가위, 청동숟가락, 동곳, 관정 등이 출토되었다. 출토유물로 고려시대 초기인 10~11세기 경으로 추정된다. 우음도 송산그린시티 조성부지에서 적석토광묘 11기, 토광묘 17기가 조사되었다. 유물은 도기병, 청자대접, 접시 병 청동발, 수저, 동경, 철제가위 등이 출토되었다.

### 여주 매룡리 용강골 고분군 · 방미기골 · 상거동 유적

매룡리 용강골 고분군에서는 삼국시대 석곽과 함께 고려 후기로 추정되는 2기의 토광묘 (C-1호분, C-2호분)가 인접하여 확인되었다. 2기는 풍화암반토를 파고 만들었으며, C-1호분은 묘역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유물은 C-1호분 내부에서 청동제 수저와 묘역시설에서 상감된 청자접시가, C-2호에서 가위와 구슬이 출토되었다. 방미기골에서는 토광묘 15기, 석곽묘 2기가 보고되었으나 유물은 일부 유구에서만 출토되었다. 상거동유적에서는 석곽

묘 5기, 토광묘 5기가 조사되었다. 석곽묘는 경사면 아래쪽에 유실되어 정확한 구조를 알 수 없지만 수혈식이며 목관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생토면 바닥에는 지름 30cm 내외의 묘갱이 있다. 토광묘는 풍화암반토를 수직으로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석재로 목관과 토광벽 사이 보강한 4호, 3개의 묘갱이 있는 5호가 특징적이다. 유물은 도기, 자기, 동경, 청동발, 청동완, 동전, 철제가위 등이 출토되었다.

#### 용인 창리유적

석곽묘 10기, 태호유구 1기가 조사되었고, 1·2·7·8호 석곽묘는 횡구식으로, 10호 석곽묘는 수혈식으로 확인되었다. 개석사이에는 소형 할석으로 틈새 막았으며, 벽석은 할석으로 가로쌓기하였으나 단벽 또는 횡구부와 연결되는 장벽의 끝부분은 세워서 축조한 특징이 관찰된다. 석곽의 규모는 길이 200cm내외, 너비 80cm이며, 내부에는 시상 등의 시설은 마련하지 않고 내부에 목관을 안치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횡구부는 경사면 하단부인 서단 벽 전면을 사용하였다. 유물은 청자완, 도기호, 보습편·도자·가위·자귀 등 철기류, 동곳이 출토되었다. 석곽묘의 구조와 출토유물로 볼 때 대 조영시기는 고려 중기인 11세기경으로 추정되며 용인지역의 매장문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자료이다.

#### 이천 증포동유적

석곽묘 10기, 토광묘 5기가 조사되었다. 구조는 4벽이 남아있는 1호 석곽묘는 횡구식이고 나머지는 유실되어 알 수 없다. 3호 석곽묘는 3벽만 벽석을 쌓고 경사면 위쪽 단벽은 굴광면을 그대로 벽으로 사용한 반면, 2호 토광묘는 한쪽 단벽에 벽석을 쌓은 점이 특징이다. 유물은 편병, 고려백자완, 철제가위, 동경, 동곳, 나무 빗이 출토되었다.

#### 용인 보정리 소실유적

소실유적에서는 석곽묘 5기가 조사되었다. 이중 23호 고려시대 석곽묘에서 청자 잔, 고려백자 완·잔·잔탁·대접·접시, 도기 편병·발·청동숟가락·철제관정이 출토되었다. 이것은 음식기명은 자기, 병과 같은 저장기명은 도기, 청동숟가락까지 식생활 용기의 일습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괄유물은 11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중앙에 등근 원통형의 잔받침대와 평평한 전을 가진 잔탁은 용인 서리 백자요지 Ⅲ층 출토 잔탁

과 유사하므로 해무리굽완, 대접, 잔 등 고려백자는 서리 백자요지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성이 높다. 특히, 잔탁은 특수 기종으로 유구에서의 출토예가 매우 드물고 요지에서의 출토량도 극히 적다. 이것은 일반적인 기종이 아니라 소량만이 제작되어 소수계층이 사용한 것으로 23호의 주인공은 이러한 잔탁을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계층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8. 수중유적

경기지역 서해안에서 2006년 대부도선, 2012~2013년 영홍도선, 2014년 대부도2호선 등 3건의 난파선에 대한 수중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대부도선은 대부도 서쪽 해안에서 발견되었으며 내부에서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고 선박주변에서 청자, 백자, 도기, 기와 편이 10여점 수습되었다. 대부도선은 잔존길이 6.6m, 폭 1.4m이며 저판이 5열이고 저판에 둑대 구멍이 1개 확인되었다. 선박의 구조와 수습된 유물을 통해 볼 때 12세기 후반~13세기 초로 비정하였다.

영홍도선은 섬업별 인근 수중유적에서 확인되었으며 내부에서 철제솥 6점 · 도기호 2점 · 장군 2점 · 병 2점이, 주변에서 발 · 접시 · 뚜껑 · 완 · 통형잔 등 식생활용 청자 850점이 출수되었다. 영홍도선은 잔존길이 6m, 폭 1.4m이며 저판의 결구방식이 기존에 조사된 고려시대 선박과 달리 통일신라시대 안압지선과 유사하다. 내부에서 출토된 솔과 도기는 8~9세기대 제작되었고, 주변에서 출토된 청자는 12세기 중후반에 생산된 것이다.

대부도2호선은 방아머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확인되었으며 밀물 때는 바닷물 속에 잠기고 썰물 때만 선체 일부분이 노출되는 상태였다. 발굴조사 결과, 50여 점의 도자기들과 청동 숟가락 · 청동 그릇 · 목제 빗 · 감씨 등 다양한 종류의 유물이 출수되었다. 대부도2호선은 잔존길이가 약 9.2m, 최대폭 2.9m가량으로 기존에 발견된 고려 선박에 비해 크기가 작고 날렵한 형태이다. 바닥면을 이루는 저판이 4열로 처음 발견된 사례인데 제작 당시 3열을 확장한 것으로 저판 중앙부 2개 열에 각각 하나씩 둑대 구멍이 있다. 선박의 구조와 선체 내부에서 수습된 도자기들을 통해 12세기 중후반 경의 고려 시대 선박으로 추정된다.

### III. 맷음말

고려시대 경기의 영역이 현재와는 차이가 있지만 그 중심이 개성이기는 하나 조사자료 접근의 한계로 북쪽에서 조사된 유적은 다루지 못하고 여기서는 현재 경기지역과 인천 서울을 중심으로 발굴조사된 유적을 분야별로 대략 정리해 보았다. 지금까지 조사된 유적을 망라하면 고려시대에 한정된 유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주 드물고 삼국시대~조선시대까지 한 유적안에서 긴 기간에 걸쳐 있다. 주거유적이나 무덤유적은 유구의 정형화된 형식이 뚜렷하지 않아 출토유물로 시기를 파악하는데 같은 성격의 유구일지라도 시기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행정유적은 만월대와 강화지역 발굴조사를 통해 고려궁성과 강도시기의 실체를 규명해 나가고 있고, 문현과 명문유물로 읍치의 상황을 이해할 근거가 찾아지고 있다. 교통유적은 직접적인 유적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교통로상의 유적이나 도로유구 등의 조사례가 늘어나면 교역과 교류에 관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관방유적은 정비를 위한 성벽발굴과 내부조사를 통해 축성과 방어에 관련한 자료가 축적되고 있다. 생산유적은 학술조사로 계획된 자기가마 조사를 시작으로 구제발굴조사에서 도기가마, 기와가마, 금속기 제작유구가 확인되고 있어 제작기술, 용도와 사용처, 유통 관련 등으로 연구가 확대되고 있다. 불교유적은 건물지 유구로 가람배치의 변화, 불교의 변화상을 파악하고 출토유물을 통해 문자로 남겨진 실체를 확인하고 역사적 사실에 접근하고 있다. 무덤유적은 왕릉 조사가 주로 개성에서 진행되었으나 강화지역 조사에서 개성지역과 유사함을 파악하였고, 상위계층의 무덤 조사를 진전시켜 실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일반민의 무덤으로 알려진 석곽묘와 토광묘는 밀집도가 있는 경우는 드물고 구제발굴 조사에서 다른 유구와 복합되어 나타나며 자기와 도기 뿐만 아니라 피장자의 위치를 가늠하게 하는 동경, 인장, 동전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난파선 수중발굴조사는 고려 시대 선박의 구조뿐만 아니라 도자사, 교역과 조운 등의 역사를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자료이다.

## 참고문헌

- 거례문화재연구원, 2011, 『이천 증포동유적』  
\_\_\_\_\_, 2013, 『평택 수월암리』  
경기도박물관, 2002, 『봉업사』  
\_\_\_\_\_, 2004, 『여주 중암리 고려백자요지』  
\_\_\_\_\_, 2005, 『고려 왕실사찰 봉업사』  
\_\_\_\_\_, 2006, 『안성 매산리 고려 고분군』  
경기문화재연구원, 2009, 『평택 궁리유적』  
\_\_\_\_\_, 2006, 『화성 반송리 행장골유적』  
\_\_\_\_\_, 2010, 『화성 화산동유적』  
\_\_\_\_\_, 2014, 『이천 목리 기와가마터』  
\_\_\_\_\_, 2014, 『고달사지III』  
\_\_\_\_\_, 2016, 『고달사지IV』  
\_\_\_\_\_, 2015, 『여주 원향사-증보판』  
\_\_\_\_\_, 2016, 『용인 서리 상반 고려백자요지』  
기전문화재연구원, 2002, 『수원 구운동 중세주거유적』  
\_\_\_\_\_, 2004, 『하남 교산동 건물지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_\_\_\_\_, 2004, 『시흥 거모동 건물지』  
\_\_\_\_\_, 2005, 『용인 보정리 소실유적』  
\_\_\_\_\_, 2006, 『용인 보정리 청자요지』  
\_\_\_\_\_, 2007, 『고달사지II』  
경희대학교박물관, 1999, 『여주 하거리 방미기골고분 발굴조사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1993, 『파주 서곡리 고려벽화묘 발굴조사보고서』  
\_\_\_\_\_, 2003, 『강화 석릉 발굴조사보고서』  
\_\_\_\_\_, 2007, 『강화 고려왕릉 발굴조사보고서』  
\_\_\_\_\_, 2015, 『개성 고려궁성 남북공동 발굴조사보고서 II』  
\_\_\_\_\_, 2016, 『2015 한국고고학저널』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2017, 『강화 고려도성 고고자료집』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08, 『안산 대부도선 수중발굴조사보고서』  
\_\_\_\_\_, 2014, 『인천 옹진군 영홍도선 수중발굴조사보고서』  
\_\_\_\_\_, 2016, 『안산 대부도2호선 수중발굴조사보고서』  
국방문화재연구원, 2008, 『용인 공세동 고려고분』  
\_\_\_\_\_, 2016, 『강화 월곶리 · 옥립리 유적』  
기호문화재연구원, 2010, 『평택 백봉리유적』  
\_\_\_\_\_, 2010, 『화성 분천리유적』

- \_\_\_\_\_, 2010, 『오산 지곶동유적』  
\_\_\_\_\_, 2017, 『인화~강화 도로건설공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2, 『안성 죽주산성 지표 및 발굴조사보고서』  
\_\_\_\_\_, 2004, 『평택 서부 관방산성 시·발굴조사보고서』  
\_\_\_\_\_, 2006, 『안성 망이산성 3차 발굴조사보고서』  
\_\_\_\_\_, 2006, 『안성 죽주산성 남벽 정비구간 발굴조사보고서』  
\_\_\_\_\_, 2017, 『파주 혜음원지 발굴조사보고서-1차~4차-』  
\_\_\_\_\_, 2017, 『매장문화재, 사람과 땅』  
동국대학교박물관, 2003, 『사적 259호 강화 선원사지 발굴조사보고서』  
서경문화재연구원, 2013, 『오산 가장동유적』  
서해문화재연구원, 2016, 『여주 상거동유적』  
중부고고학연구소, 2012, 『여주 양귀리유적』  
\_\_\_\_\_, 2016, 『용인 남사 완장리 남생이골유적』  
\_\_\_\_\_, 2016, 『평택 고렴리유적』  
중앙문화재연구원, 2005, 『용인 창리유적』  
\_\_\_\_\_, 2008, 『안성 장능리사지』  
\_\_\_\_\_, 2011, 『인천 중산동유적』  
\_\_\_\_\_, 2014, 『안성 보동리유적』  
\_\_\_\_\_, 2015, 『평택 장당동유적』  
\_\_\_\_\_, 2016, 『평택 칠원동유적』  
중원문화재연구원, 2002, 『용인 처인성 시굴조사보고서』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7, 「화성 송산 그린시티 도시계획관부지 문화유적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2, 『하남 천왕사지 2차 시굴조사보고서』  
한림대학교박물관, 1988, 『여주 매룡리 용강골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  
한백문화재연구원, 2008, 『안성 죽주산성 동벽 정비구간 문화재 발굴조사보고서』  
\_\_\_\_\_, 2013, 『화성 청계리유적』  
\_\_\_\_\_, 2014, 『파주 혜음원지-6·7차발굴조사보고서』  
\_\_\_\_\_, 2015, 『서울 원지동 원지』  
\_\_\_\_\_, 2016, 『이천 증포동 362-35 유적』  
\_\_\_\_\_, 2017, 『파주 혜음원지-8·9·10차 발굴조사보고서』  
한성문화재연구원, 2018, 『화성 삼존리 산105-1번지 유적』  
한신대학교박물관, 2000, 『수원 고읍성』  
\_\_\_\_\_, 2010, 『화성 가재리 중세유적』  
\_\_\_\_\_, 2017, 『수원 창성사지 I』  
한양대학교박물관, 1984, 『여주 상교리 상방하원석실묘』

- \_\_\_\_\_, 2002, 『안산 대부도 육곡 고려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  
\_\_\_\_\_, 2006, 『안산 대부도 육곡 고려고분군 II』  
한울문화재연구원, 2013, 『안양사지』  
\_\_\_\_\_, 2015, 『강화 선원사지 남서측 주변지역 유적』  
해강도자박물관, 2001, 『방산대요』  
호암미술관, 1987,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 발굴조사보고서 I』  
\_\_\_\_\_, 2013,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 발굴조사보고서 II』  
서울경기고고학회, 2006, 『고려시대의 고고학』
- 박성진, 2016, 「개성 고려궁성(만월대) 조사를 통해 본 고고분야 남북협력 방안」, 『통일고고학을 위한 연구현황과 과제 진단』  
이남규, 2005, 「중세고고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매장문화재조사연구방법론』  
이희인, 2007, 「경기지역 고려고분의 구조와 특징」, 『고고학지 제6권1호』  
이희준, 1988, 「통일신라 이후의 고고학」, 『한국고고학보 21집』  
정훈진, 2017, 「하남 천왕사지의 발굴성과 및 활용방안」, 『하남의 현재 그리고 박물관의 미래』  
홍영의, 「한국 중세고고학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과정」, 『제36회 한국고고학회전국대회발표문』



# 강화 고려 왕릉의 조사성과와 과제

정해득 | 한신대학교

## | 목차 |

- I. 머리말
- II. 강화 고려왕릉 조사성과
- III. 조사연구 과제
- IV. 맺음말

## I . 머리말

고려는 1231년 몽고의 침입에 굴욕적인 강화(講和)를 맺은 후 대몽항쟁을 전개하기 위해 1232년 7월 16일 국왕을 비롯하여 무신집권자 최우(崔瑀) 이하 모든 신하와 개경의 백성들이 강화도로 옮겨가는 천도(遷都)을 단행하였다. 이 시기까지 조성된 고려왕릉은 개경을 중심으로 한 개풍, 장단 일대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다. 개경의 경우 송악산 북쪽과 만수산 남쪽 일대에 20여 기의 왕릉이 모여 있다.

강도 천도 기간에 조성된 고려왕릉도 이런 전통을 따랐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강도시기에 희종(熙宗)과 고종(高宗)이 서거하여 석릉(碩陵)과 홍릉(洪陵)이 조성되었으며, 원종비 가릉(嘉陵)과 강종비 곤릉(坤陵)을 비롯하여 아직 피장자가 밝혀지지 않은 왕릉급 고분이 위치하고 있다. 이 가운데 홍릉을 제외한 다른 왕릉들이 진강산(鎮江山) 일대에 모여 있는 것은 고려 왕릉조성의 전통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고려 왕릉은 석실을 미리 만들어 두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이는 태조 아래 산릉을 검약하게 조성함으로써 3개월이 못되는 기간에 능실을 조성하여 호화롭지 않던 전통에 따랐기 때문이다. 공민왕이 환관 김광대(金廣大)의 말에 따라 정릉 옆에 수릉(壽陵)을 조성하자 비난이 일었던 것은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sup>1)</sup>

1) 『고려사』 권120, 열전 권제33 諸臣, 尹紹宗.

그래서 고려왕릉이 훼손된 채 예장한 묘와 섞여 있으면 구분하기 곤란할 정도이다. 개경의 고려왕릉을 종합정리한 김인철은 석실분(石室墳)의 공간구성에 대해 “묘역은 3~4단으로 구분되며 제1단에는 봉분이, 봉분 둘레에는 병풍석과 난간석을 두르고 주변에 곡장을 설치한다. 2~3단에는 문·문무인석, 장명등과 상석이 설치된다.”고 하였다.<sup>2)</sup> 고려왕릉의 공간구성을 대체적인 잘 정리하였으나 통시기적으로 개념화하였기 때문에 개별 왕릉에 적용할 때 부합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확인된다.

본고는 그동안 진행된 강화 고려왕릉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성과를 정리해 보고, 향후의 과제에 대해 검토해 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 II. 강화 고려 왕릉 조사성과

고려왕릉에 대한 조사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되었다.<sup>3)</sup> 일제강점기에는 왕릉에 부장(附葬)된 청자를 비롯한 부장품을 목적으로 한 도굴이 성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려왕릉의 훼손이 뒤따랐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주도로 고려왕릉에 대한 정비를 위해 고고학적 조사를 시행하였고, 그 조사를 바탕으로 연구성과를 발표하였다.

강화도의 고려왕릉에 대해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가 2001년에 석릉을 발굴조사하여 2003년 보고서를 펴낸 바 있고, 2004년 가릉과 곤릉 발굴, 2006년 가릉 뒤편의 ‘능내리석실분’을 발굴조사한 후 2007년 이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정비·복원을 위해 실시한 고고학적 조사를 실시하여 여러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보고서들을 토대로

2) 김인철, 2002, 「고려무덤에 관한 연구」, 『평양일대의 벽돌칸무덤, 고려무덤, 삼국시기 마구에 관한연구』, 사회과학 출판사, 117~124쪽.

3) 고려왕릉에 상설된 석물을 조사하거나 언급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今西龍, 1917, 『高麗諸陵墓調査報告書』, 『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 조선총독부, 261~291쪽.

關野貞, 1932, 『朝鮮美術史』, 東洋文化史(2003년 심우성 역, 동문선).

고유섭, 1946 『송도의 고적』(2007년, 열화당 재간행본).

김원룡, 1973 『한국미술사』 범우사, 249~251쪽.

왕성수, 1990, 「개성일대 고려왕릉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32~33쪽.

리창언, 2002, 『고려 유적연구』 사회과학출판사(2003년 백산자료원 재간행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江華碩陵』 발굴조사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江華 高麗王陵-嘉陵·坤陵·陵內里石室墳-』 발굴조사보고서.

김인철, 『조선고고학전서47 고려의 무덤』(2009, 진인진 편, 진인진).

강화 고려 왕릉의 조사성과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석릉(碩陵)

1237년(고종 24) 8월 10일 희종(熙宗)이 흥서(薨逝)하여 10월 19일(정유) 석릉(碩陵)에 장사지냈는데 석릉 조성에 70일 정도가 소요되었다. 석릉은 일제강점기에도 한차례 정비된 적이 있고, 1974년에도 복원 · 정비가 있었다. 석릉은 현재 5단으로 구획되어 있는데, 제1단에는 봉분과 담장, 석인상 1기가 서편 담장 앞부분에 접하여 있다. 제2단에는 중앙에 “高麗熙宗碩陵”이라 각자한 비석, 동쪽에 석인상 1기, 문화재 표석이 각각 1기씩 있고, 제3단~5단에는 아무런 구조물도 확인되지 않지만 전(塚)과 와(瓦)편들이 다량 수습되었다고 한다.<sup>4)</sup>

그러나 관리자 한관수(당시 77세)가 1974년 정비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담장이 없었고, 능역의 단은 3단 정도의 흔적이 육안으로 관찰되었다고 구술한 것을 통해 보면 1974년 정비과정에서 원형을 크게 상실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1년 발굴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봉분의 규모가 지름 2.6~2.7m에 불과하지만 봉분에서 8각형의 구조물이 확인되었고, 완전 파괴된 상태에서도 난간석에 사용되는 원주석(圓柱石)과 죽석(竹石)을 확인하였다. 또한 3단 탐색갱 조사시에 초석과 잔탁, 다량의 기와편이 출토되어 정자각이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sup>5)</sup>

석실 자체는 길이 3.3m, 너비 2.2m, 높이 2.3m이고 1매의 판석으로 입구를 막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석릉 석실의 규모는 개성의 왕릉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봉토(封土)의 규모를 줄였을 뿐 전체 왕릉의 규모를 대폭 축소한 것이 아니었다. 다만 석실내부에서 벽화흔적이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할 것이다. 석릉 석실에서 출토된 여러 유물 가운데 청자는 비색 청자의 전통이 13세기 전반 까지 계승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점과 절대연대를 갖는 유물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

4)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江華碩陵』38쪽.

5)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江華碩陵』135~138쪽.

## 2. 곤릉(坤陵)

1239년(고종 26) 5월 강종(康宗) 왕비로서 고종 즉위 이후 왕태후(王太后)가 된 유씨(柳氏)가 서거하였다. 1242년(고종 29) 4월에 고종이 곤릉(坤陵)을 배알하였기 때문에 왕후릉 격식에 따라 조성되었을 것이다.

곤릉 역시 1970년대에 정확한 고증없이 정비된 적이 있다. 원래 3개 구획으로 보이는데, 2004년 조사단은 봉분 남쪽의 경사면을 하나의 공간으로 인정하여 4단 구획으로 보았다. 제1단은 봉분이 있고 남쪽의 경사면 끝에 경계석을 놓아 공간을 분할하였고, 제2단은 조선시대에 건립한 ‘고려원덕태후곤릉’ 표석이 있을 뿐 아무런 석물이 없으며, 제3단에는 건물지가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다.<sup>6)</sup>

발굴조사 결과 석실 내부의 규모는 3.1m, 너비 2.5m, 높이 2.2m로 부정형 할석을 면맞춤하여 8단 이상의 허튼총쌓기로 조성한 뒤 회칠로 마감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석실 입구는 대형석재 1매로 막았으며, 석실 바닥에 전석(磚石)을 깔았다. 석실 내부는 도굴된 상태로 동전과 철정, 금속장식품이 수습되었고, 석실 문비석 앞 묘도부에서 청자사자삼족향로 등 8점의 최상품 청자가 수습되었다.

석실 상면에 12각 구조물이 확인되었고, 그 안에 할석을 가득채운 후 봉토를 쌓았다. 제3단 건물지는 전체적으로 정자각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경사지를 보강하기 위한 보조 기단이 덧붙여져 있다. 건물지 중앙의 계단지 부근에서 석인상 머리 및 건물에 쓰였던 귀목문 막새, 잡상 등의 기와류가 집중 출토되었다. 조사과정에서 총 17개의 난간석 부재와 하대석 2기, 석인상 머리 3기, 석수 1기 등을 수습하였다.<sup>7)</sup>

이러한 조사결과를 보면 곤릉 역시 봉분의 규모를 줄였을 뿐 개성의 고려왕릉과 비교하여 큰 차이없이 조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봉분 주위에 배설한 석수와 2단에 있었던 석인이 파괴되어 매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가릉(嘉陵)

1244년(고종 31) 2월 6일 태자비(太子妃)가 서거하여 예장하였는데, 태자였던 원종이 왕

6) 위 보고서, 141쪽.

7) 위 보고서, 141~155쪽.

위에 오른 뒤 1262년(원종 3)에 정순왕후(靜順王后)로 추숭하고, 무덤을 가릉이라 추봉(追封)하였다.

가릉은 3단으로 공간구획되어 있는데, 제1단에 봉분이 있고, 봉분의 북편을 제외한 동·서·남편에 장대석을 1단으로 돌려 봉분을 감싸고 있는 형태로 조성하였고, 제2단은 문인석이 서 있으며, 제3단은 경계석이 없어 확실하지 않다.<sup>8)</sup> 석실은 길이 2.55m, 너비 1.68m, 높이 1.78m 규모로 만들고 입구를 대형석재 1매로 막았으며, 주변에 할석을 쌓았다. 석실상면에 8각 구조물을 설치하여 봉토를 쌓아 봉분을 조성한 형태로 보인다. 석실과 그 주변에서 청자, 도기, 기와, 철제품, 청동사, 동전, 은제 장식품과 옥제품, 호박구슬 등이 출토되었는데, 은과 옥제품의 제작수준이 높다. 봉분의 북동과 북서에 석수가 1기씩 있는데, 북서편 모서리에서 111cm의 남북방향이 긴 타원형의 돌출된 적심석군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자리에서 옮겨진 것으로 조사단이 판단하였다.<sup>9)</sup> 조사단은 2기의 석인을 문인석과 무인석으로 판단하였으나 필자가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모두 문인석이었다.<sup>10)</sup>

#### 4. 능내리 석실분

능내리석실분의 피장자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왕릉급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능내리석실분은 3단으로 구획되어 있는데 1단 조사결과 석실과 석실상부구조물과 난간석, 난간엄지기등[童子柱], 석수 2기, 곡장 등이 확인되었다. 석실은 잘 치석한 장대석을 5단으로 쌓아 길이 2.6m, 너비 1.96m, 높이 2.03m의 내부공간을 조성하고 1매의 화강암 판재로 폐쇄하였는데 다른 가릉과 비슷하여 왕후의 무덤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석수 2기는 난간석 바깥으로 북서·북동 모서리에 각기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을 제외한 '匚'자 모양으로 쌓은 담장을 설치하여 보호하였다. 석수 옆에서 옥개석으로 보이는 석재 1매가 엎어진 상태로 출토되었는데, 담장의 지붕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 있다. 이미 도굴을 당한 석실 내부에서 부장품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으나 동전, 관대 장식품, 철정 등이 수습되

8)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江華高麗王陵 -嘉陵·坤陵·能內里石室墳-』59쪽. 조사단은 제1단에 설치된 봉분보호시설을 계체석으로 보아 3단으로 구분하였다.

9) 위 보고서, 62-63쪽. 정비·복원이 끝난 뒤 현장방문 결과 석수는 북서, 북동 모서리로 옮겨 자리 잡았다. 눈·코·입만 표현한 이 석수를 조사단은 호랑이로 판단하였으나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다.

10) 위 보고서, 69쪽. 조사단은 동편 석인이 허리에 있는 자연적인 결석을 칼로 보고 무인석으로 오판하였다. 문인석 하단에 시멘트 기초가 되어 있어서 1970년대에 한차례 정비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었다.

대부분의 고려왕릉은 제2단에 석인이 있는데, 능내리석실분에서는 확인되지 않아 도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제3단 장대석 축대 남쪽으로 ‘匚’자형 건물지가 확인되었으며, 곤릉과 같이 경사진 지형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기단을 쌓았다.<sup>11)</sup>

## 5. 홍릉

1259년(고종 46) 6월 30일 고종은 유경(柳璥)의 집에서 흥서(薨逝)하였다. 강화시기에 서거한 고려의 왕은 고종이 유일한데, 산릉(山陵) 제도는 검약에 힘쓰고, 하루를 한 달로 계산하여 상복을 입고[易月之服], 3일이 지나면 상복을 벗으라는 유명을 내렸다.

고종의 홍릉 능역(陵域)은 3단으로 되어 있다. 급경사지에 3단의 공간구성을 보이고 있는데, 제1단에 봉분을 조성하였고 경사지 밑에 마련한 제2단에 문인석 2쌍이 있고, 제3단은 현재 빈 공간이지만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sup>12)</sup> 상단의 봉분이 높이 5척, 지름 14척으로 규모가 작고, 봉분 4방에 석수(石獸) 1구씩 배치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없다. 중단에는 문인석(文人石) 2쌍이 마주하고 있으며, 하단에는 제향시설이 있었던 공간이 남아 있다. 홍릉은 아직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내부 구조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상태이다.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고려왕릉의 석실 내부 규모로 보면 석릉과 곤릉이 비슷하고, 가릉과 능내리석실분이 그보다 작으면서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 석릉과 곤릉이 미가공할석으로 축조한 후 회로 마감한데 비해, 가릉과 능내리석실분은 가공한 장대석을 사용하였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그런데 개석 상부의 시설물의 경우 석릉과 가릉이 8각인데 비해 곤릉과 능내리석실분은 12각으로 되어 있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피장자가 사망할 당시의 상황과 신분적 차이가 반영된 결과라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즉, 희종은 최충헌에게 폐위되어 교동도로 유배되었다가 1237년 강화도에서 죽었고, 원종의 왕비 순경태후는 1236년 사망 당시 태자비의 신분이었다가 뒤에 태후로 추존되었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 왕릉으로 조성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왕릉과 차이를

11) 위 보고서, 343~358쪽.

12) 2009년 필자가 현장을 직접 답사하여 조사하였다.

두었다는 것이다.<sup>13)</sup> 그런데 이는 개석 상부시설물에 국한하였을 때에 그런 것이고 이를 석실의 규모나 건물지의 유무를 고려할 때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처럼 강화도에 조성된 고려왕릉은 개성의 왕릉제도를 충실히 따르면서도 봉분의 규모를 상당히 줄였고, 병풍석에 12지신상을 장식하지도 않았다. 강화도의 왕릉이 지나치게 검소하게 조성된 것은 개경 환도(還都) 이후에 천장(遷葬)할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남송(南宋)에서도 환도를 염두에 두고 황릉을 검소하게 마련하였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대몽항쟁이 끝난 후 천장을 고려하였을 가능성성이 있는 것이다.

### III. 조사 연구 과제

고려는 원구(圓丘)·태묘(太廟)·사직(社稷)·적전(籍田), 여러 원릉(園陵) 등 나라에서 소중히 여기는 장소에 담당 관원을 정해 관리하고 있었다.<sup>14)</sup> 충숙왕이 1325년 관(官)에서 선대의 능묘(陵墓)에서 별목과 방목을 금지하고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것을 통해 왕릉의 관리는 무신정변기와 원간섭기까지도 이어진 것을 알 수 있다.<sup>15)</sup> 조선에서도 여러 차례 고려 왕릉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강화의 고려왕릉도 어느 정도 관리가 이루어져서 현재까지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역사시대 유적의 해석은 역사기록물에 대한 면밀한 분석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고려 왕릉의 공간구성을 밝히고 있는 직접적인 자료는 없지만 『고려사』 예지에 실린 「배릉의」는 몇가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왕이 선대 왕릉을 참배할 때는 담당 관사는 왕릉과 능실(陵室) 내부를 미리 청소한다고 규정하였다.<sup>16)</sup> 여기서 왕릉은 봉분 주위를 지칭하고, 능실은 봉분 앞에 마련된 제향시설을 의미한다.

이는 능실 건물 앞으로도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왕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로 판단된다. 강화의 여러 왕릉도 이와 같은 시설을 갖추었을 것이 분명하

13) 위 보고서, 461쪽.

14) 『高麗史』卷14, 世家 卷第14, 睿宗 11年 4월.

15) 『高麗史』卷35, 世家 卷第35, 忠肅王 12年 10月.

16) 『高麗史』卷61, 志 卷第15, 禮3 吉禮大祀, 諸陵「拜陵儀」.

다. 그러한 기준에서 앞으로 발견될 수 있는 왕릉유적과 왕릉급으로 조성되었을 묘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세조 창릉(昌陵)과 태조 현릉(顯陵)터

1232년(고종 19) 7월 강화도(江華島)로 천도(遷都)하고<sup>17)</sup> 강도(江都)라 명칭한 고려는 창릉과 현릉에 모셨던 세조(世祖)와 태조(太祖)의 재궁(梓宮)을 강도로 옮겨 창릉과 현릉을 조성하였다. 그 터가 강화도 어느 곳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진강산(鎮江山) 일대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강화도가 새로운 수도로서 개경에 비해 넓은 면적이 아니라라는 점과 개경 주변의 왕릉이 밀집도 높게 조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창릉과 현릉이 조성된 곳이 곧 강도의 고려 왕릉 영역으로 지정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석릉을 비롯한 가릉, 곤릉이 계속 진강산 일대에 조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진강산 일대에서 창릉과 현릉 1차 천장지(遷葬地)가 발견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이곳은 강화 도성에서 20리 이상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국왕이 직접 참배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sup>18)</sup> 그래서 고종은 1243년(고종 30) 강화부의 남쪽 10리 지점의 개골동(蓋骨洞)으로 2차 천장하여 세조와 태조의 왕릉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sup>19)</sup>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1261년 9월 원종이 창릉(昌陵)·현릉(顯陵)·홍릉(弘陵)을 참배하였다 는 기록이다.<sup>20)</sup> 세 왕릉이 강화 궁성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참배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보면, 개골동은 고려산(高麗山)과 가까운 곳으로 보이고 고종이 서거한 뒤 그 인근에 홍릉을 조성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고종의 임종(臨終)을 지키지 못한 원종이 귀국한 뒤 홍릉을 참배하면서 인근에 있던 창릉과 현릉을 함께 참배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홍릉 인근에서 창릉과 현릉터가 발견될 가능성성이 높다고 하겠다.

한편, 원종이 개경으로 환도(還都)하면서 세조와 태조의 재궁도 개경으로 옮겨 갔기 때문에 강화에는 창릉 2기, 현릉 2기의 왕릉터가 그대로 남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 아직까지 그

17) 『高麗史』卷23, 世家 卷第23, 高宗 19年 6월, 16일 천도하여 17일부터 궁궐을 지어 7월 6일 고종이 개경을 출발하여 다음날 강화객관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다.

18) 『新增東國輿地勝覽』卷12, 京畿「江華都護府」, [陵墓]. 원덕태후릉(元德太后陵) 부의 남쪽 23리에 있는데, 고려 고종의 비로 이름은 곤릉(坤陵)이다. 고려 회종릉(熙宗陵) 부의 남쪽 21리에 있는데, 이름은 석릉(碩陵)이다. 순경태후릉(順敬太后陵) 부의 남쪽 24리에 있는데, 고려 원종비(元宗妃)로 이름은 가릉(嘉陵)이다.

19) 『高麗史』卷23, 世家 卷第23, 高宗 30年 8月 26일 경오.

20) 『高麗史節要』卷18, 元宗 2年 9月.

자리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데, 강화도 고려 왕릉 유적이 가진 역사적 의미와 가치 정립을 위해서 앞으로 정밀한 조사를 통해 찾아야할 것이다.

## 2. 희종 왕비 소릉(紹陵)

1247년(고종 34) 8월 25일 희종(熙宗)의 왕비였던 함평궁주(咸平宮主) 임씨(任氏)가 서거하였다.<sup>21)</sup> 무신정권에 의해 폐위된 희종이 1237년(고종 24) 서거하였을 때 석릉(碩陵)이 조성되었듯이 함평궁주의 시호(謚號)를 성평왕후(成平王后)라 올리고, 능호를 소릉(紹陵)이라 하여 왕릉이 조성되었다.<sup>22)</sup> 소릉의 위치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데, 석릉, 곤릉, 가릉이 모두 진강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어서 소릉 역시 진강산 일대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의 왕릉이 왕과 왕비의 합장으로 조성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소릉이 반드시 석릉 옆에 조성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렇다면 원종비(元宗妃) 가릉(嘉陵) 주변에 위치한 능내리석실분이 소릉(紹陵)일 가능성성이 가장 유력하다고 할 수 있다. 태후릉 옆에 자리할 수 있는 무덤은 왕비 이상의 신분이어야 하기 때문에 능내리석실분의 피장자는 성평왕후 외에 달리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 3. 무신집정자 묘

강도시기 고려의 실권자는 무신집정자들이었다. 그들은 국왕을 폐위시키고 꼭두각시 왕을 즉위시키기도 하였다. 형식상 신하의 자리에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국정을 담당하면서 국가의 전례(典禮)를 무너뜨렸다. 고려 국왕은 그들의 전횡을 제어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는 상황이었다. 1231년 7월 최우(崔瑀)의 처 정씨(鄭氏)가 사망하였을 때 보인 왕실의 대응은 그러한 사정을 잘 보여준다.

고종은 정씨의 장례를 이자겸의 둘째 딸로 예종(睿宗)의 왕비가 되었던 순덕왕후(順德王后)의 전례에 따르도록 하였다. 즉, 무신정권의 최고실력자 부인을 왕후의 장례와 같은 격식으로 지내게 한 것이다. 이때 조성된 정씨 묘는 석실(石室)로 만들어졌는데 무덤이 기이하고 공교로웠다는 평이 있었다.<sup>23)</sup> 이 사실은 이듬해 단행된 강화천도 이후에 무신집권자와

21) 『高麗史』卷23, 世家 卷第23, 高宗 34년 8월 25일 을사.

22) 『高麗史』卷88, 列傳 卷第1, 后妃 熙宗后妃 成平王后 任氏.

23) 『高麗史節要』卷16, 高宗3, 高宗18年 7月.

그의 부인이 사망하였을 때 조성된 그들의 무덤이 왕릉에 버금가게 꾸며지고 석실로 만들어 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강화시기에 죽은 무신집권자는 최이(崔怡)와 최항(崔沆), 최의(崔埴) 등인데, 최이와 최항의 무덤은 정상적으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최이 또는 최항의 무덤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국보 제133호로 지정된 ‘청자진사연화문표형주자’가 무신정권 권력자의 무덤이 왕릉에 못지않게 조성되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최이(崔怡)는 1249년(고종 36) 11월 5일 죽었는데, 고종이 3일 동안 조회를 정지하였으며 시호를 광렬(匡烈)이라 하였다. 최이의 장례 때 의장과 호위가 성대하였으며, 후에 강종(康宗)의 묘정에 배향하였다.<sup>24)</sup>

1257년(고종 44) 윤4월 2일 중서령(中書令) 최항(崔沆)이 죽었는데, 거의 5개월이 지난 8월 26일에 진강현(鎮江縣 강화도) 서쪽 창지산(昌支山) 기슭에 장사지냈다.<sup>25)</sup> 이는 3개월 이내에 진행되었던 고려 국왕의 장례 기일보다 훨씬 길었다는<sup>26)</sup> 점에서 호화로운 무덤이 조영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하게 하는데 묘지명에 석실(石室)이 조성되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현재 창지산이 어느 산으로 변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진강산 서쪽에 있는 구릉에 묻혔을 가능성이 있다.

1258년(고종 45) 최충헌의 아들이자 희종과 성평왕후(成平王后)의 소생인 덕창궁주(德昌宮主)의 배필인 영가후(永嘉侯) 최전(崔塉)이 죽었는데, 무신집정자의 아들이자 희종의 부마 신분이기 때문에 역시 석실무덤이 조성되었을 것이다. 그 외에도 무신집정자의 부인들이 강도시기에 죽었다면, 그들의 묘도 석실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 기의 석실분이 발견될 수 있을 것인데, 왕릉에 버금가는 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 4. 그 외 예장(禮葬) 대상자의 묘

『고려사』에는 묘지에 대한 규제가 행해진 것으로 나타나는데,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내

24) 『高麗史』卷129, 列傳 卷第42, 叛逆 崔忠獻 崔怡諸子。

25) 김용선 역주, 2001, 『역주 고려묘지명집성』상, 「崔沆墓誌銘」.

26) 고종이 1259년 6월 30일 서거한 뒤 9월 18일 홍릉에 매장되어 약 80일이 소요되었다. 원종은 1274년 6월 18일 서거하였고, 9월 12일 소릉에 매장되어 80여 일이 소요되었다. 또 1297년 5월 21일 서거한 제국대장공주는 8월 29일 고릉에 매장되어 3개월이 약간 넘는 기간이 소요되었다.

용은 품계별로 묘지의 면적과 봉토의 높이에 관한 규정이다.<sup>27)</sup> 976년(경종 1)에 정해진 묘지의 규제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고려의 묘지제한 규정

구분	1품	2품	3품	4품	5품	6品位이하
사방 면적	90보	80보	70보	60보	50보	30보
봉토 높이	1장 6척		1장		8척	

고려는 고위 관료를 대상으로 예장을 시행하고 있었다. 『고려사』에는 대신의 장사에 부의를 보내고 예장(禮葬)을 하였다는 기록이 몇 차례 있으나<sup>28)</sup> 예장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확인할 수는 없다. 고려에서 대신을 예장하는 경우 석실 조성을 허용하였다는 것과<sup>29)</sup> 시호의 하사, 노제(路祭)에 2품 이상자를 다 모이게 하는 의례가<sup>30)</sup> 확인될 뿐이다. 주영민은 분묘보수(墳墓步數)에서 1~2품과 3품을 별도로 구별하여 묘지보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여 1~2품은 석실, 3품은 석곽(石槨), 4품 이하는 토광(土壙)으로 매장주체부를 조영한 것으로 추정하였는데,<sup>31)</sup> 2품 이상 관료에게 예장을 시행한 것으로 보면 의미 있는 주장이다.

그들의 묘는 왕릉에 미치지는 못하였으나 강화도에 현존하는 이규보와 혀유전의 묘와 같이 넓은 공간에 묘가 조성되었을 것이다. 이규보 묘의 봉분은 조선시대에 다시 개축한 것이지만 혀유전의 묘는 고려말 조성할 당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형태의 봉분은 조선전기까지 계승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초기에 예장한 묘 가운데 지나치게 호화로워서 사회문제가 된 사례가 실록에서 확인된다. 연창위(延昌尉) 안맹담(安孟聃)의 묘에 단청한 제청(祭廳)이 있었으며, 의산위(宜山尉) 남휘(南暉) · 성녕대군 · 정소공주(貞昭公主) · 여홍부원군 민제(閔霽) · 익안대군(益安大君) · 정안공주(貞安公主) 등의 묘에 석양과 석호가 설치되었던 것이다. 또한 양렬공

27) 『高麗史』志39 刑法 禁令. “景宗元年二月 定文武兩班墓地 一品九十步 二品八十步 墳高竪一丈六尺 三品七十步 高一丈 四品六十步 五品五十步 六品以下竪三十步 高不過八尺.”

28) 『高麗史』卷64, 志18, 禮6, 「凶禮」. 平章事 崔亮, 內史令 徐熙, 侍中 韓彥恭 등이 장사에 부의를 보내고 예장하였다 는 기록이 있다.

29) 『太宗實錄』卷12, 太宗6年 閏7月 乙酉.

30) 『世宗實錄』卷83, 世宗20年 12月 戊午.

31) 주영민, 2005, 「高麗時代 支配層 墳墓研究」, 『지역과 역사』17, 부경역사연구소.

(襄烈公) 이지란(李之蘭)의 묘소는 석실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종합하면 여말선초 예장대상자의 무덤 공간은 석실로 만들어졌고 봉분 주위에 석수를 설치하였으며, 제청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규보와 허유전 묘와 조선초기 예장 묘의 형태를 참조하여 강도시기에 예장된 묘의 규모를 추정해 보면, 석실의 규모는 왕릉에 비해 작았을 것이고, 봉분은 장방형 호석에 봉토를 쌓아 올린 형태였을 것이다. 법당방 벽화고분, 서곡리 고려벽화묘 등 민통선 일대에서 보고된 고려 석실분은 내부를 화려하게 치장하긴 하였으나 왕릉에 비해 규모가 훨씬 작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2~3구역으로 공간을 구분하여 봉분 앞에 석인을 세우고 단청을 하지 않은 제청건물을 세웠을 것이다.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 기록된 고위관료들의 사망기사를 토대로 무신집정자를 제외한 예장대상자는 모두 17명으로 보이고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강도시기 사망 관료

연번	성명	생몰년	관직	묘 위치
1	이규보(李奎報)	1168~1241년	門下侍郎平章事致仕	진강산 동쪽
2	왕기(王琪)	?~1244년	司空	이하 미상
3	권수평(權守平)	?~1250년	樞密院副使	
4	최춘명(崔椿命)	?~1250년	樞密院副使	
5	설신(薛愼)	?~1251년	樞密院副使	
6	장순량(張純亮)	?~1252년	樞密院副使	
7	김효인(金孝印)	?~1253년	兵部尙書翰林學士	
8	이순효(李純孝)	?~1254년	全羅州道巡問使	
9	최공(崔珙)	?~1254년	叅知政事	
10	최평(崔坪)	1202~1256년	樞密院副使	
11	최린(崔燦)	?~1256년	平章事	
12	기윤숙(奇允肅)	?~1257년	門下侍郎平章事	
13	김태서(金台瑞)	?~1257년	平章事致仕	
14	최자(崔滋)	1188~1260년	門下侍郎平章事致仕	
15	박성재(朴成粹)	?~1264년	參知政事致仕	
16	최영(崔永)	?~1264년	參知政事致仕	
17	최온(崔溫)	?~1268년	平章事	

물론 위 인물들의 묘가 강화도에 계속 남아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강도시기 조성된 왕릉이 대부분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볼 때 개경환도 이후에 이장(移葬)되었을 가능성은

적다고 하겠다. 그래서 강화도 전역에서 석실묘가 발견될 가능성 있다.

#### IV. 맷음말

2000년 이후 고려왕릉과 분묘에 대한 연구가 점차 늘어나면서 고려왕릉에 대한 연구성과가 축적되고 있다. 특히 왕릉의 공간구성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연구논문이 여러 편 발표되었는데, 그 가운데 고려 말과 조선 초 왕릉을 도상학적으로 분석하여 황금비와 금강비가 계획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이광연의 연구가 주목된다. 그는 우리나라 건축시설물에서 장단변의 비가  $1:\sqrt{2}$ 인 금강비가 많이 확인되는데, 당시 최고 수준의 학자와 기술자들이 동원되었을 왕릉의 공간구성에도 금강비가 적용되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세웠다.<sup>32)</sup>

현재의 상태가 조성당시의 모습에 근사하다는 전제하에 개성 7릉떼의 평면도를<sup>33)</sup> 바탕으로 비례를 계산하여 금강비에 근사한 값을 얻었다. 고려 왕릉이 구릉 경사면에 조성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비율대로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고려왕릉을 조성할 때 황금비와 금강비가 사용되었다는 유의미한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는 고려왕릉에 대한 기존의 고고학적 조사방법에 더하여 보다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기하고 있다. 즉, 고려의 왕릉급 분묘에서 왕릉과 묘를 구분해 내는 과학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기준의 하나를 제공하였다.

강화도에서 지표조사를 통해 25개소에서 고분 283기를 확인되었고, 석릉 주변에 109기가 군집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 가운데 강화에 조성되었던 2곳의 세조 창릉과 태조 현릉지는 물론 소릉 등의 왕릉과 무신집정자들 및 예장한 관료의 묘를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2) 이광연 외, 2011, 「고려 말과 조선 초의 왕릉에서 찾을 수 있는 황금비와 금강비」, 『東方學』第21輯,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33) 장경희, 2008, 『아름다운 우리문화재3 고려왕릉』예액.

## 참고문헌

### 1. 사료

『高麗史』, 『高麗史節要』, 『新增東國輿地勝覽』

### 2. 논저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江華碩陵』발굴조사보고서.  
\_\_\_\_\_, 2007, 『江華 高麗王陵-嘉陵·坤陵·陵內里石室墳-』발굴조사보고서.  
권두규, 2017, 「高麗時代 陵號 記載 樣式과 授與 基準」『한국중세고고학』Vol.1, 한국중세고고학회.  
김용선 역주, 2001, 『역주 고려묘지명집성』상.  
김인철, 2002, 「고려무덤에 관한 연구」『평양일대의 벽돌칸무덤, 고려무덤, 삼국시기 마구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김인철, 『조선고고학전서47 고려의 무덤』(2009, 진인진 편, 진인진).  
이광연 외, 2011, 「고려 말과 조선 초의 왕릉에서 찾을 수 있는 황금비와 금강비」, 『東方學』21, 한서대학교.  
이상준, 2017, 「강화 고려왕릉의 피장자 검토」『중앙고고연구』Vol.23, 중앙문화재연구원.  
이우종, 2010, 「조선 능묘 광중 지회 연구」『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Vol.26 No.12, 대한건축학회.  
이희인, 2013, 「高麗 江都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장경희, 2008, 『아름다운 우리문화재3 고려왕릉』예매.  
\_\_\_\_\_, 2014, 「12세기 高麗·北宋·金 황제릉의 비교 연구」『東方學』31, 한서대학교.  
주영민, 2005, 「高麗時代 支配層 墳墓研究」, 『지역과 역사』17, 부경역사연구소.  
한나래, 2008, 「강화 고려왕릉의 석물 연구」『문화재』Vol.41 No.1, 국립문화재연구소.

## 토론

**「강화 고려 왕릉의 조사성과와 과제」에 대한 토론문**

이상준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발표자는 조선왕릉에 대한 다양한 연구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그런 지견을 바탕으로 강화 고려왕릉에 대한 지금까지의 조사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본 토론자는 강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만 강화 고려왕릉을 발굴한 경험이 있고, 개성 만월대를 발굴하면서 개성에 남아 있는 고려왕릉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찾다보니 그 결과물로 고려왕릉의 특징과 피장자를 검토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 토론은 발표문의 내용과 토론자가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르거나, 발표문에 충분한 설명이 없어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왕릉으로 비정되어 있는 무덤의 피장자가 합당한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주지 하다시피 강화에는 7기의 왕릉급고분이 있습니다. 회종 석릉, 고종 홍릉, 원덕태후 곤릉, 순경태후 가릉, 능내리석실분, 인산리석실분, 연리석실분이 그것입니다. 이 중 피장자가 비정되어 있는 4기의 왕릉 중 고종 홍릉은 비정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나머지 3기는 비정과정과 강화부에서의 거리, 석실의 규모와 출토유물의 위계 등을 고려하면 많은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때문에 토론자는 잘못 비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자께서는 기존의 능주 비정을 인정한 상태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한 창릉과 현릉 등을 찾아야한다는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고려사』에 의하면 강화천도 당시 세조와 태조의 재궁을 강화로 옮겨 이장하였고,

11년이 지난 1243년에 이 두 왕릉을 다시 개골동으로 이장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최초 왕릉을 파묘하지 않았다면 각각 2기씩의 왕릉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론자가 주목하고 있는 장소는 인산리석실분과 연리석실분 그리고 유지는 없지만 ‘개골동고려왕릉지’로 전해지는 곳입니다. 재이장한 두 릉은 분명 개골동에 있어야 합니다만, 어느 시점에 유지가 결실된 것으로 본다면 강화에서 고려왕릉의 특징을 보이는 인산리와 연리를 제외하면 최초이장지로 비정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발표자께서는 『고려사절요』의 참배기사를 근거로 홍릉 인근에서 상기 두 릉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홍릉 일대의 정밀지표조사 결과 왕릉급 고분인 횡구식석 실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재의 개골동에서 많은 자기편과 석축기단 등이 확인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곳이 두 릉의 재이장 장소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발표자께서는 무신집정자와 예장대상자의 묘제를 석실로 보고 있는 듯합니다. 최우의 처인 정씨가 죽었을 때 고종은 “장례를 순덕왕후의 전례에 따르도록 하였고, ‘석실’이 기묘하였다”라는 기록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언급된 석실이 최상위계층의 묘제로 알려진 횡구식석실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위계층의 묘제인 소위 판석조석곽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더불어 상기 기록에서 확인되는 장례는 시신을 처리하는 방식과 관련된 장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무덤의 구조 및 종류를 이르는 묘제와는 다른 것이라는 것이 토론자의 생각입니다. 고려에도 분명 위계에 따른 묘제가 존재하였고, 피장자가 아무리 집정자이자 고위관료라 할지라도 묘제는 분명 최고위계층인 왕(비)과 달랐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넷째, 발표자는 왕릉의 공간 구성에 금강비가 적용되었다는 가정 하에 왕릉과 묘를 구분해 내는 과학적 기준을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창릉과 현릉은 물론 무신집정자, 예장한 관료의 묘를 분류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시대상황과 관리자의 유무에 따라 상당히 가변적인 능역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비율 적용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금강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고려시대 경기지역의 명문 기와 사례와 명문의 성격

홍영의 | 국민대학교

## | 목차 |

- I. 머리말
- II. 경기지역 명문 기와의 출토 현황
- III. 경기지역 명문기와의 연호명 사례
- IV. 명문기와의 해독과 활용과제
- V. 맺음말

## I. 머리말

기와는 삼국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사용되는 건축재료의 하나이다. 기와는 목재건물의 지붕을 덮는 건축부재로서 양질의 점토를 가지고 제작틀[模骨·瓦範·瓦范]을 사용하여 일정한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가마 속에서 높은 온도로 구워내어 만든다.<sup>1)</sup> 목조 건물의 지붕에 이어져 눈과 빗물이 새는 것을 막고 이를 흘러내리게 하여 지붕을 결구하고 있는 목재의 부식을 방지하며, 동시에 건물의 경관과 치장을 위하여 사용된다.<sup>2)</sup>

따라서 오랫동안 궁궐과 관청, 사원을 비롯한 지배층의 개인주택에서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전국 각지의 여러 유적에서는 많은 기와가 출토되고 있다. 이러한 기와들 가운데에는 여

1) 기와를 제작할 초기에는 성형 틀이 없이 손으로 빚어서 점토띠 떼쌓기를 하고 타날하여 제작했으나, 대부분의 수 키와와 암키와는 원통형의 목제 모꼴의 외측에 마포나 무명 등의 포목을 감고 양질의 진흙을 다진 粘土板을 씌워 呻板으로 두들겨 얼마 동안의 건조기간을 거친 다음에 瓦刀로 2분하거나 3분 또는 4분하여 제작한다. 형태에 따라 기와의 끝에 언강이라고 부르는 낮은 段이 있어서 미구를 내밀고 있는 有段式과, 언강과 미구가 없는 토시형의 無段式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대부분 그 표면에 線繩蓆格子·花葉 등의 고판무늬가 장식되고 있다(『고고학사전』 2001, 국립문화재연구소)

2) 기와의 종류는 기본 기와로서 평기와(수암기와)가 있다. 또한 기와의 한쪽 끝에 문양을 새긴 드림새를 덧붙여 제작하여 건물의 처마 끝에 사용하는 막새기와(수·암막새), 서까래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서까래 기와(연목·부연·사례·토수)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김성구, 『옛 기와』, 대원사, 1997 : 김왕직, 『그림으로 보는 한국 건축용어』 발언, 2000).

러 종류의 ‘銘文’이 새겨져 있다. ‘명문기와’란 문자가 기록된 기와를 말하며, 기와의 표면에 명문이 押印되거나 새겨진 것을 말한다. 기와에 명문을 기록하는 방법은 이미 명문을 새겨둔 압인 도구로 施文할 곳에 打捺할 때 기와의 背面에 양각으로 나타내는 경우와 직접 배면에 음각하는 경우가 있다.<sup>3)</sup> 명문의 내용은 주로 기와의 사용처인 사찰의 이름, 제작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연호나 간지, 제작자, 건축주체 등이 압인되거나 새겨진 형태로 나타난다.<sup>4)</sup>

이러한 명문의 내용으로 기와가 사용된 사찰의 이름이나 건립연대, 기와를 생산한 사람과 생산시기까지도 알 수 있다. 또한 문헌기록에는 그 존재가 기록되어있지만 현재 그 위치를 비정할 수 없거나, 그 존재를 전혀 인식할 수 없었던 유적의 실재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때문에 유적과 유물의 편년 설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자료의 가치와 함께 희소성을 가진 명문기와는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전 시대에 걸쳐 사용된 것으로 왕궁유적이나 성곽·사원·관청 등과 같은 국가시설물 유적에서 주로 출토되고 있어 한정된 공간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sup>5)</sup>

이렇게 여러 유적에서 출토된 명문기와는 극히 제한된 수량으로 인해 이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연호명과 기년명을 통해 특정 건물의 편년이나 해당 유적의 편년 설정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유물로 인식되고 있다. 때문에 현장 조사자 대부분은 명문기와 출토 시 잔존상태와는 무관하게 최대한 수습하게끔 조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sup>6)</sup>

3) 명문기와는 문양을 타날하는 도구에 함께 새겨 押印되는 것이 대부분이나, 간간히 기와 성형시 건조전에 가는 철사나 나뭇가지 등으로 새겨 쓴 것도 있다.

4) 장인이 모든 생산물인 器物에 자신의 이름이나 생산지를 표기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殷周대의 青銅禮器에서처럼 기물 제작을 기념하거나 제작 계기를 밝히고 후손을 감계하는 문구를 넣은 경우도 있으나, 춘추 전국시대에는 주로 기물의 제작자 혹은 소유자(주문자)의 이름 및 신분을 기입하는 추세로 이어진다. 이는 관영수공업의 발달과 이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체계의 수립을 전제로 한 것이다. 『예기』에 의하면, 기물의 품질 관리 차원에서 공인의 성명을 기물에 새기게 하고, 기물의 품질을 평가하여 불량한 경우에는 기명된 공인을 처벌하도록 한 것을 ‘物勒工名’이라 하였다. 기원전 4세기 말에 이르러 기물에 제작 공장과 담당 관리의 이름을 새겨 넣어 기물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唐書』와 법전인 『唐律疏議』에 있는 “物勒工名, 以考其誠, 功有不當, 必行其罪”라는 내용으로 미루어 물건에 장인의 이름을 새겨 넣어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 이미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이러한 전통에 따라 삼국시대부터 보편화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며, 통일신라 이후에는 그러한 사례가 유적의 발굴 수습과정에서 발견된다. 고려 역시 초기부터 이러한 전통을 이어 각종 기물에 장인의 이름을 표기했으며, 조선 역시도 그대로 이어왔다(홍영의, 「고려시대 장인의 지위와 사기장 심룡(沈龍)」, 『조선백자 시조 양구 심룡은 누구인가?』 조선백자 시조 양구 심룡 선양 포럼 2016년 12월 2일 20~21쪽).

5) 대부분의 사찰지에서 출토되는 명문기와에는 寺名을 포함한 建物名, 절대연대를 나타내는 年號·紀年銘, 제작주체인 시주자나 특정인물을 기록한 姓名, 쓰임새를 알 수 있는 용도 등이 기록되는 등 뜻하지 않은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6) 임종태, 「保寧 聖住寺址 출토 명문와 속성과 특징」, 『지방사와 지방문화』 19, 2016

명문기와는 중국 한나라 때부터 유행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제작되었다.<sup>7)</sup> 신라 이후의 것들에서는 지명, 사찰명, 제작연대와 관련된 연호와 간지가 있는 것, 제작한 장소를 표시한 것, 기와의 사용처 등을 알리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sup>8)</sup>

고려시대의 기와는 도읍지인 개경을 비롯하여 서경(평양), 동경(경주) 등 3경과 12목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의 행정, 생활, 종교 유적과 같은 건물지 뿐만 아니라 가마터에서 많은 수량이 출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鬼目文, 魚骨文 기와와 함께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명문기와가 출토되고 있다. 내용면에서도 연호명, 간지명, 월일 등 제작연대와 생산처를 비롯한 사찰명, 지명, 인명 등의 표기방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온전한 형태의 명문기와는 내용 구성 역시 (연호)+간지+사명+(대장명)+건물명칭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내용 말미에는 ‘瓦草’만을 덧붙여 마무리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개성 궁성의 것처럼 생산지와 생산자만 명기된 것도 있다.<sup>9)</sup>

때문에 고려시대 기와 연구는 주로 고고학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기와의 제작도구와 제작방법,<sup>10)</sup> 가마나 기와의 유형(문양)과 특징, 이를 통한 시기편년,<sup>11)</sup> 출토된 명문기와의 유구와 지역적 특색<sup>12)</sup> 등이 중요 검토 대상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명문기와 가운데, ‘官’과<sup>13)</sup>

7) 명문기와는 중국 한나라 때부터 유행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제작되었다.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는 백제의 공주 대통사지와 부여 부소산성에서 출토된 ‘대통(大通)(527)’명 기와를 들 수 있다. 백제의 기와 명문은 간지를 비롯한 ‘毛’·‘首’·‘斯’·‘止’·‘木’·‘刀’·‘下’·‘中’ 등의 글자가 시문되어 있다. 신라에서는 안압지에서 출토된 ‘儀鳳四年(679)’명 기와가 있다. 백제에서는 소수의 방형을 제외하면 주로 명문이 새겨진 원형의 인장을 타날하여 施文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통일신라 시기의 명문으로는 지명을 나타내는 ‘漢只’, ‘習部’명 기와가 있으며, 사찰명을 나타낸 것으로는 ‘大令妙寺’·‘靈廟之寺’·‘四天王寺’명 기와가 있다. 이러한 명문기와는 개체 수에서 적은 양을 보인다. 인각명문 가와의 내용은 기와의 제작연대, 제작자, 수요처 등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8) 김성구·모리이쿠오,『한일의 기와』 테즈카야마대학출판회, 2009

9) 홍영의,『개성 고려궁성 출토 명문기와의 유형과 요장(窯場)』,『개성 고려궁성 남북발굴조사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10) 최태선,『고려시대 기와연구의 성과와 과제-평기와 연구를 중심으로-』,『제1회 한국기와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국기와학회, 2004. 기와의 편년과 속성연구는 크게는 타날 방식과 문양의 종류부터 제작기법과 관련된 분할방식, 내·외면의 조정흔적 등 세부속성에 이르기는 다양한 관찰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11) 최태선, 앞 논문. 기와의 편년은 기와가 지난 여러 속성 가운데 와틀[桶], 태토, 막새의 문양, 타날판[叩板]의 크기와 배면의 문양, 분할방법, 내면의 흔적 변화, 二次整面의 端部 内面調整, 명문 자료 등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12) 清水信行,『開泰寺址 출토 銘文瓦에 대한 —考察』,『百濟研究』 28, 1998 : 김병희,『안성 봉업사지 출토 고려전기 명문기와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2001 : 고용규,『장흥 대리 상방촌유적 출토 명문기와의 성격』,『한국중세사연구』 23, 2007 : 김창호,『남한산성 출토 후삼국-고려초 문자기와의 재검토』,『한국고대사연구의 현단계 석문 이기동교수 정년기념논총』 주류성, 2009 : 최태선,『고고자료로 본 부인사지의 현황과 변화』,『한국중세사연구』 28, 2010 : 홍성익,『羅末麗初 廢寺址 寺名 비정에 관한 연구-강원지역 출토 銘文瓦를 중심으로-』,『신라사학보』 19, 2010 : 정치영,『銘文瓦를 통해 본 고려시대 龍駒縣의 景觀』,『중부지역의 고고문화와 역사』 한신대 출판부, 2011 : 최연식,『흑산도 무심사원원지 출토 명문기와의 내용 검토』,『신안 무심사지』 목포대 박물관, 2011 : 홍영의,『개성 고려궁성 출토 명문기와의 유형과 요장(窯場)』,『개성 고려궁성 남북발굴조사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

‘年號’ 명 사례를<sup>14)</sup> 가지고 평기와의 변천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과학적 성분분석인 현미경 관찰과 XRD분석을 통해 점재하강도 분석, 광물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기와의 제작기법 및 소성 환경을 해석하는 방법도<sup>15)</sup>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梵字文에 대한 관심도 이루어지고 있다.<sup>16)</sup>

이를 토대로 문헌사 연구자들은 기와 제작 집단의 양상이나 유통 방법 등에 규명하기 위해 문헌자료와 접목함으로써 그 내용이 보다 풍부해지고 있다. 고려시대 기와생산 체제를 통하여 국가의 필요에 따라 기와를 정기적으로 생산하던 瓦所의 존재와 고려 후기 와소의 해체,<sup>17)</sup> 조선전기 瓦署와 別瓦窯 등에 대한 규명, 고려~조선 전기 기와의 조달 양상을 통해 자체생산, 구입 및 주문생산, 私家, 廢寺, 관청 등의 기와를 재활용한 사례와 瓦工과 助役人, 燰瓦木의 확보, 기와의 운송 등에 대한 연구는 그러한 것들이다.<sup>18)</sup>

이와 아울러 발굴과정에서 수습, 판독된 명문기와를 적극 활용하는 연구도 진행되어 왔다. 구산우는 동래·기장·마산·김해·춘천 등지의 성에서 발굴 수습된 ‘○面’명을 주목하여 고려시기에 面制가 실시되었을 가능성은 검토하였고,<sup>19)</sup> 마산 회원현성의 ‘一品’명과 부산 당감동 동평현성에서 출토된 ‘三品’명을 통해 지방 품군의 기능과 임무를 추적하기도 했다.<sup>20)</sup> 흥영의는 개성 고려궁성 발굴과정에서 수습된 ‘板積’·‘赤項’·‘德水’명 등의 명문기와를 통해 ‘六窯直’과 瓦窯場의 관계성을 제기하기도 했다.<sup>21)</sup>

- 
- 소, 2012 : 이동주, 「경산 중산동 고려시대 건물지의 성격-문자기와의 분석을 통해서-」, 『고문화』 82, 2013 : 홍영의, 「고려시대 명문(銘文)기와의 발굴 성과와 과제」, 『한국중세사연구』 41, 2015 : 김호준, 「남한지역 高麗時代 城郭 築城과 年號銘 기와의 關聯性」, 『軍史』 9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
- 13) 차순철, 「官 자명 명문와의 사용처 검토」, 『경주문화연구』 5, 2002 : 유성환, 「경주 출토 라말려초 사찰명 평기와 변천과정」, 『신라사학보』 19, 2010
- 14) 이인숙, 「통일신라~조선전기 평기와 제작기법의 변화」, 『한국고고학보』 54, 2004 : 성정용, 「성주사지 출토 평기와 제작기법의 변천과 실측기법 제안」, 『역사와 담론』 26, 호서사학회, 2012 : 김호준 「고려 성과 출토 기와-남한 지역 산성 출토기와를 중심으로-」 한국기와학회·한국성곽학회 2013년도 국제학술회의, 2013
- 15) 김형순 외, 「고려 및 조선시대 기와의 물성평가」, 『한국상고사학보』 32, 2000 : 김경범·서정호, 「사찰건축(寺刹建築) 복원(復原)을 위한 고려시대 기와의 과학적 분석」,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2003년도 제17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3
- 16) 이상규, 「고려~조선시대 범자문 와당의 형식과 제작특성 고찰」, 『선사와 고대』 38, 2013 : 엄기표, 「高麗~朝鮮時代 梵字銘 기와의 제작과 미술사적 의의」, 『역사와 담론』 71, 2014
- 17) 이정신, 「고려시대 기와생산체제와 그 변화」, 『한국사학보』 27, 2007
- 18) 정치영, 「高麗~朝鮮前期 기와의 조달양상」, 『고고학』 5-2호, 2006
- 19) 구산우, 2011 「고려시기 面에 관한 새로운 자료의 소개와 분석」, 『한국중세사연구』 30 : 「고려시기 김해의 치소성과 새로운 자료의 소개」 역사와 경계 85, 2012 : 「고려시기 春川의 새로운 面 자료의 소개와 분석」, 『역사와 경계』 88, 2013 : 「김해 봉황동에서 출토된 고려 치소성의 기와 명문-고려사 연구의 새로운 자료 발굴과 해석」, 『한국중세사연구』 40, 2014
- 20) 구산우, 「고려 一品軍 三品軍에 관한 새로운 자료의 소개와 분석」, 『역사와 경계』 78, 2011

또한 개별 유구에서 수습된 명문기와의 의미를 분석한 연산 개태사,<sup>22)</sup> 안성 망이산성,<sup>23)</sup> 영동 계산리,<sup>24)</sup> 장흥 상방동,<sup>25)</sup> 신안 무심사지,<sup>26)</sup> 대전 상대동,<sup>27)</sup> 경주 종산동,<sup>28)</sup> 보령 성주 사지<sup>29)</sup> 등도 주목할 할만 것들이다. 이외에도 강원도나 용인 지역을 중심으로 정리된 것이 있다.<sup>30)</sup>

그러나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역에서 출토(수습)된 명문기와에 대한 분석은 서로 보완되지 못한 채, 발굴유구의 성격을 이해하려는 1차 목적인 기와의 형태와 편년 작업에 집중되어 있다. 그 결과 발굴과정에서 수습된 명문기와의 판독과 내용분석, 그리고 이들 자료의 종합화를 통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접근 역시 보고서 이외에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2013년까지 전국적으로 진행된 고려시기 유적에서 출토된 기와 명문을 총괄하고, 기와 명문의 중요 내용을 조사하여 정리되어<sup>31)</sup> 연구자들이 이 분야를 참조하고 연구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고려시기 유적에서 출토된 기와 명문을 자료집으로 묶어서 펴낸 성과가 공간되었다.<sup>32)</sup> 그리고 고려시기 성곽 축조와 年號銘 기와의 관련성을 검토한 글이 발표되었다.<sup>33)</sup>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선 경기지역의 고려시대 유적에서 수습된 명문기와 관련 발굴 출토(수습) 유적 현황을 파악하고, 출토된 명문기와의 판독 내용을 정리하여 명문기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즉 사찰의 이름, 제작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연호나 간지, 제작자, 건축주체 등을 추적하여 명문기와의 활용과제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자료의 분석을 통해 유적

21) 흥영의(2012), 앞 논문.

22) 清水信行, 「開泰寺址 출토 銘文瓦에 대한 一考察」, 『百濟研究』 28, 1998

23) 김철웅, 「峻豐四年銘 기와에 대한 고찰」, 『안성 망이산성 2차 발굴조사보고서』 단국대 중앙박물관, 1999

24) 박순발, 「영동 계산리 건물지의 성격-중세고고학의 일례-」, 『호서고고학』 6·7, 2002

25) 고용규, 「장흥 대리 상방촌유적 출토 명문기와의 성격」, 『한국중세사연구』 23, 2007

26) 최연식, 「흑산도 무심사원원지 출토 명문기와의 내용 검토」, 『신안 무심사지』 목포대 박물관, 2011

27) 김갑동, 「고려시대 유성현의 지방세력과 상대동 유적」: 최종석, 「대전 상대동 고려 유적지의 성격에 대한 시론적 탐색 : 院村에서 邑治로」, 『한국중세사연구』 31: 문경호, 「고려시대 유성현과 대전 상대동 유적」, 『한국중세사연구』 36, 2013

28) 이동주, 「경산 중산동 고려시대 건물지의 성격-문자기와의 분석을 통해서-」, 『고문화』 82, 2013

29) 임종태, 「保寧 聖住寺址 출토 명문와 속성과 특징」, 『지방사와 지방문화』 19, 2016

30) 흥성익, 「羅未麗初 廢寺址 寺名 비정에 관한 연구-강원지역 출토 銘文瓦를 중심으로-」, 『신라사학보』 19, 2010 : 정치영, 「銘文瓦를 통해 본 고려시대 龍駒縣의 景觀」, 『중부지역의 고고문화와 역사』 한신대 출판부, 2011

31) 흥영의, 「고려시대 명문(銘文)기와의 빌굴 성과와 과제」, 『한국중세사연구』 41, 2015

32) 이남규 외, 『高麗時代 歷年代 資料集-기념명 기와 자료를 중심으로』 학연문화사, 2015

33) 김호준, 「남한지역 高麗時代 城郭 築城과 年號銘 기와의 關聯性」, 『軍史』 9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간의 상관성 및 비교연구, 기와의 편년 연구, 생산지와 수요처간의 생산수급체계 등을 파악 할 수 있는 단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Ⅱ. 경기지역 명문 기와의 출토 현황

오늘날 경기지역은 고려시대 양광도 지역이다([그림 1] 참조).<sup>34)</sup> 오늘날 경기와 충청도 지역에 해당하는 양광도는 양주·광주 등의 주현은 관내도에 소속시켰고, 충주·청주 등의 주현은 忠原道로 하였으며, 공주·運州 등의 주현은 하남도로 하였다. 예종 원년(1106)에 합하여 ‘양광충청주도’로 하였다가, 1171년(명종 원년)에 두 개의 도로 나누었다. 1314년(충숙왕 원년)에 양광도로 정하였다가 1356년(공민왕 5)에 ‘충청도’로 하였다.<sup>35)</sup> 1391년(공양왕 2) 경기 좌우도로 개편될 때 양광도와 교주도 일부, 그리고 서해도의 일부를 편입시켰다. 1414년(태종 4)에 경기 좌우도를 개편하여 ‘京畿’라고 칭하고 관할 영역의 범위를 새로 정하였다.<sup>36)</sup> 태종·세종대를 거치면서 수안·곡주·연안 등 이전 경기의 서북지역은 豊海道(황해도)로 속하고 광주·수원·여주·안성을 비롯한 동남지역이 경기로 이속되는 등 그 뒤 세종 때에 이르러 경기는 대체로 오늘날 경기도 관내와 일치하게 되었다. 또한 충청도는 정식명칭이 쓰이기 시작한 1395년(태조 4)에 楊廣州 예속의 군현을 나누어 경기도와 충청도로 분할시켰고 觀察使營을 충주에 두면서 비롯하였다.<sup>37)</sup> 그리고 1413년(태종 13)에 여흥·안성·음죽·양성·양지를 떼어 경기에 붙이고, 경상도의 옥천·황간·영동·청산·보은을 충청도에 소속시켰다.<sup>38)</sup>

따라서 고려 때는 수도 개경과 인근의 경기, 그리고 양광도의 양주·광주·충주·청주·천안·원주 등지가 대표적인 거점 지역이었다. 위의 (표 1)의 명문기와 출토 유적도 대부분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그러한 조건, 즉 대읍 중심의 생활권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34) 홍영의, 「고려시대 지역성과 문화권-12목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41

35) 『高麗史』 권56, 지10, 지리1, 양광도

36) 『太宗實錄』 권27, 태종 14년 1월 18일 계사

37) 『太祖實錄』 권7, 태조 4년 6월 13일 을해

38)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4, 충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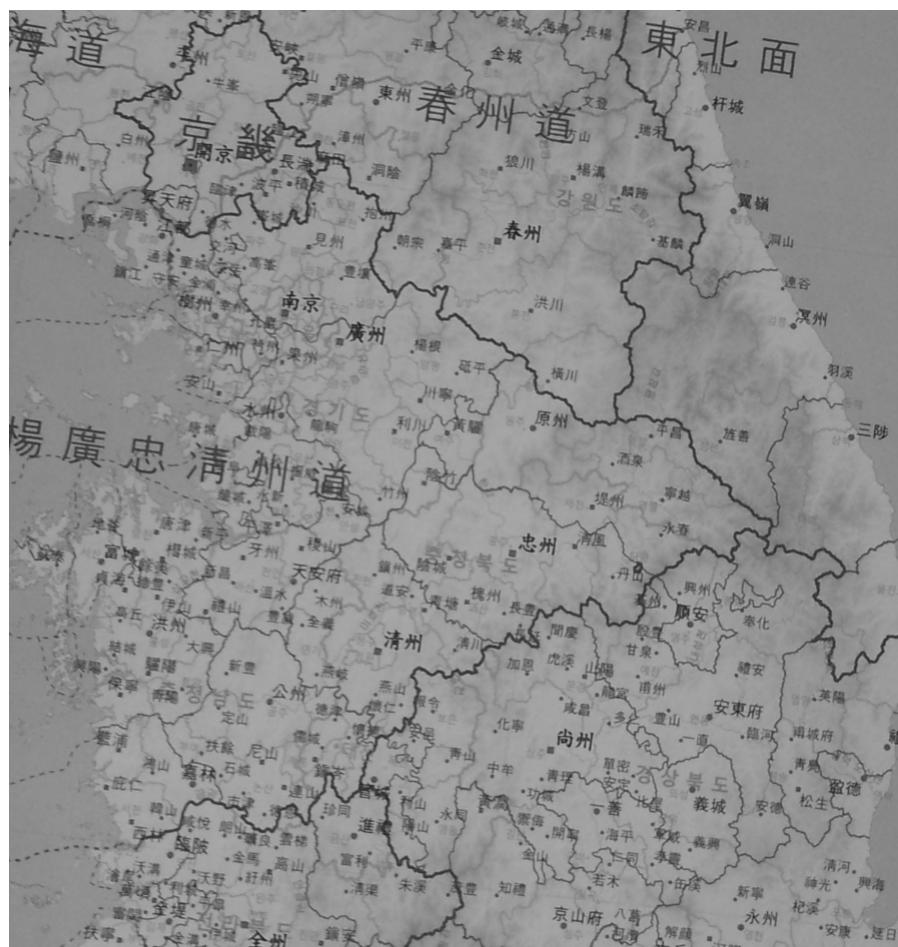


그림 1. 고려시대 경기와 양광도 범위

대개 우리나라 사찰의 입지는 주변지역을 관할하기 위해 전략적 거점이나 교통로에 사찰이 창건되었다. 나아가 불교가 정치적 측면에서 일상적인 생활종교로 바뀌면서 인구 이동에 따른 숙박시설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 기능을 院이 대체하였다. 이 원은 사찰과 함께 위치하면서 실용적이고 다양한 기능을 수용할 수 있었다.

예컨대, 북한강 유역은 산에 연이은 강변이 넓지 않은 반면 남한강 유역은 주변에 넓은 평야와 분지가 곳곳에 펼쳐져 있다. 이런 지리적 조건으로 북한강 유역보다 남한강 유역에 사찰이 많았다. 특히 여주 평야와 충주 분지는 내륙에 위치한 대표적인 평야와 분지였고, 남한강의 물길이 고려시대에 주요 수운로로 이용되면서, 이곳에는 개경과 연결된 많은 사찰이

세워졌다. 고려시대 사찰은 북한강 유역의 청평사와 남한강 유역의 흥법사 법천사 거돈사 정토사·승선사·청룡사 등이 대표적이다. 나말여초에 남한강과 蟬江 일대에 집중적으로 대형 사찰들이 밀집되어 있었던 것은 이곳이 삼국이 각축을 벌이던 역사의 무대였고, 한반도의 중심인 한강의 중요 교통로였기 때문이다.<sup>39)</sup>

또한 8목 가운데, 廣州는 신라 때 漢山州 또는 漢州 지역으로 궁예의 태봉에 속하였다가 왕건의 고려에 귀속되었으며, 삼국시대부터 정치·군사적으로 중시되어 온 곳 가운데 하나였다. 광주의 경우는 태봉이 한강 이남방면으로 진출할 때에 최우선으로 확보하였던 곳이며, 궁예가 梁吉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非惱城이 위치한 곳이기도 하였다.<sup>40)</sup> 실제로 광주는 개경에서 동경(경주)를 잇는 교통망 가운데 제2로에 속해 있었다. 특히 광진을 통과해 강동구 지역을 거쳐 덕풍역이나 경안역 방향으로 내려가는 제2로가 중요시되었다. 이처럼 고려시대에 한강을 건너 남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주로 거쳐가는 교통의 요충지였다.

그동안 우리 문헌 연구자가 고려시기 명문기와를 주목하고 활용한 주제는 대체로 고고학의 발굴성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앞서 살펴본 여러 판독 활용 사례는 대개 다량으로 출토(수습)된 대규모 유적이 그 대상이었다. 안성의 망이산성<sup>41)</sup>, 봉업사,<sup>42)</sup> 대전 상대동,<sup>43)</sup> 보령 성주사지,<sup>44)</sup> 익산 미륵사지,<sup>45)</sup> 부여 부소산성,<sup>46)</sup> 무량사구지,<sup>47)</sup> 서산 보원사지,<sup>48)</sup> 충주 미륵사<sup>49)</sup>, 승선사지,<sup>50)</sup> 장흥 상방촌,<sup>51)</sup> 진도 용장산성,<sup>52)</sup> 대구 부인사,<sup>53)</sup> 파주 혜음원지,<sup>54)</sup>

39) 그동안 우리는 고려시대 유적의 입지적 조건을 조선시대나 현재적 관점에서 파악한 경향이 있다. 당시 중앙(왕실)과 지방과의 정치적 관계 뿐만 아니라 교통망이나 유통망을 통해 유적간의 연계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0) 정도근, 「後三國時期 高麗의 남방진출로 분석」, 『한국문화』 44, 2008, 5~6쪽 참조.

41) 단국대 중앙박물관, 『망이산성 학술조사보고서』 1992 ; 『안성 망이산성 3차 발굴조사 보고서』 2006 :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望夷山城 : 忠北區間 地表調查 報告書』 2002 : 중원문화재연구원, 『음성 망이산성 : 충북구간 발굴조사 보고서』 2009/2013

42) 경기도박물관, 『奉業寺』 2002 ; 『高麗 王室寺刹 奉業寺』 2005

43) 중원문화재연구원, 『대전 도안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내 대전 상대동 원골유적』 2011 : 백제문화재연구원, 『대전 상대동 원골(중동골, 양촌) 유적』 2011

44) 황수영, 「新羅 聖住寺의 沿革-三千佛殿의 발굴을 통하여」 ; 文明大, 「聖住寺三千佛殿址第一次發掘-聖住寺址 第二次調查」, 『불교미술』 2, 동국대 박물관 1974 : 충남대 박물관, 『聖住寺』 1998 : 백제문화재연구원, 『성주사지 7~11차 발굴조사 보고서』 2011~2014.

45) 홍사준, 「백제 미륵사지 발굴작업 약보」, 『고고미술』 70, 1966 : 문화재관리국, 『미륵사지 유적발굴조사보고서』 I, 1987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미륵사지 유적발굴조사보고서』 II, 1996 ; 『미륵사지석탑 해체조사보고서』 I~III, 2003~2005

46)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扶蘇山城 發掘調査報告書』 1~5, 1994~2003

47) 충남 역사문화연구원, 『부여 무량사 구지』 I~II, 2005, 2009

48)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서산 보원사지』 1~2, 2010, 2012

49) 청주대 박물관, 『충주 미륵리사지 1~2, 4~5차 발굴보고서』 1978, 79/1992, 93 : 이화여대 박물관, 『미륵리사지 3차 발굴보고서』 1982 : 청주대 박물관, 『대원사지, 미륵대원지』 1993

50) 예성동호회, 『충주 승선사지 지표조사보고서』 1995 : 충청대학 박물관 『충주 승선사지 발굴조사보고서』 2006

개성 고려궁성<sup>55)</sup> 등이 대표적인 고려시대 명문기와 출토 유적들이다.

본 연구에서 경기지역 명문기와의 조사 대상 유적은 고려시대 궁성·사찰·산성·읍성 등의 건물지 유적을 중심으로 출토(수습)된 것만을 중심으로 하였으나, 유구의 성격상 다른 시기 가 중첩된 것은 통일신라기로부터 조선전기의 것까지를 포함하였다([표 1] 고려시대 경기 지역 명문기와의 출토 유적 현황 참조).<sup>56)</sup>

표 1. 고려시대 경기지역 명문기와의 출토 유적 현황

지역	유적명	성격
경기 도(21) (서울· 인천· 개성 포함)	개성 고려궁성	사찰(39) 건물지(향교)(15) 산성(11) 관아(읍성)(2) 요지(2) 궁성(1) 총 70건
	강화 선원사지·수안산성·관청리·월곶리(옥림지)	
	인천 계양산성·남구 학익동 학림사지·영종도 용궁사	
	김포 김정(양기동)	
	과천 관악사지·온온사·일명사지	
	광주 광주향교 수복사부지	
	서울 북한산 삼천사지·진관동(진관사) 유적·북한산 태고사·아차산성	
	수원 고읍성	
	안성 망이산성·봉업사·운수암·삼신각·상종리·장릉리·죽주산성·칠장사	
	안양 중초사(인양사)지	
	양주 대모산성·회암사·회암동 가마유적	
	여주 고달사지·원향사	
	연천 심원사지	
	오산 가장동	
	용인 남사(아곡)유적·마북리 건물지·마북리 사자·마북동 중세취락·마성리 마가 실·서리 고려 백자요·신갈 택지개발지·언남리·서봉사지·전대리·유운리	
	이천 갈산동·설봉산성·종포동	
	파주 혜음원지	
	평택 가곡리·갈곶리유적·남산리 기와가마·비파산성·지산동 부락산	
	포천 반월산성·성동리 산성	
	하남 교산동·천왕사지·하사창동·춘궁동·덕풍·감북·법화사지	
	화성 당성·반송리	

51) 목포대 박물관, 『장흥 상방촌A유적』 1(주거지), 2(건물지) 2005/2008 : 호남문화재연구원, 『長興 上芳村B遺蹟』 2006

52) 목포대 박물관, 『진도 용장성 지표조사 보고서』 1985 ; 『진도 용장성』 1990 ; 『진도 용장산성』 2006

53) 대구대 박물관, 『부인사지표조사보고서』 1986 : 경북대 박물관, 『부인사지 1차 발굴조사보고서』 1989 ; 『부인사  
지 2차 발굴조사보고서』 1991

54) 단국대 매장문화재연구소, 『파주 혜음원지 1차~4차 발굴조사보고서』 2006

55) 국립문화재연구소, 『개성 고려궁성 - 시굴보고서』 2008 ; 『개성 고려궁성』 2009 ; 『개성 고려궁성 남북공동 발굴  
조사보고서』 2012 ; 『개성 고려궁성 남북공동 발굴조사보고서』 II 2015

56) 이러한 이유는 동일한 건물지에 통시대를 걸쳐 사용되었던 만큼 교란층이 많다는 것을 전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통일신라~고려시대의 건물지는 특정한 유구를 제외하고는 고고학적으로 유적의 편년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기와는 사용기간이 길고 재사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또한 명문이 암인된 기와의 보존상태 역시 온전  
하지 않아 판독 역시 용이하지 않다. 이로 인해 나말려초에 걸쳐 조성되어 사용된 유적의 경우, 연호명 기와가 수  
습되지 않는 한 대체로 9~10세기로 판단하기도 한다. 또한 조선전기의 유적 가운데도 고려시대부터 사용되어진  
것들이 존재한다.

위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발굴조사보고서를 기초로 2018년(5월)까지 파악한 경기지역의 고려시대 명문기와 출토 유적은 총 70건이다.<sup>57)</sup> 고려시대 명문기와의 유적의 유구별 성격을 구분하여 명문기와의 출토(수습) 유적 현황을 정리하면, 경기지역은 사찰(39), 건물(향교)(15), 산성(11), 관아(읍성)(2), 가마(요지)(2), 궁성(개성)(1) 등 총 70건이다. 역시 사찰 관련 명문기와가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또한 명문기와가 많이 출토(수습)된 유적은 경기도의 광주(하남 포함)(11)·용인(10)·안성(7)·평택(5) 지역 순이다.

표 2. 경기지역 명문기와 출토(수습) 유적과 판독 내용

발굴기관	지역	유적명	주요 명문 판독 내용
동국대 박물관	인천	강화 선원사지	‘柳氏’·‘朴氏’·‘重倉’·‘明’·‘倫’·‘行’·‘天’·‘長水’·‘月(무문전)’ 범자문
육군박물관	인천	강화 수안산성	‘亥’·‘甘’
계림문화재연구원	인천	강화읍 관청리 145	‘一王○’
국방문화재연구원	인천	강화 월곶리·옥림리 유적	범자문 ‘○老?寺?’
국립문화재연구소	인천	영종도 백운산(지표수습)	‘己巳 寺法○○ 戒松同○鄭康同’
한국고고인류연구소	인천	인천 영종도 용궁사	‘己巳三月?○○○/寺法堂蓋瓦施主/戒松同願句當使/鄭康同寺道宣’·‘己?’
계례문화유산연구원	인천	인천 계양산성	‘主(圭)夫(瓦)?草’·‘月’·‘官(瓦)’·‘草’·‘凡(瓦)草’·‘夫(?)’·‘瓦’·‘之’·‘寺’·‘九嵒仰一是(見)成○○...’
인하대 박물관	인천	인천 남구 학익동 학림사지	‘延祐四年三月重修’·‘○○/重修’·‘○○/造瓦’·‘음메니반메훔’ 범자문
중앙문화재연구원	경기도	김포 감정·양기동	‘○(現)代?○’
서울역사박물관	경기도	북한산 삼천사지	‘三川夫(寺)?’·‘三川’·‘大用’·‘天日’·‘王’·‘木’·‘市’·‘○寺○’·‘三川官(瓦)?’·‘延祐五年/金哲○○○’·‘高’·‘丁丑閏七月’·‘三寶’
서울역사박물관	경기도	서울 진관동(진관사) 유적	‘三角山青覃寺三宝草’·‘土雨’·‘大’·‘○月清談造瓦’·‘嘉靖四十四年’·‘別左’·‘戎’·‘別右’·‘○善○’
불교문화재발굴조사단	경기도	북한산 태고사	‘戎’
명지대 한국건축문화연구소/서울대 박물관	경기도	서울 아차산성	‘官’·‘北漢’·‘漢山’·‘國’·‘理州○’·‘受○’·‘○蟹’
한백문화재연구원	경기도	연천 심원사지	‘嘉靖四四年’·‘皇帝萬歲’·‘聰’·‘不田’·‘主朴大仁’·‘女’·‘大化主彥’
단국대 매장문화재연구소/한백문화재연구원	경기도	파주 해음원지	‘惠陰寺’·‘令司’·‘民生’·‘山用生’·‘加全’·‘廿才用’·‘夫才加’·‘干而’·‘毛何○生’·‘禾’·‘大’·‘庚申二月三十日惠陰寺造匠李明’·‘終支如(加)’·‘人○田’·‘○○’

57) 물론 발굴보고서 상의 70건이 경기지역 고려시대 명문기와 전체를 망라한 것은 아니다. 필자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조사보고서도 있을 수 있고, 보고서마다 편차가 심하여 판독되지 않은 상태로 명문와로만 적시된 것도 있기 때문이다. 또 이 통계 안에는 통일신라 하대의 것이나, 조선초기의 것도 포함되어 있다. 조선전기의 명문기와라도 고려시대의 것과 공반될 소지가 많으나, 이에 대한 검토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발굴기관	지역	유적명	주요 명문 판독 내용
단국대 매장문화재연구소	경기도	포천 반월산성	‘馬忽受●○單’ ‘○明化○’ ‘○月○日’ ‘○師’ ‘上’
경기도 박물관	경기도	포천 성동리산성	‘使令’
한림대 박물관	경기도	양주 대모산성	‘德部舍’ ‘德部’ ‘德’ ‘富’ ‘吉’ ‘上’ ‘目’ ‘○城’ ‘大浮’ ‘○雲寺’ ‘富部’ ‘國’ ‘官’ ‘官(瓦)草’
경기도박물관/기전문화재 연구원	경기도	양주 회암사	‘皇帝萬歲’ ‘洪武三十年丁丑三月日’ ‘孝寧大君’ ‘天順庚辰’ ‘成化六年’ ‘施主覺定’ ‘一不絕正而傳嵩福禪真空(?)禪師’
국방문화재연구원	경기도	양주 회암동 기와가마 유적	‘옴마니’ ‘天順庚辰’
수원대 박물관	경기도	과천 온온사	‘丁巳’
단국대 매장문화재연구소	경기도	과천 관악사지	‘金音(寺)?’ ‘寺’ ‘崔斗同’ ‘音’ ‘正’
단국대 매장문화재연구소	경기도	과천 일명사지	‘弔’ ‘大’ ‘瓦草’ ‘○丁酉’ ‘志’
한양대 박물관	경기도	광주향교 수복사부지	‘客舍’ ‘□□泰定廣州□□’ ‘□□二(?)年客舍□□’
경기문화재연구원(舊기전문화재연구원)	경기도	하남 교산동	‘田’ ‘大王’ ‘○○金’ ‘官’ ‘歷’ ‘丈’ ‘白(年)’ ‘官’ ‘壬戌’ ‘新○’ ‘眞(草)’ ‘又’ ‘口○’ ‘木(?)’ ‘大王’ ‘又且(人目?)’ ‘官大天治’ ‘大’ ‘慈化寺’ ‘藥井寺’ ‘藥井’ ‘李/王’ ‘廣’ ‘廣州’ ‘官’ ‘大’ ‘客舍’ ‘○上’ ‘皮具’ ‘天○’ ‘○達’ ‘收目’ ‘城達伯’ ‘○達伯士’ ‘元通○(寶)?閣’ ‘當玉貴大’ ‘元通士’ ‘部’ ‘○山丹’ ‘天大十?’ ‘大平長?’ ‘大產?’ ‘所日’ ‘水天波陽’ ‘金毛生’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경기도	하남 천왕사지	‘同寺’ ‘桐寺’ ‘辛○(酉)’ ‘辛酉廣州桐寺’ ‘天王(寺)?’ ‘天下泰平’ ‘又且(人目?)’
화랑문화재연구원	경기도	하남 천왕사지	‘又且(人目?)’
서해문화재연구원/한국문화재보호재단/	경기도	하남 하사창동 340-1	‘又且(人目?)’ ‘天王’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경기도	하남 하사창동 346번지	‘天下泰平’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경기도	하남 하사창동 352번지	‘又且(人目?)’
하남역사박물관	경기도	하남 하사창동 354번지	‘天王’ ‘○(天)王寺’
하남역사박물관	경기도	하남 춘궁동349-3,8번지	‘丈角?’ ‘乃佢?’ ‘○○미상’
하남역사박물관	경기도	하남 춘궁동 365-1번지	‘右丂(?)’ ‘官’ ‘西’
세종대 박물관	경기도	하남 춘궁동 덕풍-감복	‘官’ ‘田’ ‘天’ ‘金廣(?)’ ‘○寺’ ‘○○元年 施主金甫’ ‘草’ ‘廣’ ‘上舍’ ‘子女’ ‘子西○草’ ‘土草’ ‘成達伯○’ ‘成達’ ‘哀宣伯○’ ‘衆舍’ ‘廣’ ‘戊戌年’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	하남 법화사지	‘上無花(?)’ ‘옴(om)’ 범자문
한울문화재연구원	경기도	안양 안양사(중초사)지	‘泰定’ ‘安養寺’ ‘十人’ ‘舌’ ‘貴’ ‘上’ ‘仲’ ‘下’ ‘四’
한신대 박물관	경기도	수원 고읍성	‘加智寺’ ‘天下大平 三看月’ ‘別左’ ‘弔’
한신대 박물관	경기도	수원 창성사지	범자문, ‘嘉靖’ ‘乾隆’ ‘戊申年’
경기문화재연구원/기전문화재연구원	경기도	여주 고달사지	‘(太)?祖十年 太豆十石’ ‘高達寺’ ‘高’ ‘一不絕 正而傳崇福禪 真空禪師’ ‘丁○(亥)?年’ ‘高達寺瓦’

발굴기관	지역	유적명	주요 명문 판독 내용
기전문화재연구원	경기도	여주 원향사	‘元香’ ‘○○(元香)寺’ ‘仰天祈福’ ‘○○匠僧’ ‘貞’ ‘文’ ‘○○僕使’ ‘元香寺瓦匠僧順文’ ‘元香寺’
중앙문화재연구원	경기도	이천 갈산동	‘辛卯四月九日造安興寺瓦草’ ‘臨池院’ ‘十五年’, ‘辛卯’, ‘安興寺’
단국대 매장문화재연구소	경기도	이천 설봉산성	‘上首’?추정
거례문화유산연구원	경기도	이천 증포동	‘千’, ‘丑’
서경문화재연구원	경기도	용인 남사(아곡) 유적	‘彌?勒寺’
세종대 박물관	경기도	용인 마북리건물지	‘玄化寺 癸卯○’ ‘東’ ‘戊申造(?)’ ‘丑’ ‘癸卯年 玄化寺築(?)完念惠用’
한신대 박물관	경기도	용인 마북리사지	‘戊申年○寺○草’ ‘丑’ ‘寺’ ‘館?(寺?)院’
한신대박물관	경기도	용인 마북동 중세취락	‘東’ ‘瑞峯寺/○倉門?’ ‘月日南首(自)福寺’ ‘戊申造上大寺’ ‘下大寺成造草’ ‘下大寺瓦草’ ‘(瑞)峯寺’ ‘一千五百’ ‘丑’ ‘仁’ ‘文金’
명지대 박물관	경기도	용인 마성리 마가실	‘金’ ‘金水庵’
호암미술관	경기도	용인 서리 고려 백자요	‘○○○岳山’
기전문화재연구원	경기도	용인 신갈 택지개발지(현화사지)	‘寺’ ‘化寺’ ‘玄’ ‘玄化寺’ ‘癸’ ‘寺築(?)完’ ‘築(?)完’ ‘完’ ‘卯年’ ‘完念惠’ ‘念惠’ ‘癸卯’
세종대 박물관	경기도	용인 언남리	없음(명문기와가 존재하나 확인이 않됨)
한백문화재연구원	경기도	용인 서봉사지	‘大匠之峯三造瑞峯’ ‘瑞峯寺’ ‘瑞峯寺/○倉門?’ ‘東回?’ ‘非?自?造’ ‘王(三, 主?)’ ‘嘉靖三十二年 宋○○ 瑞峯寺’ ‘化?(主)道心○未年’ ‘丑’ ‘成化三年 丁亥四月? 化?(主)○○’ ‘宋/○○崇禎○○/瓦匠上○○/化主李○○/別坐’ ‘옴(om)’
역사문화재연구원	경기도	용인 전대리	‘香水寺’
역사문화재연구원	경기도	용인 유운리	‘香水寺’ ‘大定二十六年’ ‘香水寺○年’ ‘凡(瓦)草本丙寅’ ‘大匠金順造’ ‘佳東’ ‘禾清(?)’ ‘識長’
한양대 박물관	경기도	화성 당성	‘○定四年’ ‘言’ ‘安’ ‘宅’ ‘金二’ ‘毛’ ‘○’ ‘館’ ‘棟’ ‘新’ ‘官’ ‘王(?)’ ‘○新’ ‘大官’ ‘者’ ‘城’ ‘○新棟’ ‘午午’ ‘天(?)’ ‘言’ ‘未外’ ‘宅’ ‘○○’ ‘○山’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	화성 반송리 중세유적	‘本王(玉)/事主?’ ‘西院’
서경문화재연구원	경기도	오산 가장동	‘大德四年八月日/南書宣○官全’ ‘香水寺瓦/大○金’ ‘正/OO(大德四)?年八月日’ ‘凡徑’
중앙문화재연구원	경기도	평택 갈곶리유적	‘干’
한울문화재연구원		평택 가곡리유적	‘文’
중원문화재연구원	경기도	평택 남산리	“上王爲信”
단국대 매장문화재연구소	경기도	평택 비파산성	‘乾德三年’ ‘車城’ ‘○○縣’
중앙문화재연구원	경기도	평택 지산동 부락산유적	‘○幸逃達心道怨○泰定四年丁(卯)會峰○○○○戶空淡圭戒’ ‘僧(도편)’
단국대 매장문화재연구소	경기도	안성 망이산성	‘峻農四年壬戌大介山竹州’ ‘興國…’ ‘○德進

발굴기관	지역	유적명	주요 명문 판독 내용
			「檻」·○德九蒲瓦草○○·…日月·「官」·「官」+「大官」·「官(瓦)草」·「京」·「卍」·기타 2가지
경기도박물관	경기도	안성 봉업사	‘官(瓦)草’·‘大+卍’·‘令勿達’·‘士’·‘大○山伯士’·‘作草’·‘○○龍’·‘香’·‘天’·‘大’·‘漢’·‘佳’·‘鏡’·‘寺’·‘大中八年’·‘峻豐四年’·‘乾德五年’·‘興國七年’·‘雍熙’·‘乙酉三年’·‘丙辰’·‘戊午’·‘辛酉’·‘己巳’·‘甲戌’·‘華太寺’·‘奉’·‘皆次官’·‘西州官’·‘天見官’·‘太平興國七年壬午年三月日 竹州瓦草近水(仁)水(吳)(矣)’·‘興國八’·…○年乙酉八月日竹……里瓦草(伯士)能達毛’·‘丙辰上年○○攸(宣)(伯士)’·‘(發)(令) 戊午年瓦草作(伯士)必(攸)毛’·‘辛酉年作草’·‘己巳年千年主人光大’·‘甲戌九月十一日元作○’·‘華次(太)?寺’
단국대 매장문화재연구소	경기도	안성 운수암	‘自?’·‘잔편’·‘판독불가’
기호문화재연구원	경기도	안성 상중리	‘○三(王)寺’·‘卍’
중앙문화재연구원	경기도	안성 장릉리	‘觀音(寺)?’·‘庚申’·‘庚申崇造’·‘念佛’…·‘…瓦草…’·‘天’·‘太平興國七年…’·‘竹州瓦草匠水□…’·‘太平興國七年壬午三月□ 竹州瓦草匠水□水□’·‘…佛(추정)院草…’
단국대 매장문화재연구소	경기도	안성 죽주산성	‘官(瓦)草’·‘伯士’·‘官’·‘京’·‘六年○’
기호문화재연구원	경기도	안성 칠상사	‘北坐’
국립문화재연구소	경기도	북한 개성 고려궁성	‘月蓋可中’·‘月蓋中孟’·‘月蓋元甫’·‘月蓋孝玉’·‘月蓋角三’·‘月蓋今順’·‘月蓋今順’·‘赤項文昌’·‘赤項京夫’·‘赤項惠文’·‘赤項文京’·‘赤項文成’·‘赤項真守’·‘板積水金’·‘板積八祿’·‘板積窯匠幸春’·‘德水石三’·‘德水匠只0’

### III. 경기지역 명문기와의 연호명 판독 사례

경기지역의 고려시대 연호명 기와(16)는 14개 유적에서 ‘太和六年’, ‘大中八年’, ‘峻豐四年壬戌’/‘峻豐四年’, ‘乾德三年’, ‘乾德五年’, ‘太平興國七年壬午三月日’, ‘興國八年’, ‘雍熙’, ‘(大·泰?)定四年’, ‘大定二十六年’, ‘大德四年八月日’, ‘延祐四年’, ‘延祐五年’, ‘○泰定四年’, ‘○○泰定(?)廣州○○’와 불명인 ‘○○(太和)?六年○’이 보인다.

이 가운데 안성 봉업사의 경우(7)는 연호가 가장 다양하다. 여러 연호명이 보인다는 점은 그만큼 중·개축 과정을 겪었다는 것을 말한다. 당시 죽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안성 장릉리, 망이산성 역시 봉업사와 시기적으로도 연관되어 있다. 죽주산성도 명문((太和)?六年)의 시

기는 판독되지 않으나 관련성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봉업사의 ‘太和六年’명 연호의 ‘6년’의 시기와 같기 때문이다. 고려의 ‘峻豐’연호를 제외하면 송(5)과 원(5), 금(2?), 당(2)의 연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요나라의 연호는 보이지 않는다([표 3]·[표 4] 참조).

年號는 전근대 군주국가에서 군주가 자기의 治世 기간에 붙이는 칭호이다. 최초의 연호는 중국 漢나라 武帝 때의 ‘建元’(BC. 140~BC. 136)이다. 무제는 6년 혹은 4년마다 연호를 고쳤다. 이후부터는 군주 일대에 여러 개의 연호 사용이 보통이었지만, 明과 清나라 때는 1대에 한 연호[一世一元]를 사용하였다.

연호의 명칭에는 어떠한 사실을 상징하거나 이상을 표명하는 것이 가장 많으며, 불교·도교와 관계되는 것도 있고, 고전의 글귀를 취한 것도 있다. 그리고 연호는 원칙적으로 황제만이 사용하고, 제후와 왕은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지 못하였다. 때문에 전근대 왕조는 연호의 사용을 통해 국제관계와 왕조의 자주의식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즉, 연호를 주변 나라에 사용하도록 했다는 점은 황제국 혹은 천자국임을 나타내며 독립국이란 의미를 지닌다.

고려의 태조는 ‘天授’, 광종은 ‘光德’·‘峻豐’의 연호를 사용하였으며, 1135년(인종 13)에 묘청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국호를 ‘大爲’, 연호를 ‘天開’라고 하였다. 그러나 고려는 당의 멸망 이후 오대(후량·후당·후진·후한·후주) 및 송·요·금·원·명 등 왕조와 朝貢關係를 맺으면서 册封과 正朔을 받았고, 이러한 국제질서를 연호와 기년으로 반영하였다. 따라서 고려의 연호 사용은 대외관계에 따른 필요성과 중화적, 존주적 천하 질서론이 교차된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연호와 기년표기 방식에는 자주적인 왕조의 위상, 국가간의 국제질서 반영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상징성을 갖게 되며, 동시에 같은 시기의 사건 인식 및 기록에 영향을 주게 된다.<sup>58)</sup> 때문에 연호와 기년 이해는 해당 시기의 대외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된다. 고려가 주변국의 연호와 기년을 어떻게 적용하였는가, 그리고 그것은 정확하고 일관되었는가를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고려시대 연호는 외교문서 등 국가문서 뿐만 아니라 비문, 묘지명, 불상, 범종, 금구, 기와 등 각종 금석문에서도 제작 연대의 표시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연호 없이 간지만으로 표시한 것은 중국 왕조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는 특정 시기의 것인 경우가 많다.<sup>59)</sup> 명문이 기

58) 한정수, 「고려 초의 국제관계와 年號紀年에 대한 재검토」, 『역사학보』 208, 2010

59) 홍영의, 「고려시대 금속제 기물 및 기와의 ‘연호’명 검토 - 대중국 ‘연호’의 시행과 고려의 다원적 국제관계」, 『한국중세사연구』 50, 2017

재된 금속제 기물과 명문 기와에는 연호와 간지(기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와 간지(기년월일)만 들어간 경우로 나누어진다.

고려시대의 금석문에 나타난 연호 사용의 기록을 살펴보면, 「고려사」의 기록과는 달리 대 중국과의 외교관계의 질서 변화에 따라 오대와 송의 연호 사용이 구체적인 경우, 이미 멸망한 왕조의 연호를 사용한 경우, 연호 改元 사실과 관계없이 舊 연호를 쓰는 경우, 한 시기에 대한 연호 및 재위기년 등이 겹치는 경우 등이 보인다. 이렇게 일률적이지 않은 이유는 당시의 국가 간의 외교 갈등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의식이나 제작자의 의도로도 보인다.<sup>60)</sup>

명문기와에서 연호명 기와는 전국적으로 총 57개 유적에서 50개의 연호명 사례가 정리되었다.<sup>61)</sup> 송의 연호인 ‘雍熙’·‘大中祥符’·‘太平興國’은 11건, 요의 연호인 ‘重熙’·‘天寧’·‘大平’<sup>62)</sup>·‘大安’·‘建統’·‘天慶’은 13건, 금의 연호인 ‘大正’·‘明昌’은 4건, 그리고 원의 연호인 ‘至元’·‘大德’·‘皇慶’·‘延祐’·‘天曆’·‘至正’은 17건이며, 2건은 미상이다. 명문기와 중 연호명 기와는 충청 도(23), 경기도(14), 전라도(11), 경상도(8), 강원도(8) 지역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sup>63)</sup>

『고려사』의 기록과는 달리 금속유물과 기와명에는 오대와 송의 연호 사용이 구체적인 경우, 이미 멸망한 왕조의 연호를 사용한 경우, 연호 改元 사실과 관계없이 舊 연호를 쓰는 경우, 한 시기에 대한 연호 및 재위 기년 등이 겹치는 경우 등이 보인다.

고려가 대중국 관계의 변화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한 연호가 기재된 것은 담양 읍내리 출토 ‘乾德 6년’명 부여 무량사 출토 기와 ‘乾德 9년’명, 사천 신진리성 출토 ‘태평 15년’명 기와 3개이다. 그러나 실제 송의 ‘乾德’ 연호는 967년까지 사용되었으므로 ‘乾德 9년’은 971년(광종 22)의 ‘開寶 4년’에 해당한다. 결국 968년에 改元한 송 태조의 연호를 그대로

60) 금석문의 연호 기재 양상을 통해 국가 또는 소비자와 제작자의 의도, 나아가 중앙과 지방 관료, 중앙과 지방 사찰에서도 연호 기재와 인식이 어떻게 적용되며, 주체와 시기, 지역(장소)에 따라 차별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금석문의 기년 기재 적용 대상의 주체(발원자)와 생산처가 많이 드러나지 않아 차후로 미룬다.

61) 이에 대한 정리는 홍영의, 「고려시대 명문(銘文) 기와의 발굴 성과와 과제」, 『한국중세사연구』 41, 2015 및 이남 규, 『高麗時代 歷年代 資料集』 학연문화사, 2015 참고

62) 부산 당감동 동평현 치소성의 ‘大平’은 이미 구산우에 의해 지적되었다. 즉 ‘태평’ 앞과 뒤에는 글자가 없는 것이 확실하므로 연호로 사용될 가능성이 없으며, 이를 근거로 동평현 치소성 수축 연대를 추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았다(구산우, 「고려 一品軍·三品軍에 관한 새로운 자료의 소개와 분석」, 『역사와 경계』 78, 2011, 226~227쪽). 또한 수원 고읍성의 ‘天下大平’명처럼 ‘大平’으로도 표기되는 경우도 있으며, 원의 연호인 ‘大德’ 또한 고려·조선 시대 승려의 법계 가운데 하나로 사용되었으므로 향후 연호명 명문기와의 판독과정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63) 홍영의, 「고려시대 금속제 기물 및 기와의 ‘연호’명 검토 - 대중국 ‘연호’의 시행과 고려의 다원적 국제관계」, 『한국중세사연구』 50, 2017

사용한 셈이다. 한편 사천 신진리성의 ‘태평 15년’은 1035년(정종 1) 요 흥종 ‘重熙 4년’이다. 태평 연호는 1030년(현종 21)까지 사용되었다.

표 3. 경기지역 연호명 명문기와의 출토 지역 현황

지역	유적	시대	유구 성격	연호	간지
경 기 도	북한산 삼천사지	고려~조선	사찰	延祐五年	丁丑閏七月
	인천 남구 학림사지	고려	사찰	延祐四年三月	延祐四年三月重修
	양주 회암사지	려말~조선	사찰	洪武三十年丁丑三月日/天順庚辰/成化六年	
	광주 광주향교	고려~조선	향교	□□泰定廣州□□	
	안양 중초사(안양사)지	고려	사찰	泰定	
	화성 당성	고려	산성	○定四年	
	용인 유운리	고려	사찰	大定二十六年	香水寺○年 瓦草本丙寅
	오산 가장동	고려	사찰	大德四年八月日	
	안성 봉업사	통신~고려	사찰	峻豐四年/太和六年/太平興國七年壬午三月日/興國八/大中八年/乾德五年/雍熙	乙酉三年/○年乙酉八月日/丙辰/戊午/辛酉/己巳/丁丑/甲戌/乙酉三年/丙辰上年
	안성 망이산성	통신~고려	산성	峻豐四年壬戌/興國○○	
	안성 죽주산성	삼국~조선	산성	○○(太和)?六年○	
	안성 장릉리	고려~조선	사찰	太平興國七年壬午三月	庚申/庚申崇造
	평택 비파산성	삼국~고려	산성	乾德三年	
	평택 지산동 부락산	고려	사찰	泰定四年丁(卯)	丁(卯)

표 4. 경기지역 고려시대 연호명 기와의 사용 시기와 유적

시기		국명	연호명	유적
833	홍덕왕 7	당	太和六年	안성 봉업사
855	문성왕 16	당	大中八年	안성 봉업사
963	광종 11	고려	峻豐四年/峻豐四年壬戌	안성 봉업사/망이산성
965	광종 16	송	乾德三年	평택 비파산성
967	광종 18	송	乾德五年	안성 봉업사
982	성종 1	송	太平興國七年壬午三月日	안성 봉업사/장릉리
983	성종 2	송	興國八○(年)?	안성 봉업사
984~987	성종	송	雍熙	안성 봉업사
1164	의종 18	금(원)	○(大·泰?)定四年	화성 당성
1186	명종 2	금	大定二十六年	용인 유운리(향수사)
1300	충렬왕 25	원	大德四年八月日	오산 가장동
1317	충숙왕 5	원	延祐四年	인천 남구 학익동 학림사지
1318	충숙왕 6	원	延祐五年	북한산 삼천사지
1327	충숙왕 14	원	○泰定四年	평택 지산동 부락산
1325?	충숙왕 12?	원	○泰定二年(?)廣州○○	광주향교
833?	홍덕왕 7?	미상	(太和)?六年○	안성 죽주산성

#### IV. 명문기와의 해독과 활용과제

일반적으로 지표·시·발굴조사에서 출토되는 명문 기와의 내용은 대개 地域名, 寺刹名, 殿閣名, 紀年銘·干支·日字와 大施主·施主 및 大化主·化主, 別座, 瓦匠, 僧統 등의 인명, 官職名, 梵語 등이 기록되어 있어, 건물의 창건 또는 중수시기, 공사참여자나 시주자에 대한 기록, 복을 기원하는 내용 등을 알 수 있다.<sup>64)</sup>

사찰명은 사찰 유적 39건 중에서 여주의 ‘元香寺’처럼, ‘○○사’로 표기된 사찰명은 북한산 삼천사의 ‘三川夫(寺)?’, 은평구 진관동의 ’三角山 靑覃寺’, 파주의 ‘惠陰寺’, 양주 대모산성의 ‘○雲寺’, 과천 관악사지의 ‘金音(寺)?’, 하남 교산동의 ‘慈化寺’·‘藥井寺’, 하남 천왕사지의 ‘桐寺’·‘天王(寺)?’, 안양 중초사지의 ‘安養寺’, 수원 고읍성의 ‘加智寺’, 여주 고달사지의 ‘高達寺’, 여주 원향사지의 ‘元香寺’, 이천 갈산동의 ‘安興寺’·‘臨池院’, 용인 남사(아곡) 유적의 ‘彌?勒寺’, 용인 마북리 유적과 서봉사지, 용인 신갈 택지개발지(현화사지)의 ‘玄化寺’·‘瑞峯寺’, 용인 전대리 유운리, 오산 가장리의 ‘香水寺’, 안성 봉업사의 ‘華太(次)寺’, 안성 상중리의 ‘○三(王)?寺’ 등의 사찰명이 보인다.

이와 같이 명문과 가운데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寺’명 기와이다. 명문기와가 출토(수습)된 유적의 70건 가운데 60%가 사찰명인 셈이다. 때문에 발굴과정에서 명확한 ‘사’명 기와가 출토되면 연호명, 간기명과 함께 유구의 성격과 치폐과정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한 근거가 된다. 이 가운데, 용인 마북리 일대의 ‘玄化寺’·‘瑞峯寺’의 관계, 용인 전대리와 유운리, 오산 가장리의 ‘香水寺’, 안성 봉업사의 ‘華太寺’는 그 사찰의 선후 변화관계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위의 [표 2] 경기지역 명문기와 출토(수습) 유적과 판독 내용 가운데 중요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천 영종도 龍宮寺 출토 명문기와인 ‘己巳三月?○○○/寺法堂蓋瓦施主/戒松同願句當使/鄭康同寺道宣’는 시주인 ‘戒松’의 승려 이름과 ‘句當使 鄭康’, ‘同寺의 道宣’의 이름이 보인다. 용궁사는 조선후기에 瞽曇寺로 나온다.<sup>65)</sup> 신라 문무왕 10년(670)에 원효대사가 창건하여 白雲寺라 하였다고 전하며, 조선조 철종 5년(1854)에 흥선대원군이 중창하여

64) 경기문화재연구원, 『고달사지』 II, 2007, 834쪽 참조

65) 1872년 지방지도 「永宗地圖」(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용궁사라 개칭하고 고종이 등극할 때까지 이 절에서 침거하였다고 한다.<sup>66)</sup> 따라서 이 절은 '백운사·와' 구당사·로 불리었을 가능성이 있다.

'戒松'은 고려 충숙왕 때의 승려인데, 『고려사』, 『고려사절요』에서 확인된다.<sup>67)</sup> '勾當使'는 고려 성종 13년(994)에 신설한 외관직으로 전국의 강과 섬의 津과 渡에서 감사·감독 기능을 하였다. 구당사는 나루와 섬을 관리하는 관직으로 994년(성종 13)에 암록강에 설치되었고, 이후 탐라 등 모든 나루터에 구당사를 두어 도서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고, 거기서 거둔 세금을 개경으로 옮겨오는 등의 국가업무를 맡았다.<sup>68)</sup> 원 간섭기 이후에도 존속한 것으로 보인다.<sup>69)</sup>

인천 남구 학익동 학림사지에서는 '延祐四年三月重修' 명이 주목되는데, 1317년(충숙왕 5)에 중수한 것으로 보인다. 학림사는 『新增東國輿地勝覽』이나 『輿地圖書』, 『仁川府邑誌』 등에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 그 변천 과정은 알 수 없다.<sup>70)</sup>

북한산 삼천사지는 661년 元曉大師가 창건한 이후 존속되다가 임란 이후 폐사됐다고 전해지나 이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고, 『고려사』, 『신증동국여지승람』, 『北漢誌』 등에 단편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다.<sup>71)</sup> 法相宗의 중심사찰로, 고려전기 승려인 大智國師 法鏡의 행적을 살펴볼 수 있는 銘文碑片 등 10~13세기 고려시대 유물이 다량 출토되었으며, '延祐五年/金哲○○○'명은 중건 시기로 보여진다. '延祐五年'은 충숙왕 6년(1318)에 해당한다.

서울 진관동(진관사) 유적의 靑覃寺는 신라시대 華嚴十刹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신라 시대 최치원이 효공왕 8년(904년)에 저술한 <法藏和尚傳>에는 의상대사와 제자들이 전국에 화엄십찰을 세웠다는 내용이 나온다. 청답사는 그 가운데 하나로 漢州 負兒山에 위치한다고 <법장화상전>에 기록되어 있다. 한주는 지금의 서울이며, 부아산은 북한산 줄기인 北

66) (재)한국고고인류연구소, 『仁川龍宮寺』 2017

67) 『高麗史』世家34 忠肅王 元年 “癸丑 幸內願堂 次板上詩 命尹碩·僧戒松 及大小文臣·生徒·釋子和進”

『高麗史節要』卷24 忠肅王 元年 “幸內願堂 次板上詩 碩臣護軍尹碩僧戒松等和進 戒松嘗有穢行 見黜於其徒 納妹於碩 碩薦于王 由是 出入無禁 史臣李衍宗曰 “王不與通儒講論治道而翫於末藝 每與尹碩戒松輩唱和 以抽黃對白 爲務 何益於君道哉”

68) 『高麗史』 권3 세가3 성종 13년 8월 “以李承乾爲鴨江渡勾當使 尋遣河拱辰代之” 및 권77 志31 百官 2 外職 “勾當成宗十三年 置鴨綠渡勾當使 後諸津渡 皆有勾當”, 권123 列傳36 磬幸 林貞杞 “令新島句當使韓允宜 漕運豪家田租 與內庫米 並到禮成江 凡八十餘艘”

69) 『高麗史』 권106 열전19 諸臣 朴恒 “陸處者 不可不鎮撫 所以差勾當使也 曰 島民乘舟 成群往來 如生事何 恒曰 島嶼之人 以魚鼈爲衣食 往來漁釣 非官吏所當禁也”

70) 인하 대학교 박물관, 『문화 유적 분포 지도』 -인천광역시 남구, 남동구, 동구, 중구, 연수구, 2005

71) 서울역사박물관 『북한산 삼천사지 발굴조사보고서』 2011

岳의 옛 명칭이다.<sup>72)</sup>

파주 혜음원지는『東文選』권64 記「惠陰寺新創記」에 혜음원의 창건배경과 그 과정, 창건과 운영의 주체, 왕실과의 관계 등이 기록되어 있다. 혜음원은 남경과 개성간을 통행하는 관료 및 백성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예종 17년(1122)에 건립된 국립숙박시설이며 국왕의 행차에 대비하여 別院도 축조되었다고 전한다.<sup>73)</sup> ‘惠陰寺’명과 함께 ’庚申二月三十日惠陰寺造匠李明’명에서 와장인 ‘李明’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남 춘궁리, 교산동과 하사창동 일대는<sup>74)</sup> 신라 진흥왕 14년(553) 新州였던 漢山州의 治所址로 주목되었다. 때문에 현재 경기도 하남시 춘궁리에 위치한 대형 사찰(춘궁리 3층 및 5층 석탑)과 상사창리의 天王寺(춘궁리 철조석가여래좌상)는 고려 초기의 호족인 왕규와 관련된 사찰로 추정된다. 현재 天王寺址는 목탑지가 남아 있는 대형 평지 절터이다. 문현상으로는 고려 태조 대부분 조선 세종 대까지의 기록이 남아있고, 2차례 실시한 시굴조사를 통해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존속한 사찰터로 알려졌지만, 창건연대를 알려줄 만한 증거는 확실하지 않다. 「慧目山高達禪院國師元宗大師之碑」에 따르면, 元宗大師(869~ 958) 가 ‘廣州 天王寺’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다. 이외에 『高麗史』, 『高麗史節要』에는 辛甿이 천왕사 탑에 모셔져 있던 불사리를 개경의 王輪寺로 옮겼으며,<sup>75)</sup> 조선 세종 28년(1446) 광주 天王寺의 舍利 10개를 闕내로 옮긴 일이 있었다.<sup>76)</sup>

이 지역에는 神福禪寺, 藥井寺, 慈化寺, 桐寺, 奉水寺, 禪法寺(태평 2년 명 마애약사불 좌상) 등 많은 사찰이 건립되었다.<sup>77)</sup> 이 지역에서는 이를 반영하는 ‘慈化寺’, ‘藥井寺’ ‘天王(寺)?’와 ‘客舍’ 伯士직을 가진 成達’, ‘哀宣’ 등의 이름이 보이고 있다. 백사는 통일신라

72) 서울역사박물관, 『진관사 발굴조사 보고서』 2012 : 덕성여대 산학협력단·미술문화연구소, 『신라 화엄십찰 청담 사지 제1차 학술대회-문화재적 가치, 정비, 보존 및 활용』 자료집(2017. 9.22,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

73)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파주 혜음원지』 1차~4차 발굴조사 보고서, 2006  
한백문화재연구원, 『파주 혜음원지』 6~10차 발굴보고서, 2014~2017

74) 서해문화재연구원, 『하남 하사창동 유적』 III~IV, 2013, 2014 : 『하남시 하사창동 316-1번지내 유적』 2016 : 역사문화재연구원, 『하남 하사창동 393번지』 2018 : 하남역사박물관, 『하남 하사창동 354번지 유적』 2017, 『하남시 춘궁동 271-17번지 유적』 2016, 『하남 춘궁동 365-1번지 유적』 2017, 『하남시 춘궁동 264-1번지 유적』 2015, 『하남시 춘궁동 349-3,8번지 유적』 2016, 『하남시 항동 건물지 유적』 2016 : 한강문화재연구원, 『광주 하남3지구 유적』 2017 : 한백문화재연구원, 『하남 덕풍동·풍산동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016 : 한양대학교박물관, 『하남 광주향교 경관광장 유적』 2017, 『하남 이성산성 경관광장 유적』 2018 : 혜안문화재연구원, 『하남 하사창동 343-2번지 외 1필지 유적』 2018 : 화랑문화재연구원, 『하남 천왕사지』 I~IV, 2016, 2017. 『하남 춘궁동 301-1번지 유적』 2017

75) 『高麗史』 권132 열전45 반역 辛甿

76) 『世宗實錄』 권112 세종 28년 4월 23일(경신)

77) 황보경, 『河南地域 佛教遺蹟에 대한 研究』, 『고문화』 56, 2000

종인 성덕대왕신종(771)의 ‘太博士’·‘次博士’, 禪林院鍾(804) ‘伯士’로부터 비롯한다. 伯士·助博士·大伯士 등으로 일컬어진 의 명칭은 기술자로서의 博士라는 이름은 본래 官匠에게 주어진 칭호로서,<sup>78)</sup> 대체로 4~6두품급의 신분층이었다.

안양 안양사(중초사)지에서는 ‘泰定’, ‘安養寺’의 명문이 주목된다. 원래 안양사는 中初寺였다. 「中初寺址 桡竿支柱」에 각자된 명문에는 신라 興德王 원년인 826년 8월 6일에 채석하여 그 다음해인 흥덕왕 2년(827) 2월 30일에 세웠다는 기록이 있다. 중초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寺名과 조성시기, 참여자 명단 등이 있는 당간지주이다.<sup>79)</sup>

안양사는 신라 孝恭王 3년(900년)에 고려 태조 왕건이 남쪽을 정벌하러 지나다 삼성산에 오색구름이 채색을 이루자 이를 이상히 여겨 가보던 중 능정이란 스님을 만나 세워진 사찰로 전해진다. 安養이란 불가에서 阿彌陀佛이 상주하는 清淨한 極樂淨土의 세계를 말하며, 현세의 서쪽으로 10만여 佛土를 지나 있다는 즐거움만 있고 자유로운 이상향의 安養世界를 말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태조 王建이 세운 崔瑩이 주지 惠謙과 함께 7층 塼塔을 중수하고 우왕이 내시 朴元桂를 보내 香을 내렸으며, 승려 1천명이 佛事を 올렸다는<sup>80)</sup> 기록이 있어 옛 안양사의 규모를 짐작케 하여준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고려시대에 조성된 八角圓堂의 浮屠와 귀부(경기도 유형문화재 제93호)가 있다. 귀부는 金富軾이 글을 짓고 명필 李元符가 쓴 비문이 있었으나, 현존하지 않는다. 조선 태종 11년(1411년)에 태종이 충남 온양으로 온천욕을 하러 가던 중 안양사에 들렸다는 기록이 있다.<sup>81)</sup>

고달사는 『奉恩本末寺誌』에 보면 764년(경덕왕 23)에 창건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후 圓鑑大師 玄昱(788~869)이 慧目山에 들어와 머물 당시의 정황이 양양 선림원지 禪林院址弘覺禪師塔碑(886)에 나와 있으며, 이후 高達寺元宗大師慧眞塔(975)과 僊鳳寺大覺國師碑(1132)에서도 고달사지 변영기의 모습은 물론 점차 사세가 축소되어가는 정황을 살펴볼 수 있다. 그 후 절이 언제 폐사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金九容(1338~1384)의 『惕若齋集』에는 그가 驪江의 樓 위에서 고달사의 真上人에게 보내는 시가 실려 있고,<sup>82)</sup> 韓修(1333~1384)의 『柳巷詩集』<sup>83)</sup>과 元天錫(1333~1384)의 『耘谷行錄』에는 고달사의 天台老

78) 朴敬源, 1981 「高麗鑄金匠考－韓仲敍와 그의 작품－」, 『考古美術』 149, 13~16쪽.

79) 한울문화재연구원, 『安養寺址: 안양 구 유유부지 발굴조사』 2013

80)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0 경기 衿川縣

81) 『太宗實錄』 권22권 태종 11년 9월 12일(경오)

82) 『惕若齋先生學吟集』 上卷 「驪江樓上 寄高達眞上人」

83) 『柳巷先生詩集』 詩 「題高達寺」

人 2대 선사 義澄에게 보내는 시가 담겨 있어<sup>84)</sup> 최소한 14세기까지는 사찰이 경영되었음을 알려준다. 16세기를 전후해서 폐사되었을 가능성성이 있다. 이 밖에 『梵宇攷』에 보면 비로소 여주 고달사가 폐사되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sup>85)</sup> ‘高達寺’와 함께 ‘(太)?祖十年 太豆十石’, ‘一不絕絕 正而傳嵩福禪 真空○禪師’, ‘丁○(亥)?年’명을 통해 ‘콩 10석’과 ‘眞空大禪師’, 干支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여주 원향사지의<sup>86)</sup> ‘元香寺瓦匠僧順文’명처럼, 승려 順文이 생산을 담당하기도 하였다.<sup>87)</sup> 이 명문으로만 보면 瓦匠僧의 존재도 주목된다. 와공집단으로 僧匠組織이 존재하였으며 순문을 대표하는 승장조직의 조직적 참여를 통해 사찰 조영이 이루어 진 것으로 해석된다.<sup>88)</sup>

한편, 사명만이 확인된 이천 갈산동 안흥사지의 ‘安興寺瓦草’, ‘○○辛卯四月九日造安○○’명 기와에서 알 수 있듯이, 안흥사에서 직접 기와를 수급하여 佛事를 일으켰던 것을 알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안흥사가 이천도호부 동쪽 4리에 위치하고 있다면서 1401년에 邊仁達이 安興亭舍에서 생도를 가르치다가 사찰을 학교로 사용할 수 없다는 여론에 밀려 별도로 향교를 지었다는 기록이 나온다.<sup>89)</sup> 안흥사는 조선 전기까지 사찰로 유지되다가 그 이후 어느 시점에 폐기됐을 것으로 보인다.<sup>90)</sup>

용인 마북리 건물지와 신갈 택지개발지(현화사지)는 ‘癸卯年玄化寺築(?)完念惠用’명을 통해 동일한 속성을 가진 지역으로 현화사가 위치한 곳으로 보인다.<sup>91)</sup> 마북동 중세취락과 서봉사지 역시 自福寺로서의 ‘瑞峯寺’명과 함께 ‘大匠之ネ三造瑞峯’에서 와장인 ‘大匠’의 명칭이 보인다.<sup>92)</sup>

용인 전대리와 유운리 유적에서는 동일한 ‘香水寺’명과 함께 ‘大定二十六年’, 大匠金順造’ 등의 것이 있다.<sup>93)</sup> 향수사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용인현 동쪽 10리에 향수사(香水

84) 『耘谷行錄』 권3 「奉寄高達寺李大禪師 義澄」

85) 경기문화재연구원, 『고달사지』 I ~ IV-여주 고달사지 1~8차 발굴조사 보고서, 2000~2016

86) 경기문화재연구원, 『원향사』 2003

87) 도문선, 앞의 논문, 273~274쪽 참조.

88) 윤용희, 2001 『南漢江流域 出土 高麗前期 평기와 考察』,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9) 『新增東國輿地勝覽』 권8 경기 利川都護府

90) 중앙문화재연구원 『利川 葛山洞遺蹟』 2007

91) 세종대학교 『龍仁 麻北里 : 건물지유적 발굴조사보고서』 2003

92) 한맥문화재연구원, 『용인 서봉사지 시굴 및 1차 발굴조사』 I · II 2015·2016

93) 역사문화재연구원, 『용인 전대리 산21-16번지 주택부지 내 유적』 : 기호문화재연구원, 『龍仁 前垈里, 留雲里 遺蹟 : 삼성 에버랜드 유원지 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2011

寺)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후 17세기 중엽에 간행된 『東國輿地誌』에도 같은 기록이 있으나, 18세기 중엽이후 폐사된 것으로 보인다. ‘大匠 金順’의 명칭도 있다. 오산 가장리 유적<sup>94)</sup> 역시 ‘大德四年八月日/南書宣O官全’명과 함께 ‘香水寺瓦/大O金’명이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大定二十六年’은 명종 2년(1186)에 해당하고, ‘大德四年’은 충렬왕 25년(1300)에 해당한다.

평택의 비파산성은 평택시 서부의 안중면 용성3리 설창마을과 덕우1리 원덕마을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비파산(琵琶山: 해발 102.2m)의 북쪽 정상부와 남동쪽 하단부의 용성리 뒷골을 포함하여 축조된 삼태기 모양의 토축 평산성이다. 고려초기에 현성으로 축조되어 행정 치소 및 해안방어의 중심기능을 했던 곳으로, 원래 백제의 上忽縣(車忽)이었는데, 757년 (경덕왕 16) 車城으로 고쳐 唐恩郡의 領縣으로 하였다가 940년(태조 23) 龍城으로 고쳤다. 따라서 ‘乾德三年’, ‘車城’, ‘○○縣’명은 평택의 옛 지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乾德三年’은 광종 16년(965)에 해당한다. 또 평택 지산동 부락산 유적은<sup>95)</sup> ‘○幸述達心道恕○泰定四年丁(卯)會峰○○○○戶空淡圭戒’이나 문맥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泰定四年丁(卯)’명은 충숙왕 14년(1327)에 해당한다.

안성 봉업사, 망이산성,<sup>96)</sup> 죽주산성,<sup>97)</sup> 장릉리 유적은<sup>98)</sup> 광종의 연호인 ‘峻豐四年’과 함께 竹州의 지명, ‘華太(次)寺’란 사찰명, 그리고 ‘太和’, ‘峻豐’, ‘乾德’, ‘太平興國’, ‘雍熙’ 등의 연호가 보인다. 간지명은 ‘乙酉’명기와를 제외한 나머지는 광종때 간지이므로, 이때를 기와 제작시기로 보고 있다.<sup>99)</sup>

안성 奉業寺에 대한 문헌 기록은 『高麗史』와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보이고 있다.<sup>100)</sup> 위 기록으로 고려시대 봉업사가 태조 왕건의 眞影과 관련이 있던 “眞殿寺院”이었음을 알 수 있다. 봉업사지의 창건시기에 대해서는 3차례 발굴조사를 통해 고려 이전 통일신라시대 후반경에 창건되었으며 사찰명 역시‘奉業寺’가 아닌 ‘華太(次)寺’였던 것으로 보고되었

94) 경기문화재연구원, 『오산 가장동 유적』 2008

95) 중앙문화재연구원, 『平澤芝山洞負樂山遺蹟』 2016

96) 단국대 박물관 『안성 망이산성』 1~3차 발굴조사 보고서, 1992~2002 : 중원문화재연구원, 『음성 망이산성』 2009

97)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안성 죽주산성 남벽 정비구간 발굴조사 보고서』 2006 : 한백문화재연구원, 『안성 죽주산성 : 2~4차 발굴조사 보고서』 2912

98) 중앙문화재연구원, 『안성 장능리사지』 2008

99) 김병희, 「문자기와를 통한 봉업사의 위상」, 『고려 태조 진전사원 봉업사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방안』 2017 안성 봉업사지 발굴20주년 국제학술대회(2017. 9. 22(금) 안성시립중앙도서관 2층 다목적홀) 자료집, 봉업사지 발굴 20주년 기념위원회

100) 『高麗史』 권40 세가40, 공민왕 12년 2월조, 『新增東國輿地勝覽』 권8 경기도 죽산현 고적조.

다.<sup>101)</sup> ‘奉業寺’라는 사찰명이 처음 보이는 것은 1966년에 출토된 금속유물로 고려 문종35년(1081)에 제작된 “**青銅貞祐五年銘**” 金鼓이다.<sup>102)</sup> 즉 1081년 이전에는 “奉業寺”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었다. 고려 이후 어느 시기부터 봉업사로 재창건되어 진전사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고려 광종 2년(951)이라고 할 수 있다. 문현기록에 전하는 인물명인 “能達”은 『高麗史』에 고려초에 활동하였던 인물임을 확인하였다. 지명과 관련된 것으로 문현에서 확인되는 것은 “大介山”, “竹州”, “皆次” 등이다. 이것은 봉업사지가 있는 죽산의 옛 지명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sup>103)</sup>

광주향교 수복사 부지의<sup>104)</sup> ‘○○泰定廣州○○’과 ‘○○二(?)年客舍○○’를 검토하면, ‘泰定二年’(1325, 충숙왕 12)으로 볼 수 있으나, 확인이 필요하다. 화성 당성의<sup>105)</sup> ‘○定四年’도 ‘(大·泰)定四年’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외에 양주 대모산성의 ‘德部舍’,<sup>106)</sup> 이천 갈산동의 ‘臨池院’, 용인 마북동 중세취락의 ‘自福寺’, 화성 반송리 중세유적의<sup>107)</sup> ‘西院’ 등도 주목된다.

한편, ‘瓦草’, 또는 ‘官草’ 관련 용례는 모두 8건에 해당한다. 인천 계양산성, 북한산 삼천사지, 양주 대모산성, 과천 일명사지, 용인 유운리, 안성 망이산성, 봉업사, 죽주산성 등에서 ‘官草’, ‘官’으로 해독하였다.<sup>108)</sup> 판독과정에서 ‘瓦’를 ‘官’, ‘凡’자로 誤讀한 까닭에 향후 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官’ 1자만 독자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정확한 판독이다. 이외에도 경산 중산동, 홍성 석성산성, 보령 천방유적, 익산 미륵사지, 경주 창림사지, 남한산성 행궁지의 ‘瓦’를 ‘凡’로 이해하였다. 또한 ‘官’와 ‘瓦’명 역시 마모된 명문의 경우 혼

101) 경기도박물관, 『奉業寺』, 2002

102) 金鼓에 기록된 명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貞祐五年歲在丁丑名字沙門粲謙住于此竹州奉業寺發源鑄成印上大匠夫金大匠阿角三大匠景文都邑大師洪植”

103) 김병희, 「문자기와를 통한 봉업사의 위상」, 『고려 태조 진전사원 봉업사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방안』 2017 안성 봉업사지 발굴20주년 국제학술대회(2017. 9. 22(금) 안성시립중앙도서관 2층 다목적홀) 자료집, 봉업사지 발굴 20주년 기념위원회

104) 한양대학교박물관, 『廣州鄉校 : 發掘調查報告書』, 2003

105) 한양대학교박물관, 『唐城』 1次 發掘調查報告書, 2次 發掘調查報告書, 1998, 2001

106) 한림대학교 박물관, 『楊州大母山城』 : 發掘報告書 1990

107) 경기문화재연구원, 『화성 반송리 중세유적』, 2006

108) 김병희는 ‘官草’명을 “官에서 제작한 官窯” 또는 “官”的 주도로 제작한 기와”로 보았다. 그리고 지명에서 ‘지명+官’과 연관하면 ‘지명+관청’에 공급하던 기와라는 뜻이 있으며, ‘직급+官’명은 기와를 불사한 지방관이나 유력 세력의 도움을 받아 제작한 기와라는 뜻으로 해석하였다. ‘凡草’명은 ‘官草’와 대응되는 개념에서 ‘官’에 의해 제작된 기와가 아닌 ‘민간요’ 또는 ‘일반인의 주도로 의해 제작된 기와’라는 뜻으로 해석하였다(김병희, 「안성 봉업사지 출토 고려전기 명문기와 연구」 단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김호준은 ‘草’명을 기와로 해석하여, ‘官草’, ‘城草’, ‘大藏當草’, ‘舍草’명은 제작처와 소비처를 구분한 해석과 ‘凡草’명도 ‘민간요’ 또는 ‘일반인의 주도로 의해 제작된 기와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김호준, 앞 논문, 2013).

란을 가져오기 쉽다. 음성 망이산성의 ‘大官’, 화성 당성의 ‘大官’, 광주 무진고성의 ‘大官’ 등은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sup>109)</sup> 이에 대한 판독의 주의를 필요로 한다.

## V. 맷음말

이 글은 우선 경기지역의 고려시대 유적에서 수습된 명문기와 관련 발굴 출토(수습) 유적 현황을 파악하고, 출토된 명문기와의 판독 내용을 정리하여 명문기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즉 사찰의 이름, 제작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연호나 간지, 제작자, 건축주체 등을 추적하여 명문기와의 활용과제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그 대상은 2018년(5월)까지의 발굴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고려시대 명문기와의 발굴 출토(수습) 현황, 명문기와의 판독내용 분석과 성과를 정리하였다. 그 결과 70건에 이르는 명문기와 유적의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여기에는 연호, 간지, 건물(사찰)명, 지역, 지방 관직자, 생산자(와공), 시주자, 노동 동원인 등을 파악 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담겨져 있다. 온전한 형태의 명문기와는 내용 구성 역시 (연호)+간지+사명+(대장명)+건물명칭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내용 말미에는 ‘瓦草’만을 덧붙여 마무리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개성 궁성에서의 것처럼 생산지와 생산자만 명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명문 기와 자료의 분석을 통해 유적간의 비교연구, 기와의 편년 연구, 생산지와 수요처간의 생산수급체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발굴보고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은 보고서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많이 보였다는 것이다. 편집과정에서 명문기와의 순서가 바뀌거나 내용이 없는 도판사진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보고서상 탁본이나 사진 상태의 불량으로 인해 판독의 어려움이 따랐다. 따라서 판독이 가능한 명문에 대한 적극적 해석이 필요하리라 보여진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명문기와의 판독 오류를 줄이는 것이다. 그리고 완형에 가까운 명문기와는 별문제가 없지만, 잔편으로 수습된 명문기와도 함께 다른 기와와 검토되어야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연호명 기와의 경우는 간지명 기와와 함께 짹을 이루는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판독과정에서 정밀한 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109) 홍영의, 「고려시대 명문(銘文) 기와의 발굴 성과와 과제」, 『한국중세사연구』 41, 2015

아울러 최근 梵字文에 대한 해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대개 ‘범자문’으로만 처리하고 있다. 범자문도 다양한 의미와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함께 명문의 字體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字形의 구분을 통해 같은 속성의 명문기와를 함께 묶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그동안 유구 성격을 대하는 발굴자마다의 입장과 전공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러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문연구자와 공동으로 명문판독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과정 속에서 명문기와의 내용 형식 분류와 내용의 분석 분류(기와의 속성, 압인의 형태, 연호와 간지, 생산지, 생산자, 건물지명, 관직명, 발원내용, 범자문 내용)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토론

### 「고려시대 경기지역의 명문 기와 사례와 명문의 성격」에 대한 토론문

최정혜 | 부산근대역사관

본 발표문은 경기지역에서 명문기와가 출토되는 유적 현황을 정리·분석하고, 명문기와에 나타나는 사찰명이나 연호·간지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명문기와의 활용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특히 고려시대 경기지역에서 명문기와가 출토되는 70건 유적의 연호명 자료 판독 분석을 통해 유적간의 비교연구·기와의 편년연구·생산지와 수요처간의 생산수급체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로 활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고학과 문헌학의 공동연구를 제안함으로써 고려시대 물질문화 연구의 논의를 진전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본 발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홍영의선생님의 발표문은 고려시대 경기지역의 명문기와 유적과 명문 사례를 정리하여 활용방안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문드릴 것은 없지만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고 앞으로 토론자의 학습에 참고하고자 한다.

#### 질문 1)

발표자는 명문기와가 출토되는 유적 70건 가운데 60%를 차지하는 것이 사찰명 명문기와로 파악하였다. 문헌에는 기록되어 있으나 위치가 확인되지 않던 주요 사찰이 명문기와의 출토로 확인된 경우는 고려불교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사찰명 명문기와 중에 연호나 간지·화주·장인 없이 사찰명만 새겨진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 기와에 사찰명만 새기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작지에서 수요처의 표기·사찰에서 재원을 지원하여 제작한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 혹은 단순히 사찰명을 표시 위한 것 등 여러 가

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 발표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 질문 2)

발표자는 명문기와를 해독하고 많은 활용과제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인천 남구 학림사지에서는 ‘延祐四年三月重修(연우4년 3월 중수)’ 명이 주목되며 1317년(충숙왕5)에 중수한 것으로 보인다. 학림사는 『新增東國輿地勝覽(신증동국여지승람)』 『輿地圖書(여지도서)』 『仁川府邑誌(인천부읍지)』 등에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 그 변천과정을 알 수 없다.”고 하였다.

고고학을 공부하는 토론자 입장에서는 문헌기록이 없는 학림사의 경우에는 발굴조사 성과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문헌사를 전공하시는 발표자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떠한 활용방안을 갖고 있는지?

### 질문 3)

발표자께서는 명문기와에는 “연호, 간지, 건물(사찰)명, 지역, 지방 관직자, 생산자(와공), 시주자, 노동동원인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담겨져 있으며, 온전한 형태의 명문기와는 내용 구성 역시 (연호)+간지+사명+(대장명)+건물명칭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내용 말미에는 ‘와초(瓦草)’만을 덧붙여 마무리한 것이 특징이다.”라고 하였는데, 영남지방의 사지 출토 명문기와 중에는 이러한 명문구성과 다른 형태의 것도 다수 출토되고 있다.

발표자가 언급한 이러한 명문 구성체계가 모든 명문기와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경기지역에 한정된 것인지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을 부탁드린다.

### 질문 4)

발표자는 “최근 해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梵字文(범자문)의 자체와 자형 분석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자형의 구분을 통해 같은 속성의 명문기와를 함께 묶을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발표자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자체와 자형의 분석 그리고 자형의 속성 구분에서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 고려시대 경기지역 사원의 성격

이승연 | 경기문화재연구원

## | 목차 |

- I. 머리말
- II. 고려시대 開京과 京畿지역의 변화
- III. 고려시대 開京과 京畿지역 사원의 종파와 기능
- IV. 맺음말

## I . 머리말

삼국시대 도성 내에는 왕실과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호국사찰이 조성되었다. 고려시대 들어서 불교는 왕실이나 지배층은 물론 서민에게도 절대적인 신앙의 대상이었으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고려 태조가 943년(태조 26)에 내린 ‘訓要’<sup>1)</sup>와 의종이 1168년(의종 22)<sup>2)</sup>에 내린 교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불교가 고려 개국과 운영에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종교적 기능 외에 부가적 기능을 통해 사원의 성격을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훈요의 첫 번째 내용인 ‘우리나라의 大業은 반드시 여러 부처님의 護衛하는 힘에 도움을 받았다. 그러므로 禪敎寺院을 창건하고 住持를 파견하여 불도를 닦음으로써 각각 그 業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다.’는 내용으로 보아 ‘왕이 불교를 보호하면[外護], 부처님의 힘에 도움을 받아 국토를 수호[護國]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선종과 교종사원을 지어 주지를 파견함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원 운용과 통제를 통해 개경과 지방의 통치에 힘을 기울이게 하였다. 두 번째 내용인 ‘모든 사원들은 모두 道誅의 의견에 의하여 국내 산천의 좋고 나쁜 것을 가려서 開創한 것이다. 도선의 말에 의하여 자기가 선정한 이 외에 함부로 사원을 짓는

1) 『高麗史』 卷第2, 世家, 태조 26년(943) 4월.

2) 『高麗史』 卷第19, 世家, 의종 22년(1168) 3월.

다면 地德을 훼손시켜 국운이 길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내가 생각하건대 후세의 국왕, 공후, 왕비, 대관들이 각기 願堂이라는 명칭으로 더 많은 사원들을 충축할 것이니 이것이 크게 근심되는 바이다.’는 기록을 통해 裨補寺와 願堂의 목적으로 사원이 조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의종이 나라를 교화하고 옛 성인의 말씀을 참고하여 폐단을 바로잡을 대책으로 내린 교서에는 조상 때 開創한 裨補寺社와 예부터 상례로 의식을 거행해온 사원, 특별히 복을 기원하는 사원[祈恩寺社]를 수리하게 하였는데, 이를 통해 裨補寺社와 祈恩寺社, 불교행사를 거행한 사원이 중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고려시대 開京과 京畿지역의 변화를 살펴본 후, 해당 지역 사원의 종파와 기능을 정리해 보고, 이러한 관점에서 몇몇 발굴자료를 소개함으로써 고려시대 경기지역 사원이 다른 지역 사원과 다른 배경이나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 II. 고려시대 開京과 京畿지역의 변화

도성인 ‘京’과 주변지역인 ‘畿’는 국가통치의 중심지와 이를 지지하는 배후지로서 상호 밀접한 관계를 이룬다. 시대에 따라 도성과 경기의 상황이나 위상이 달라지면 지역에 대한 지배구조도 변하였다(우성훈 2015: 88). 開城府의 위치와 행정조직의 변화, 관료제도 및 급료체계의 변화와 경기제도의 변천에 관한 선행연구(末松保和 1996: 2~17, 18~48)를 통해, 고려시대 경기는 관료에게 지급하는 토지의 공급처였으며, 이로 인해 관료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경기제도가 변화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고려의 수도 개경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에 자리잡았다. 태조는 918년(태조 1)에 고려를 건국하고, 919년(태조 2) 도성을 松岳之陽으로 옮기면서 ‘開州’로 삼았다.<sup>3)</sup> 이 때 開州는 개경 일대의 松林縣과 江陰縣이 속해 있던 松岳郡, 덕수현과 臨津縣이 속해 있던 開城郡을 아우르는 지역으로,<sup>4)</sup> 후대에 완성되는 개경 나성 내부는 후대의 경기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지역까지 都內로 기록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開州의 범위 안에 위치한 聖居山, 五冠山, 開城大井 등으로 고려 태조의 조상들과 관련된 유서 깊은 장소라는

3) 『高麗史』 卷第1, 世家, 태조 1년(919) 정월.

4) 『三國史記』 卷第35, 雜志 第4 地理2 松岳郡.

사실이다. 태조가 도성은 물론 후대의 경기지역까지 都內로 설정한 것은 선대와 관련된 장소를 神聖化하고, 이들이 위치한 곳을 높여 開州로 정함으로써 왕실과 왕권의 정통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우성훈 2015: 89~90). 995년(성종 14) 7월에는 開州를 開城府로 고치고, 6개의 赤縣과 7개의 縣을 관할하게 하였으며,<sup>5)</sup> 1018년(현종 9)에는 개성부를 폐지하고 開城縣令(貞州·德水·江陰縣을 관할)과 長湍縣令(松林·臨津·鬼山·臨江·積城·坡平·麻田縣을 관할)을 두어 관리하게 하고, 이들을 尚書都省에 예속시켜 ‘京畿’라 하였다.<sup>6)</sup> 도성으로부터 분리된 개념의 ‘京畿’라는 지명은 이때부터 비롯되었다. 이후 1062년(문종 16)에 開城府가 다시 설치되어 京畿(牛峯郡 추가)를 관할하였고,<sup>7)</sup> 1069년(문종 23)에는 12현이었던 경기의 縣數가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sup>8)</sup> 1308년(충렬왕 34)에는 경기만 관할하였던 開城府가 都城 안을 담당하게 하고, 경기에는 별도로 開城縣令을 두어 도성 외부를 관장하게 하였다.<sup>9)</sup> 원의 간섭이 끝난 1390년(공양왕 2)에는 문종대와 유사한 범위로 경기가 확대되고, 이를 左·右道로 구분하여 각 도에 都觀察黜陟使를 임명하였다.<sup>1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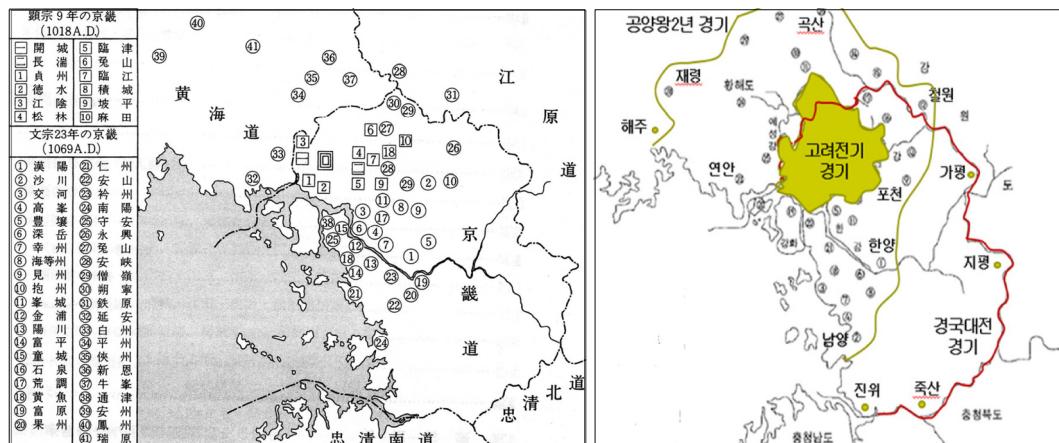


그림 1. 문종대 경기의 확대 (末松保和, 1996)

그림 2. 고려와 조선의 경기영역 비교  
(고려전기, 고려말(1390), 조선전기(1486))  
(안병우 1997 참조 재구성▶심승구 2015)

5) 『高麗史』卷第56, 志10, 地理1 王京開城府.  
6) 『高麗史』卷第56, 志10, 地理1 王京開城府.  
7) 『高麗史』卷第76, 志30, 百官1 開城府.  
8) 『高麗史』卷第56, 志10, 地理1 王京開城府.  
9) 『高麗史』卷第56, 志10, 地理1 開城縣·王京開城府.  
10) 『高麗史』卷第56, 志10, 地理1 王京開城府.

이상 살펴본 것처럼 개경의 영역은 태조 2년(919)의 定都, 성종 6년(987)과 현종 15년(1024)의 五部坊里制의 정비, 현종 20년(1029)의 羅城 축조 등을 통해 정비되었으며,<sup>11)</sup> 현종대 도성에서 경기가 분리된 아래, 문종대와 공양왕대에 경기의 면적이 확대된 것은 관료(공양왕대는 신진관료)의 녹봉제도가 개편되면서, 그들에게 지급하는 科田이 증가한 결과로 이해되며(변태섭 1971), 관할관청이 승격 개편되는 것은 그 중요성이 높아진 결과라 할 수 있다(우성훈 2015: 92, 97).

### III. 고려시대 開京과 京畿지역 사원의 종파와 기능

고려시대에는 태조 때부터 많은 사원을 창건하거나 추인하면서 불교세력을 흡수·이용하여 사상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 국가통치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고려태조는 훈요십조에서 밝혔듯이 불교를 통해 통치체제를 재정비하려 하였다. 919년(태조 2)에 개경에 도읍을 정한 후에 10寺를 위시하여 모두 26寺를 도성内外에 창건하여 신라의 금성중심의 불교교단조직을 개경에 재편하였다. 이들 사원은 각 종파의 근거지이면서 각종 불교행사장소로 삼았으며, 일정한 범주와 격을 두어 통제하였다. 이들은 지역적으로 개경과 지방에 소재한 사원으로 대별될 수 있고, 중앙과 지방사원의 관계는 종파별, 지방행정구역과 그 체계를 통한 본말관계를 중심으로 사원의 구조적 측면에서 파악이 가능하다. 또한 고승들의 활동을 통해 王室과 宗團의 관계를 살필 수 있다(韓基汶 1998: 48~49, 118).

『高麗圖經』 권17, 祠宇條에는 개경 일대 사원의 위치가 기록되어 있다. 나성 내에 위치한 사원으로는 광화문 동남쪽 길가에 위치한 興國寺, 王府의 동쪽 3~4리에 위치한 安和寺와 왕부의 남쪽 태안문 문 안 북쪽 100여 보에 위치한 廣通普濟寺이 있다. 이밖에 나성 밖에는 西郊亭에서 서쪽으로 3리 가량 떨어진 곳에 國清寺가 있고, 장폐문을 나가 2리 가량의 위치에 興王寺, 거기서 서쪽으로 조금 더 가서 洪圓寺, 숭인문에서 동쪽으로 나가면 洪護寺, 동북쪽으로 안정문을 나가면 歸法寺와 靈通寺 있다. 이밖에 『新增東國輿地勝覽』 권5 開城府上 古蹟·驛院條와 開城府下 古跡條에 보면 도성 중앙에는 普濟寺, 정궁 동서편에는 補國寺, 보국사 옆에는 靑雲寺, 연경궁 동쪽에는 法王寺, 남부 환희방에는 崇教

11) 『高麗史』 卷第56, 志10, 地理1 王京開城府.

寺, 삼현리에는 妙蓮寺, 부 동쪽 5리에는 開國寺, 부 남쪽 3리에는 地藏寺, 성 동쪽에는 天壽寺가 있었고, 탄현문 안에는 賢聖寺, 松岳山에는 王輪寺 · 廣明寺 · 龜山寺 · 金鐘寺 · 石房寺 · 乾聖寺 · 福靈寺, 龍首山에는 眞觀寺 · 松林寺, 안정문 밖에 있는 歸法寺 옆에는 龍興寺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고려시대 개경과 경기지역의 범위를 참고하여 사원의 종파와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단, 시대에 따라 지명과 행정구역의 범위가 변화하였고, 사료만으로는 지역의 범위나 사원의 위치를 명확히 밝히기는 어려워 몇몇 주요 사원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을 밝힌다. 또한 경기지역 사원은 개경의 배후지에 위치함으로써 갖는 특성이 있으므로 개경 사원도 일부 소개하였다.

우선 종파는 교종(화엄종 · 유가종[법상종 · 자은종] · 천태종)과 선종(조계종)으로 나누어 정리하였고, 기능상으로는 願刹, 裨補寺社 · 資福寺, 院館寺院, 군사주둔 · 정치회합의 장소로 사용된 사원으로 구분하였다(표 1).

표 1. 고려시대 개경과 경기지역 주요 사원

종파	기능				사원명	발굴 조사 여부
	願刹	裨補寺社 資福寺	院館寺院	군사주둔 정치회합		
교 종	●태조				장단 佛日寺	■
	●태조				장단 靈通寺	
	●문종			●	덕수 興王寺	■
	●순종				개경 洪[弘]圓寺	
	●선종				개경 弘護寺	
					개경 歸法寺	
					삼각산 靑潭寺	■
	●목종				개경 崇教寺	
	●현종				개경 玄化寺	
	●충숙왕				개경 晏天寺	
화 엄 종					개경 海安寺	
					삼각산 三川寺	■
					삼각산 莊義寺	
		●			금주 安養寺	■
	●문종비 仁叡王后			●	개경 國清寺	
천 태 종	●숙종		●		개경 天壽寺	
					개경 妙蓮寺	

종파	기능				사원명	발굴 조사 여부
	願刹	裨補寺社 資福寺	院館寺院	군사주둔 정치회합		
선종	●예종				개경 安和寺	
					개경 普濟寺	
					개경 華藏寺	
					장단 五龍寺	
					개풍 龍巖寺[瑞雲寺]	
					해주 廣照寺	
					양주 檜巖寺	■
	●崔怡				강화 禪源寺[社]	■
?	●태조				개경 奉恩寺	
	●목종				개경 廣明寺	
	●현종비 元惠王后				개경 王輪寺	
	●성종			●	개경 開國寺	
		○			양주 관아지	■
			●		장단 普賢院[館]	
			●		임진 普通院	
			●		개경 西普通院	
			●		碧瀾渡 弘慶院	
			●		파주 惠陰院[寺]	■
			●		파주 廣灘院	
			●		서울 沙峴寺 [弘濟院+棲仁館]	

## 1. 종파

華嚴宗은 고려전기에 승통급 승려가 주지한 사원으로 개경에 灵通寺, 洪圓寺, 弘護寺, 興旺寺, 福興寺 등이 있고, 지방에는 開泰寺, 歸信寺가 있다. 수좌급이 주지한 개경사원은 歸法寺, 妙智寺, 興教寺, 佛日寺 등이 있고, 지방에는 崇善寺, 浮石寺, 歸信寺, 國泰寺 등이 있다. 삼중대사급의 사원은 奉先寺, 松川寺, 歸信寺, 華嚴寺, 海印寺 등이다. 고려후기에는 화엄종 세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됨에 따라 고려전기의 개경중심의 체계를 유지하지 못하였으며, 지방사원 역시 타격이 커다. 승통급의 사원으로 灵通寺가 그 사격을 유지하였고, 대사급의 開泰寺와 海印寺, 우왕대 삼중대사급의 盤龍寺, 중대사급의 金生寺의 사례가 보인다(韓基汶 1998: 169~170).

瑜伽宗 사원의 경우 승통급은 개경의 玄化寺, 수좌급은 개경의 弘圓寺와 崇教寺, 修理寺 등이 있고, 원주의 法泉寺, 伊山의 伽倻寺가 있다. 삼중대사급은 海安寺, 金山寺, 天興寺, 麻鹿寺 등이 있다. 이 중에서 玄化寺는 유가종의 중심사원으로 현종 때 法鏡, 정종 때 鼎賢, 문종·선종 때 海麟, 예종 때 尚之, 인종 때 闡祥과 德謙, 명종 때 覺觀이 승통의 승계를 지닌 채 주지하였다. 고려후기에는 화엄종과 마찬가지로 종세가 떨어져 개경을 중심으로 한 사원의 체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 승통급의 사원에는 重興寺, 莊義寺, 桐華寺, 佛國寺, 金山寺, 法住寺, 瑜伽寺 등이 있다(韓基汶 1998: 170).

天台宗은 고려중기에 종단으로 성립되었다. 대선사급의 사원으로는 國清寺, 妙蓮寺, 垔原寺 등이 있고, 선사급 사원으로는 外帝釋院, 月峰寺, 郁錦寺 등이 있으며, 삼중대사급 사원으로는 華藏寺와 煥乘寺 등을 찾아볼 수 있다(韓基汶 1998: 172).

선종사원으로는 고려전기에 대선사급의 사원은 개경의 安和寺, 普濟寺, 廣明寺, 內帝釋院 등을 들 수 있고, 선사급은 報法寺, 佛恩寺, 外帝釋院, 內帝釋院, 普濟寺, 天和寺, 菩提淵寺 등이 있어 있다. 고려후기에는 대선사급의 사원으로 寶鏡寺, 斷俗寺, 萬淵寺, 禪月寺, 雲門寺, 修禪寺, 迦智寺, 太子山寺, 松廣寺, 檜巖寺, 垔原寺 등이 있으며, 선사급으로는 珍丘寺, 禪源寺, 定林寺 등이 있다. 고려전기와 비교해 보면 대선사급 사원이 지방에 나타나고 있어 고려후기 지방불교시대를 반영하고 있다(韓基汶 1998: 171).

이상 정리한 것처럼 고려후기에는 무신의 난과 몽고의 침입으로 개경 사원이 타격을 받음에 따라 고려전기의 개경을 중심으로 한 사원 체계를 유지하기 어려웠고, 지방사원이 상대적으로 중시되었다. 고려전기에는 승과에 합격한 후 낮은 승계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지방 사원의 주지를 하다가 승계가 올라가면서 개경 사원의 주지로 취임하였다. 그러나 고려후기에는 고급승계를 가지고도 지방사원에 주지로 취임하는 예가 많아지는 것은 개경사원이 불교계의 중심적인 위치를 가지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며, 지방사원의 격이 상승되었음을 의미한다. 단, 不動寺院이나 개인 원당 등 법손관계로 주지하는 사원이나 혈족에 의한 친소관계에 의해 주지가 되는 사원은 승계를 기준으로 파견되는 사원과 차이가 있다(韓基汶 1998: 172).

이들 사원 가운데 고려시대 경기지역 사원으로는 화엄종에 속하는 三角山 靑潭寺, 유가종에 속하는 삼각산 三川寺와 莊義寺, 선종사원으로는 檜巖寺와 禪源寺를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발굴조사된 靑潭寺, 三川寺, 檜巖寺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三角山 靑潭寺址 (화엄종)

- 위치 :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429번지 일원

은평 뉴타운 3지구 A-2지점에서 발굴된 고려~조선시대 건물지 유적은 ‘三角山 靑潭寺 三寶草’명 암키와가 여러 점 출토됨에 따라 ‘華嚴十山’의 하나인 ‘青潭寺’로 비정되었다. 조사지역은 유적의 위치나 배치, 평면구성, 규모, 지명 등을 고려해 볼 때 청담사의 중심사역으로 판단되었다. 유적의 운영시기가 사료와 일치하지 않는 점(유적의 중심시기인 고려시대 청담사에 대한 사료가 확인되지 않음)은 사원 중창에 따른 이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는 주변 일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연후에라야 명확히 규명될 것으로 생각된다.<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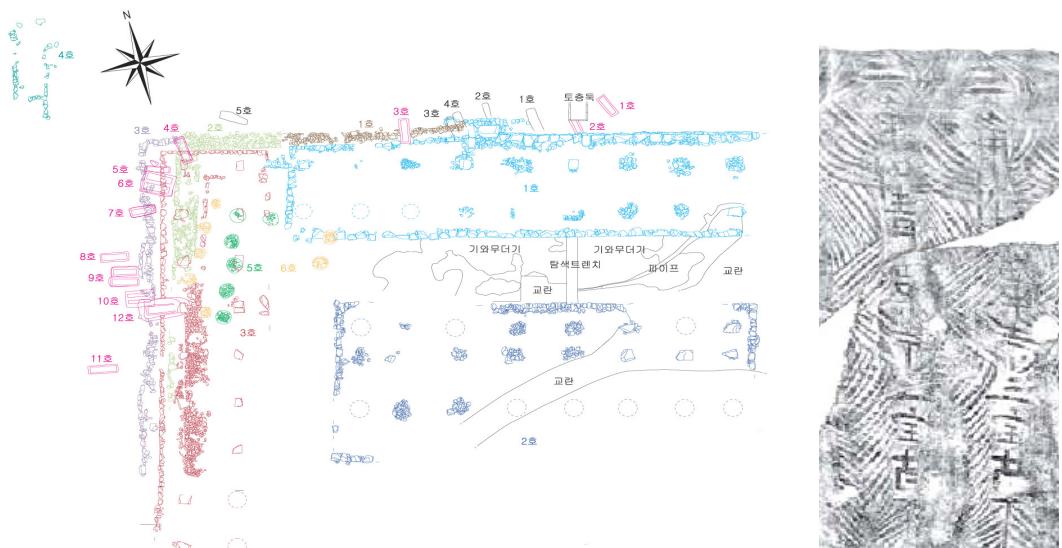


그림 2. 청담사지 배지도 및 ‘三角山 靑潭寺 三寶草’명 암키와 (한강문화재연구원 2010)

주교통로에 위치한 유구의 입지를 고려할 때 역원의 기능 및 명문와의 외부 유입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1045년에 혜소국사 정현(972-1054)이 창건한 沙峴寺[弘濟院+棲仁館]<sup>13)</sup>가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역원이 아닌 화엄종 사원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청담사지는 고려시대 지방에서 경영된 화엄종 사원의

12) 이승연, 2017, 「청담사지 유구의 성격과 의의」, 『청담사지 보존·활용 기본계획 수립 학술연구보고서』, 덕성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pp.212~213.

13) 金顯, 「七長寺慧炤國師碑」(1060년).

가람배치와 전각구성을 보여주는 드문 예로, 고대사원에서 출발하여 중세사원의 성장 및 변화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 ② 三角山 三川寺 大智庵址 (법상종)

- 위치 :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산51

삼천사의 창건연대와 연혁은 분명하게 전해지지 않는다. 1021년(현종 12)에 창건된 현화사의 초대주자로 당시 三川寺主였던 法鏡이 임명되었다는 기록<sup>14)</sup>이 남아있어 11세기 이전에 창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지국사비 귀부 옆에서 탑비전의 유구가 발견되었고, 명문을 가진 청동대발과 비편의 출토로 大智庵址로 밝혀졌다.

2005~2007년 발굴조사된 삼천사 부도전지는 건축물 4동이 마당을 둘러싸고 배치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마당에는 박설을 깔고 탑비와 부도의 지대석과 하대석으로 추정되는 장대석이 확인되었다(서울역사박물관 2011: 384~387). 조사전 귀부와 이수가 노출되어 있었으며, 전면에는 석축이 있다. 중심건물인 영각은 정면 3칸, 측면 1칸이며, 좌우에는 건립시기가 다른 것으로 추정되는 전각이 놓여있고, 전면 석축 위에는 문을 중심으로 좌우에 3칸씩 총7칸으로 구성된 행랑이 놓여 있다.

삼천사지에서 수습된 비편(A08)에는 법경의 수학과 관련하여 ‘용암사(龍岳寺)’가 언급되고 있는데, 용암사는 태조의 선대가 順之에게 희사하였다는 바로 그 용암사로 추정된다. (남동신 2011: 34)



그림 3. 삼천사 대지암지

14) 周旼, 「玄化寺碑」(1021년).

③ 天寶山 檜巖寺 (선종)

- 위치 : 양주시 회암동 산14

양주 회암사의 창건연대는 명확하지 않으나, 1174년(명종 4) 금나라의 사신이 회암사에 온 적이 있고, 보우가 1313년(충선왕 5)에 회암사 광지선사에게 출가한 바 있어<sup>15)</sup> 12세기 이래로 존재하였던 사원임을 알 수 있다. 指空(?~1367)은 이곳을 돌아보고 자신이 수학하였던 인도의 아라난타와 유사하다고 점지하고, 후에 원나라 연도에 있을 때 5년간 곁에서 수학하고 보좌하던 懶翁(1320~1376)에게 중창을 부탁하였다. 나옹은 10년간 원에 머물렀고, 고려로 돌아와 단월과 조계종의 지원을 받아 회암사를 중창하여 1374~1376년(우왕 2)에 낙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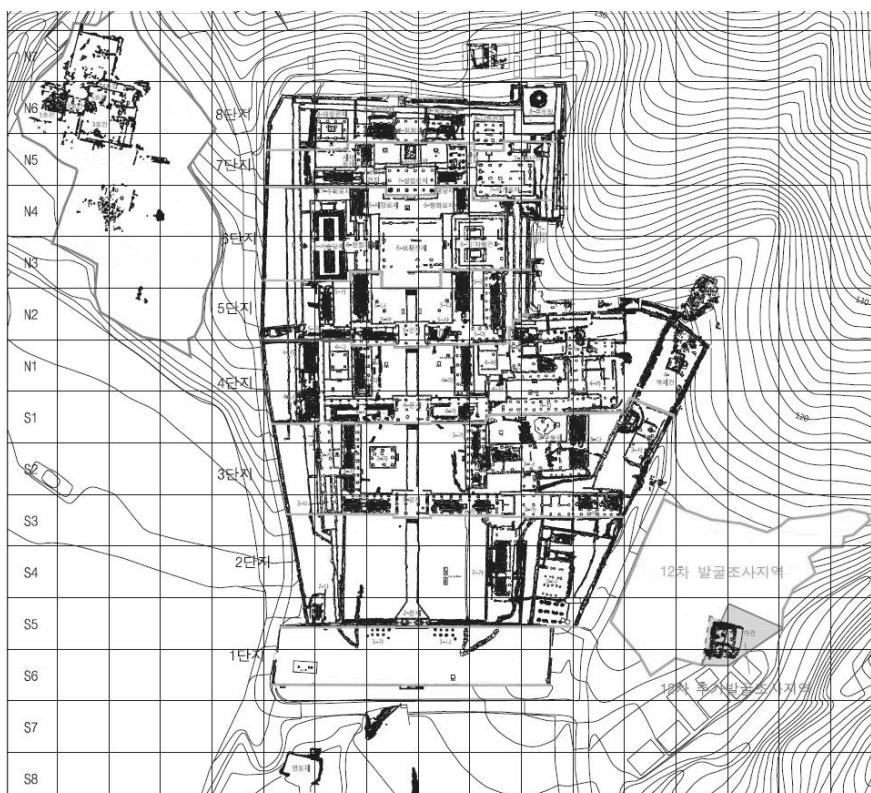


그림 4. 회암사지 배지도 (경기문화재연구원 2017)

15) 『新增東國輿地勝覽』卷第11, 楊州牧 佛宇 檜巖寺; 李穡, 「太古寺圓證國師塔碑」(1385).

회암사지는 14세기에 이색이 찬한 「天寶山檜巖寺修造記」와 최근 발굴조사된 유구를 통해 14~15세기 선종사원의 구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현재 노출된 유구는 대부분 15세기 유구들이지만, 설법전지와 방장·영당지가 위치한 7·8단지의 건물 구성은 「천보산회암사수조기」의 기록과 일치하고 있어(경기도박물관·기전문화재연구원 2004: 34, 378), 실제 유구의 전각명은 물론 평면구성·내부시설·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 2. 願刹

고려시대 王室과 佛教 세력은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태조는 訓要를 통해 후대 국왕과 공후, 후비들이 願堂을 함부로 지을까봐 근심을 표하였다.<sup>16)</sup> 실제로 역대 왕에 의해 건립된 사원 대부분이 원찰이었으며, 여기에 王이나 王妃의 眞影을 모신 眞殿[願堂, 眞堂]이 세워졌다.

역대 왕과 왕비의 능은 개경 주위 1~2리 내에 있고 멀리 있어도 하루에 왕복하기 어렵지 않은 곳에 위치하였다. 『新增東國輿地勝覽』의 開城府 陵墓·佛宇條를 통해 능과 원당의 위치를 알 수 있는데, 태조의 현릉 이하의 능명과 그 위치가 분명한 왕릉, 왕후릉 그리고 추존왕릉뿐만 아니라 능명을 잃은 현존 왕릉 또는 기록에서 그 위치를 짐작할 수 있는 왕릉들은 江都時代에 江華에 조영된 壽陵과 恭讓王陵을 제외하고 모두가 開城을 둘러싼 주위의 開豐郡과 長湍郡에 집중해서 위치하고 있다. (조선총독부 1916) 고려대 왕릉의 위치는 명종대까지 송악산과 개경 주변, 송림현, 장단현 등이며, 몽골의 침입으로 강화도로 천도한 후에는 강화에 자리하였고, 원간섭기 이후에는 충목왕, 충정왕, 공민왕 등의 무덤을 제외하고는 고려후기 왕릉의 위치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김인호 2010).

願堂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원에 대해 창건·중수·시납 등으로 관련을 맺게 된 개인이나 친족 혹은 집단이 그 사원에서 발원을 위한 불사를 열 뿐만 아니라, 그 운영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원으로 규정될 수 있다. 왕실원당은 父王과 母后의 원당을 중심으로 경영되었으며, 광종대에 원당(奉恩寺·佛日寺·崇善寺)이 창건되기 시작하였고, 현종대부터 인종대까지는 부왕과 모후를 위한 원당을 새로이 창건하여 지정하였다. 인종 이후 원종까지는

16) 『高麗史』 卷第2, 世家, 태조 26년(943) 4월.

새로운 원당이 창건되지 않았고, 기존의 사원이 이용되었다. 고려후기에는 신효사, 묘련사, 민천사, 운암사 등을 중창한 외에는 새로운 사원이 창건된 적 없이 기존사원이 원당으로 지정되었다. 원의 압제 하에 들어간 충렬왕대에는 鮒馬國이 된 만큼 元公主 출신의 父王을 위한 원당이 함께 지정되었다. 태조-봉은사, 목종-승교사(유가종), 현종-현화사(유가종), 문종-홍왕사(화엄종), 순종-홍원사(화엄종), 숙종-천수사(천태종), 예종-안화사(선종)로 이어지는 원당 건립은 조상숭배시설이자 교단통제의 구심점이며 왕실의 재정기반이라는 현실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韓基汶 1998: 220~262).

왕실원찰은 도성 내에 주로 분포하며, 도성 외곽의 경우 능 주변에 건립되었다. 많은 사찰들이 왕실이나 개인의 기복을 비는 원찰로 화함에 따라 팔관회나 연등회 외에도 무차대회, 인왕도장, 나한재 등 대규모 불교법회나 행사가 사찰 내에서 수많은 신도들이 모인 가운데 이루어졌다.

#### ① 장단 佛日寺 (화엄종-고려 태조의 원찰)

- 위치 : 개성시 판문군 선적리 불일동 (松林縣 北쪽-고려사)

951년(광종 2)에 창건하였면서 縣治를 동북으로 옮겼다.<sup>17)</sup> 광종의 어머니 神明太后 劉氏의 원당으로 삼았으며, 戒壇에 나아가 戒를 받는 곳으로 두루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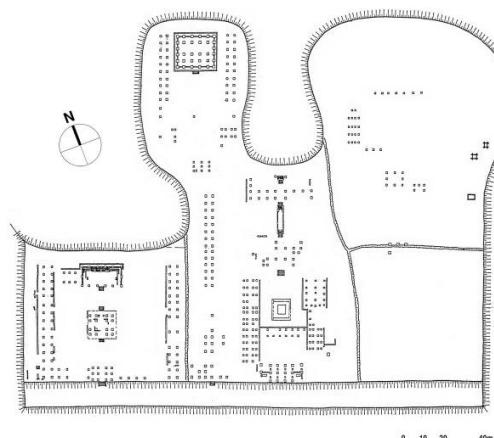


그림 5. 불일사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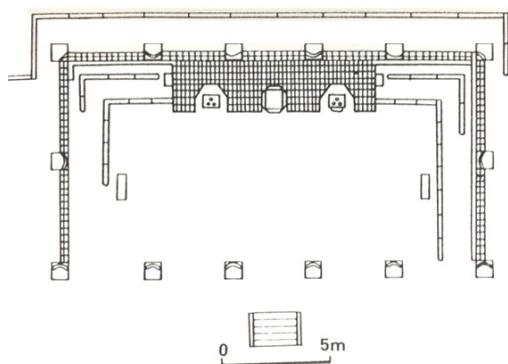


그림 6. 불일사 서편구획 강당지

17)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2, 장단, 古跡 佛日寺.

사지는 당간지주, 오층석탑, 초석, 담장지가 잘 남아있으며 크게 세 구획으로 나뉜다. 사지의 규모는 동서길이 230m, 남북너비는 중심구획에서 115m, 가장 뒤쪽 건축터까지 175m이다. 중앙구획은 중문지와 석탑, 대웅전지, 강당지가 중심축선에 놓이고 좌우에 승방지가 배치되어 있다. 서편구획은 중앙가람지보다 한 단 낮은 대지에 조성되었는데 문지와 사면회랑 그리고 중앙에 정면 3간 측면 3간의 중앙전지가 있고 그 북쪽에 강당지가 있다. 동편구획은 남북 두 구획으로 구분되며, 북방구획에는 한 개의 전지와, 우물 2개소, 석조 1개가 있다(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1). 이 가운데 서편구획 강당지의 평면구성을 주목해 볼 만하다.

### 3. 補福寺社, 資福寺

태조는 고려 建國의 정당성을 ‘부처의 護衛’에 두고, 그에 따른 사원의 개창을 도선의 山水順逆에 기준을 둔 ‘裨補寺社’<sup>18)</sup>를 건립하려 하였다. 태조는 개경에 10寺를 포함하여 25寺를 창건하였다. 이들 사원 중 개경의 水德을 비보하가 위한 것으로 상류에 廣明寺, 日月寺, 歸山寺, 法王寺가 있고, 합류 또는 중류에는 興國寺와 普濟寺, 內水口 방면에는 開國寺가 있다(李丙燾 1980: 97). 補福寺社는 定期 佛教儀禮를 행하였는데, 국가차원의 정기 불교의례는 대부분 개경 일대 사원에서 이루어졌으며. 國王祝壽 · 燃燈會 · 經行 · 仁王般若道場 · 飯僧 등은 지방의 중심사원에서도 정기적으로 행해졌는데 이 사원을 資福寺라고 하였다. 공양왕대에 국가이념으로서의 비보사사에 대한 회의론이 나타났고, 조선 태종 5년과 6년 사원의 경제기반을 박탈하는 제반 조처에 따라 자복사는 철폐되어갔다. 자복사는 불교를 통한 국가의례를 수행함은 물론 숙박, 시장의 기능도 갖추어 읍민을 결집하고 구휼하였으며 여행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계수관 단위 자복사 중 楊州는 문종대 南京留守官이 된다.(고려사 지리지) 여기의 자복사는 태종 7년 명찰로 대체되는데 삼각산의 자은종 神穴寺이다. 고려시기에는 읍치 지역에 자복사가 있었다면 신증 역원조에 나오는 흥인문외 3리 지역의 普濟院이 자복사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도 홍제원이나 이태원도 가능성이 있다. (한기문 2011: 300) 고고자료로 양주 자복사의 혼적은 없는가?

18) 『高麗史』 卷第2, 世家, 태조 26년(943) 4월.

① 양주 官衙址

양주 관아는 조선시대 양주목의 치소로서 본래 견주의 옛터(현 양주시 고읍동)에 위치하였다. 1504년(연산군 10)에 일시적으로 폐목되었다가, 1506년(중종 1)에 다시 복구되었고, 1511년(중종 6)에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다. 5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 4~5시기 가량 중복된 유구를 확인하였는데, 이중 2~3차 조사에서 ‘大資福寺 · 卍’명 기와와 귀목문 · 범자문 막새, 불상대좌편 등이 출토되었다. 이를 통해 이 지역에 양주 관아지가 들어서기 이전에 사원 관련 유적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으나, 이 유물들은 조선 전~후기 유물들과 같이 출토되고 있어 증개축시 인근에서 부재를 조달하면서 반입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경기문화재연구원 2009, 217~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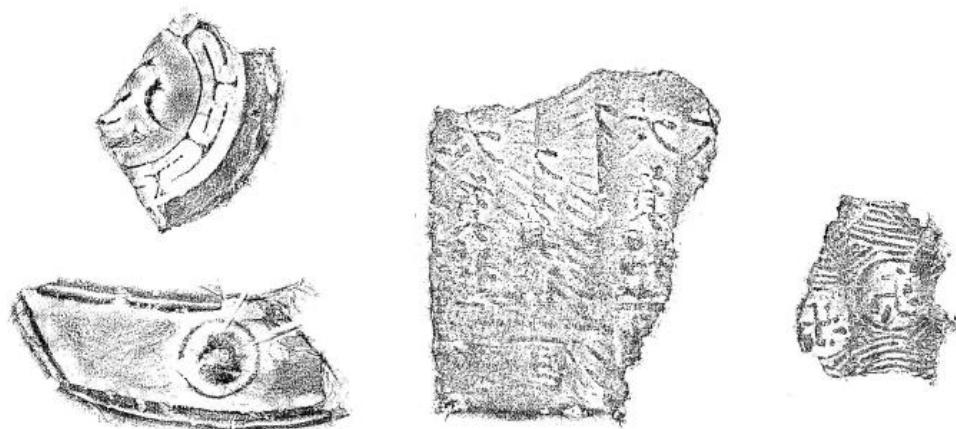


그림 7. 양주 관아지 출토 기와 (기전문화재연구원 2003)

② 안양 安養寺址 【◀9세기 中初寺】 - 慈恩宗 惠謙大師[節州統 皇龍寺 恒昌和上]

- 위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212-1 일원

안양사지는 조사 전 中初寺址 檻竿支柱(보물 제4호, 826~827년)와 공장부지에서 이전된 中初寺址 三層石塔(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64호, 고려)이 위치하고 있어 中初寺址로 추정되어 왔다. 2008~2010년에 걸친 발굴조사로 ‘安養寺’명 기와와 塚塔址가 발굴되면서 고려 태조가 전탑을 세운 안양사의 위치와 가람배치가 밝혀졌고, 그 하부에서 통일신라 후기 문화층이 일부 확인됨에 따라 中初寺址 위에 安養寺가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었다(한

울문화재연구원 2013: 235, 267).

종초사지 당간지주에는 보력 2년(826) 中初寺 동쪽 僧岳에서 돌을 떼어내 정미년(827)에 당간지주를 완성한 사실과 寺職이 새겨져 있어<sup>19)</sup> 당시 황룡사의 승려가 공사에 관여한 사실과 9세기 전반의 僧官制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安養寺와 관련해서는 李崇仁이 지은 『衿州安養寺塔重新記』가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高麗 太祖와 能正에 의해 창건된 절로 태조가 이곳을 지나면서 裨補說에 따라 塔과 廟를 많이 세웠는데 안양사탑도 그 중 하나라고 한다. 이후 신유년(1376)에 慈恩宗師 林公의 제자인 惠謙大師가 鐵原府院君 崔瑩의 도움을 받아 安養寺塲塔을 중수하였다.<sup>20)</sup>

안양사지 중심사역의 배치는 중문-전탑-금당-강당-승방이 일직선상에 위치하고, 남측과 좌우측에 회랑이 둘러싸고 있다. 유물의 제작시기는 토층과 자기를 고려할 때 통일신라후기~고려전기(9세기 중엽~10세기), 고려중기(11~13세기), 고려후기(14세기), 조선전기로 대별할 수 있다. 이 중 안양사지 창건과 관련된 층위는 고려전기에 해당하며, 안양사의 사세가 확장된 것은 11세기 이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성이 높다.<sup>21)</sup>



그림 8. 안양 안양사지 전경. 전탑 근경 (한울문화재연구원 2013)

19) 「中初寺址幢竿支柱銘」(827), 『譯註韓國古代金石文』 III(1992).

20) 李崇仁, 『衿州安養寺塔重新記』, 『東文選』卷76.

21) 한울문화재연구원 · 안양시, 위의 보고서, 2013, p.315, p.331.

#### 4. 院館寺院

고려의 중앙집권적인 역로망은 대체로 성종(981~997)~현종대(1009~1031)에 걸쳐 정비되었는데, 당시에 정비된 역로망은 傳令이나 사신 영송 등 공적 역할이 중심이었으므로 모든 여행자들에게 실질적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鄭柾根 2008: 32~48) 이에 국가의 부담을 줄이면서 여행자들의 편의를 돋기 위해 제시된 정책이 객관을 갖춘 사원을 건립하고 불교계의 재력과 인력을 동원하여 객관의 운영을 담당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원관사찰들은 현종대에 처음 출현하여 13세기 초까지 활발히 건립·운영되었는데, 특히 수도 개경 주위 및 남부지방에서 개경으로 향하는 주요 도로들이 만나는 지점에서 확인되고 있다. 몽골항전기 및 원 지배기에는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였으나, 공민왕은 육상교통의 발전을 도모하였고, 이 과정에서 역관을 다시 정비, 발전시키려 하였다. 공민왕대 이후의 원관은 이전의 원관사찰과는 달리 佛事의 기능은 없는 순수한 객관의 성격을 띠었다(최연식 2016: 7, 29).

원관사원은 사람이 많이 다니지만, 길이 험하고 별다른 시설이 없어 인적이 드물어 도적과 호랑이의 습격을 받을 수 있는 곳에 건립하였다. 개경에서 남경으로 가는 길(개경-장단-적성-양주-남경, 개경-파주-고양-남경)이 주요 교통로에는 원관사원이 여럿 설치되었음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원관사원은 일반 사원과는 달리 별도의 객관영역을 구성하였다. 여기에는 사원영역과는 별도로 여행자들이 머무는 客室과 馬廄, 부속시설들을 갖추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발굴유구를 통해 일부 확인할 수 있다.

##### ① 장단 普賢院 (松林縣 境內 普賢館), 임진 普通院, 개경 西普通院

普通院은 본래 중국 당나라 때에 오대산 등의 성지에 승려와 속인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순례자들이 자유롭게 묵고 쉬어갈 수 있도록 설치한 사찰을 가리킨다.

장단 보통원은 임진강 연안에 자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요 간선도로상에 위치하여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곳이었다. 이 보현원은 의종이 즐겨 노닐던 곳으로 1170년 8월에 정중부 등의 무인이 난을 일으킨 곳<sup>22)</sup>이기도 하다. 임진 보통원과 서보통원은 개경 도성 입구의 동서 양쪽 간선도로 상에 설치되어 객관을 갖춘 사원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서보통원의 경

22) 『高麗史』 卷第128, 열전 제41, 반역 2, 정중부.

우 원 간섭기에 원에 다녀오는 국왕이나 원 고위 관료들이 개성에 들어오기 전에 머무르기도 했다.<sup>23)</sup>

## ② 파주 惠陰院[寺]

- 위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212-1 일원

혜음원은 개경과 남경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1120(예종 15)~1122년(예종 17)에 지어진 원관사원이다. 혜음원의 위치와 창건배경, 공사참여자, 공사과정을 알려주는 「惠陰寺新創記」를 보면 齋祠와 息宿, 廚庫를 갖추었고, 이듬해 인종이 즉위하여 ‘惠陰寺’라 사액하였으며, 이후 임금이 南京 행차시 유숙할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別院을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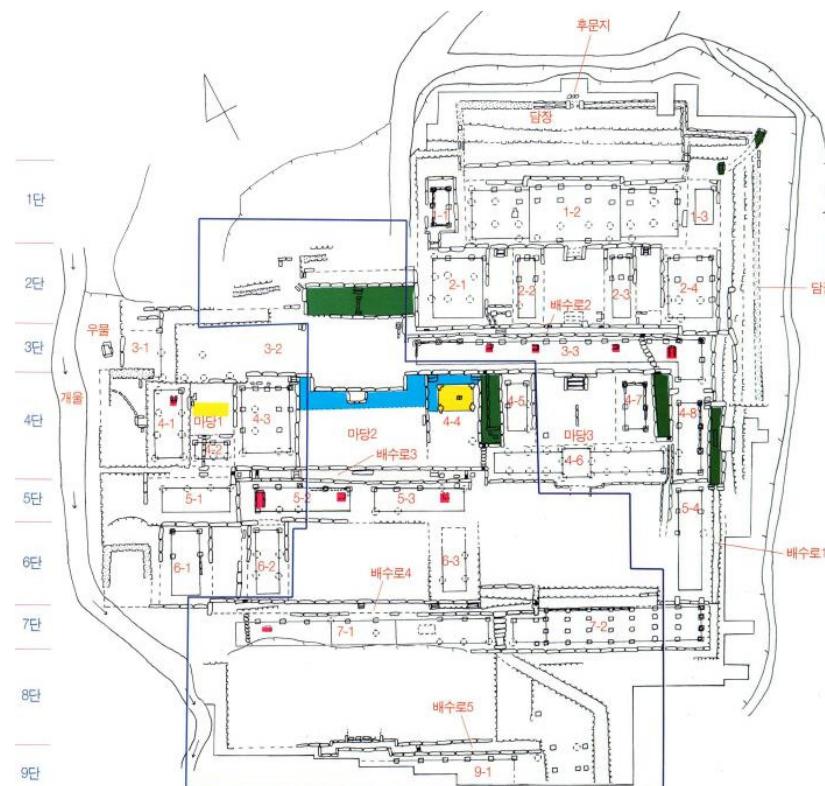


그림 9. 파주 혜음원지 배치도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4)

23) 『高麗史』 卷第34, 충숙왕1 즉위년 6월.; 고려사 권105, 열전 제18 홍자번.

2001~2016년까지 10차에 걸친 발굴조사결과 유적은 두 능선 사이에 형성된 계곡부에 여러 단의 축대를 쌓은 후 좌우로 불전을 중심으로 한 원지영역과 별원(행궁)영역으로 나누어 구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산 능선을 계단식으로 깎고 다져서 모두 11단의 건물터를 조성하였다. 둘레에는 기와를 얹은 담장을 설치하여 외부와 구분하였다. 담장 내부에는 현재까지 조사 결과 총 37동에 달하는 건물을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유구는 건물지, 우물지, 연못지, 배수시설, 담장지가 발굴되었고, 유물은 ‘惠陰院·惠陰寺’명 기와와 함께 용두, 취두, 귀면와, 막새, 청자, 중국자기, 금동불, 칠기굽접시 등이 출토되었다.

이중 원지영역은 불전으로 추정되는 3-3건물지를 중심으로 좌측에는 윤장대가 설치된 4-4건물지가, 우측에는 별도의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3-3건물지의 동쪽과 남쪽에는 정면 2칸마다 화덕시설을 갖춘 측면 1칸의 긴 건물지가 놓여 있다. 원지영역 상단에 배치된 별원(행궁)영역은 정전(정면 3칸, 측면 3칸)과 좌우익사(각 정면 2칸 측면 3칸)로 구성된 중심건물이 자리잡고 있으며, 전면에는 부속건물들이 마당을 둘러싸고 좌우대칭을 이루도록 배치되어 있고, 후면에는 후원이 있다.

혜음사의 창건은 임진도로의 활성화에 따른 유동 인구의 증가에 대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정요근 2006: 206~207), 혜음원이 가장 활발히 운영되었던 것은 12세기이며, 14세기 이후에는 대규모 화재로 건물이 무너지고 일부 지역만 복구되어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1240년대 몽고군의 침입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다른 역원들과 같이 국유화되면서 사찰의 기능이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6: 376~378).

### ③ 남경[서울] 三角山 沙峴寺[弘濟院+棲仁館]

- 위치 :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오충석탑 보물 166호 남아있음)

현종대 봉선홍경사가 건립되고 20년이 지난 1045년에 혜소국사 정현(972-1054)이 三角山 沙峴 고갯길에 사찰과 객관의 기능을 하는 沙峴寺를 창건하였다. 이후 왕은 사원과 객관에 각각 ‘弘濟院’과 ‘棲仁館’이라는 이름을 내려주었다.<sup>24)</sup>

24) 金顯, 「七長寺慧昭國師碑」(1060).

## 5. 군대 주둔지·훈련장소, 정치회합의 장소로 이용된 사원

개경의 방어를 담당한 군사시설은 궁성 안의 회경전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中房, 동쪽으로 中樞院, 궁성 밖에서 십자가와 맞닿은 官道 남쪽으로 兵部, 選軍 및 북쪽의 金吾衛·千牛衛·監門衛 등이 위치하고 있다. 개경의 방위구역은 대체로 四郊의 범위 내지만, 특히 자남산의 안쪽으로 빈번히 이루어지면서 수도방위시설이 집중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별도의 방위시설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사원 자체가 수도방위 거점시설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였기 때문이다. 즉 왕의 행차가 잦았던 사원은 교통의 요지나 전략적 요충지에 조성되었다는 지리적 요인과 더불어 왕의 안전을 위한 규모와 시설이 확충되면서 개경방어의 거점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점이 개경의 방위제도의 특징이다(전경수 2010: 433).

군대 주둔지나 훈련장소로 활용된 사원은 開國寺·國清寺·興王寺 등으로 대부분 開京나성 밖에 위치하여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었고, 이 공간이 군대의 수용에 용이하게 이용되었다. 개경성 밖의 사원들은 城이나 망루·식수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경의 보호시설로서 기능하였다. 또 지방과 연결되는 관문적 시설로서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점은 이를 사원이 개경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던 것과 연관된다. 이렇게 사원이 군사적으로 이용된 것은 수도 근처에 존재했기 때문이지만 국가의 공공기관과 같이 인식되었기 때문이다(박윤진 1998: 118).

정치회합의 장소로 이용된 사원은 개경 성내에 위치했다. 興國寺는 왕궁이나 兵部와 가까웠기 때문에 선택되었을 것이다. 충렬왕 때는 원에 대한 모반사건을 사원에서 국문하고 해결하였다. 원의 간섭에서 벗어난 후 우왕 때 국왕 출생의 비밀이라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을 때나 국왕에 대항하는 모임을 가질 경우 사원이 이용되었다. 李成桂가 위화도 회군으로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국왕에 반대하는 모임을 가질 때에도 사원을 이용하였다(박윤진 1998: 118~119).

## IV. 맺음말

본고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고려시대 開京과 京畿지역의 변화를 살펴본 후, 해당 지역 사원의 종파와 기능을 정리해 봄으로써 고려시대 개경과 경기지역 사원의 성격을 고찰해 보

려하였다.

‘京畿’라는 지명은 1018년(현종 9)에는 개성부를 폐지하고 開城縣令과 長湍縣令을 두어 尚書都省에 예속시켜 ‘京畿’라 하면서 비롯되었으며, 이후 문종대와 공양왕대에 관료(공양왕대는 신진관료)의 녹봉제도가 개편되면서 경기의 면적이 확대되었다. 곧, 고려시대 경기는 관료에게 지급하는 토지의 공급처로, 관료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경기의 공간적 범위가 변한 것이다. 이에 고려시대 경기지역 사원은 개경을 중심으로 확장되었으며, 오늘날 한양을 중심으로 한 조선시대 경기지역과 차이를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와 사료를 중심으로 고려시대 개경과 경기지역 사원의 종파와 기능을 살펴보니, 종파는 교종사원이 선종사원보다 더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능상으로는 願刹과 裨補寺社 · 資福寺, 院館寺院 등 국가와 왕실의 안녕과 대민통치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치적 목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고려시대라는 시대적 상황과 개경과 경기라는 지정학적 위치가 결합된 배경 하에 드러난 사원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발표문은 필자의 연구가 첫걸음인 상태에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한 한계가 있음을 밝히며, 향후 사료와 발굴자료간 검토와 남북한의 학술교류를 통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高麗史』.

『宣和奉使高麗圖經』.

『新增東國輿地勝覽』.

李智冠譯註,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 고려편1』,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4.

李智冠譯註,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 고려편2』,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5.

李智冠譯註,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 고려편3』,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6.

李智冠譯註,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 고려편4』,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7.

末松保和, 1996, 『高麗朝史と朝鮮朝史』, 末松保和朝鮮史著作集5, 吉川弘文館.

李炳燾, 1980(1947), 『高麗時代의 研究』, 亞細亞文化社.

韓基汶, 1998, 『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 민족사.

변태섭, 1971, 『고려정치제도사 연구』, 일조각.

- 박용운, 1996, 『고려시대 개경 연구』, 일지사.
- 김창현, 2012, 『고려 개경의 구조와 이념』, 신서원.
- 한강문화재연구원, 2010, 『서울 진관동 유적III』.
- 서울역사박물관, 2011, 『북한산 삼천사지 발굴조사보고서』.
- 한울문화재연구원 · 안양시, 2013, 『安養寺址』.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 파주시, 2006, 『파주 혜음원지 발굴조사 보고서』.
- 경기도박물관 · 기전문화재연구원, 2003, 『檜巖寺II』.
- 기전문화재연구원 · 양주시, 2003, 『楊州 官衙址II』.
- 경기문화재연구원 · 양주시, 2009, 『楊州 官衙址III』.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2991, 『北韓文化遺跡發掘概報』.
- 鄭軒根, 2008, 「高麗 · 朝鮮初의 驛路網과 驛制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李承蓮, 2011, 「신라말~고려전기 선종사원의 상원영역 형성에 관한 연구 -法堂의 출현과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병인, 2010, 「고려시대 行旅와 遊覽의 소통공간으로서 사원」, 『역사와 경계』 74, 부산경남사학회.
- 남동신, 2011, 「고려중기 왕실과 화엄종」, 『역사와 현실』 79, 한국역사연구회.
- 박윤진, 1998, 「高麗時代 開京一帶 寺院의 軍事的 · 政治的 性格」, 『한국사학보』 3·4, 고려사학회.
- 신안식, 2004, 「고려시대 개경의 ‘四郊’와 그 기능」, 『明知史論』 14 · 15합집, 한국역사민속학회.
- 신안식, 2013, 「高麗 開京의 ‘都內와 郊’」, 『역사민속학』 18, 한국역사민속학회.
- 심승구, 2015, 「경기(京畿)를 통해 본 서울의 정체성 - 고려와 조선의 경기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56, 2015.
- 안병우, 1997, 「경기제도(京畿制度)의 성립과 경기의 위상」, 『경기도 역사와 문화』, 경기도사편찬위원회.
- 우성훈, 2016, 「개경의 도시 변화와 지배구조 개편의 관계에 관한 검토」,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31(3), 대한건축학회.
- 이승연, 2017, 「청담사지 유구의 성격과 의의」, 『청담사지 보존 · 활용 기본계획 수립 학술연구보고서』, 덕성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전경숙, 2010, 「고려시기 개경의 군사시설과 방위구역」, 『한국중세사연구』 28, 한국중세사학회.
- 鄭軒根, 2006, 「高麗中後期 ‘臨津渡路’의 浮上과 그 영향」, 『역사와 현실』 59.
- 조신성, 1988, 「高麗 兩界의 國防體制」, 『高麗軍制史』, 육군본부.
- 崔柄憲, 1981, 「高麗中期 玄化寺의 創建과 法相宗의 隆盛」, 『韓沽勵博士停年記念史學論叢』, 知識產業社.
- 최연식, 2013, 「高麗時代 高僧의 僧碑와 門徒」, 『한국중세사연구』 35, 한국중세사학회.
- 최연식, 2016, 「고려시대 院館 사찰의 출현과 변천과정」, 『이화사학연구』 제52집,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학연구소.
- 韓基汶, 2006, 「高麗時代 牽補寺社의 成立과 運用」, 『한국중세사연구』 21, 한국중세사학회.

## 토론

### 「고려시대 경기지역 사원의 성격」에 대한 토론문

한지만 | 명지대학교

먼저 경기 천년 및 고려 건축 천백주년을 맞이하는 2018에 즈음하여,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다방면에 걸친 고고학적 조사와 연구 성과를 짚어보는 뜻깊은 자리에 토론자로 초대를 해 주신 한국중세고고학회와 경기문화재단에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고려시대 경기지역 사원의 성격에 대하여 발표를 해주신 이승연 박사님은 신라 말에서 고려 전기에 이르는 시기의 선종사원을 대상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건축역사학과 고고학을 넘나들며 활발한 조사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존경하는 연구자입니다. 따라서 이승연 박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고려시대 경기지역 사원의 성격에 대한 발제자로는 최고의 적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승연 박사님이 정리한 글을 보면, 먼저 고려시대의 개경과 경기지역의 행정구역상 범위의 변화와 확립 과정을 파악하고, 다음으로 이들 지역에 분포했던 것으로 확인 및 추정되는 사원을 먼저 종파별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당시의 사회적 기능을 중심으로 원찰(願刹), 비보사찰 및 자복사(資福寺), 원관사원(院館寺院), 군사주둔 및 정치회합 사원으로 세분하여, 각 종류별로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사람의 구성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시간에 일과 후의 시간을 내어 방대한 문헌사료와 선행연구 및 발굴조사자료를 분석하여 정리하느라 고생한 흔적이 역력히 묻어나는 글이었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이승연 박사님이 제시한 사원의 분류 기준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위로는 왕실에서부터 아래로는 서민계층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이 불교를 깊게 신봉했던 고려시대의 행정과 경제 및 문화적 중심지였던 경기 일대에 분포해 있던 사원의 분류기준으로는 매우 적확한 것으로 공감이 됩니다. 특히 종파별 왕실 원찰과 비보사찰, 그리고 군사 및 정치적 회합 장

소로서의 사원은, 고려의 도성 개경과 인근 경기지역 사원의 성격을 잘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정리된 개경과 고려시대 사원 유구의 현황에 대하여 그 특징을 확인하려면, 당시 타지방에서 경영되었던 사원에 대한 조사, 분석 및 비교 고찰이 필요한데, 이것은 단발성 연구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긴 호흡이 필요한 것입니다. 설령 그러한 연구를 진행했다고 해더라도, 고려시대 경기지역의 사원만이 가지는 팔목할만한 특징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시 본 발표로 돌아와서, 저는 오늘 이승연 박사님의 발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고려시대 경기지역 사원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원찰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고려시대 개경과 경기지역에는 다양한 종파의 원찰이 경영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며, 주요 사원별로 주석했던 승직의 직급을 보면 당시 해당 사원이 가졌던 불교계에서의 위상도 추정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승연 박사님께 발굴유구에서 혹시 원찰을 특징짓는 요소들로 확인되는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종파와 관련하여 발표문의 표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제 원찰 중에서 선종으로 분류되는 사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아도 되는지 여부, 그리고 만약 그러하다면 그 이유에 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역시 원찰로 분류되는 사원의 하나인 장단의 불일사 유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불일사 서편구획의 건물 유구 중에서 ‘강당지’로 추정되고 있는 유구의 평면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통상 건물의 정면 기둥간격은 중앙간이 가장 넓고 좌우 끝간이 가장 좁은데, 이 경우는 반대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내부에는 다시 이중으로 기단열이 잔존하고, 내과 북측 기단열 중심부에는 건물 둘레의 초석열과 상이한 배치를 보이는 기초석(혹은 불대좌 기초부?) 3기가 있으며, 이밖에 건물 내부에서는 초석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강당의 평면도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어떤 특수한 기능을 수용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도 읽힙니다. 고려시대 불일사가 가졌던 여러 가지 기능과 연관지어 이승연 박사님께서는 이 유구의 성격에 대해 혹시 고견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 고려전기 경기의 설치와 그 의미

신은제 | 동아대학교

## | 목차 |

- I. 머리말
- II. 성종 14년 赤·畿縣의 설치
- III. 현종 9년 京畿의 설치
- IV. 문종대 경기제의 변화
- V. 맺음말

## I. 머리말

고려·조선시기 왕의 교화와 통치의 중심지는 왕이 거처하는 京과 경을 보위하는 畿로 구분된다. 경은 천자가 거주하는 도읍을 말하고, 기는 천자가 직접 통치하던 도읍 주변 1천리의 땅을 가리킨다. 이를 국가 통치제도로 편제한 것은 당나라 때부터이다. 당나라는 도성이 관할하는 지역을 赤縣으로, 도성 주변지역을 畿縣으로 구분하였다. 적현에는 萬年縣과 長安縣 2현을 두었고 기현에는 함양현 등 21개 현을 두었다.

고려시대 경기제에 대한 연구는 제도적 측면에서의 검토<sup>1)</sup>가 이루어 진 후, 유교적 통치이념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sup>2)</sup> 최근에는 개경의 도시변화에 따른 경기제의 변화를 추적한 연구가 나와 경기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하였다.<sup>3)</sup> 이 연구는 개경의 도시변화에 따라 경기의 편성 역시 변화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상업과 교역체계를 중심으로 개경을 검토하였고 그와 연관시켜

1) 변태섭, 「고려시대 경기의 통치제」, 『고려정치제도사연구』, 일조각, 1982.

2) 정학수, 『고려전기 경기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3) 정은정, 『고려7시대 개경의 도시변화와 경기제의 추이』,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고려 개경·경기 연구』, 혜안, 2018.

경기제의 변화를 추적하였다. 다만 개경도시의 변화를 주요변수로 설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성과를 참고하여 이 글에서는 고려전기 경기제의 변화 양상과 그 배경을 살펴보려 한다. 특히 경기제와 같은 제도의 설치목적에 주목하여 논지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경기제의 목적을 파악하는 데 있어 鄭道傳의 견해가 주목된다. 정도전은 『朝鮮經國典』을 저술하여 조선의 통치규범을 제시하였다. 6전 체제에 기초한 이 名著에서 정도전은 국가 재정 운영과 관련된 항목을 賦典에 기술하였다. 이 부전이 첫 항목이 바로 ‘州郡’이다. 정도전은 왕이 통치하는 땅을 京邑과 ‘股肱之郡’으로 구분한 뒤, 경읍을 둘러싼 여러 주군들이 역역과 공부를 내어 나라를 지탱한다고 생각했다.<sup>4)</sup> 따라서 정도전에게 경읍과 지방의 구분은 국가 통치 특히 수취와 관련된 핵심적 사안이었다.

주군의 설치는 호구와 토지조사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지방 州縣에 대한 ‘置邑’이 賦典과 유관한 문제라는 점은 본관제에 대한 연구에서 이미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sup>5)</sup> 고려는 건국 후 순차적으로 전국 각지에 대한 호구조사와 양전사업을 실시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치읍’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京-畿-地方州縣’의 구획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재정적 운영과 밀착된 문제이다.

물론 모든 것을 재정으로 환원할 수는 없다. 왕이 거주하는 공간과 그의 통치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공간인 京이 가진 정치적 의미를 무시할 수 없다. 또 지방의 구획은 역역 징발의 기준즉 군역의 문제와 유관하여 국방의 문제와 직결된다. 이렇게 보자면 ‘경-기-지방주현’의 구획은 보다 다층적 차원의 논의를 필요로 하는 난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기서는 고려전기 경기의 설치 과정과 그 의미를 검토하려 한다. 경기의 설치와 변화가 지방제도의 개편과 연관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지방 편제를 국가 재정의 문제와 연관시켜 5논지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

4) 『三峯集』 권8, 朝鮮經國典 賦典 州郡.

5) 채옹석, 『고려시대 국가와 지방사회』, 서울대 출판부, 2000.

## II. 성종 14년 赤·畿縣의 설치와 그 배경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은 자신의 근거인 송악을 수도로 삼아 고려를 통치하였다. 『高麗史』 지리지에 의하면 왕경개성부는 본래 고구려의 扶蘇岬이었는데 신라 때 송악군으로 개편되었다가 태조 2년에 송악산의 남쪽에 도읍을 정하고 開州라 칭했다.<sup>6)</sup> 『세종실록지리지』도 이 내용에 따라 송악군에 도읍을 정하고 개주로 승격시켰음을 기술하고 있다.<sup>7)</sup> 다만 『新增東國輿地勝覽』 개성부조에 의하면 태조 왕건은 부소갑 즉 송악군과 冬比忽 즉 개성군을 합하여 개주를 설치하였다.<sup>8)</sup> 따라서 태조는 자신의 世居地였던 송악군과 인근의 개성군을 통합하여 개주를 설치하였다. 이후 광종이 개주를 황도라 칭했다. 하지만 도읍은 정했지만, 고려 전역을 체계적으로 구획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주지하듯이 고려는 지방 호부총들을 통합 혹은 제압하면서 건국되었다. 따라서 고려 건국 이후 시급한 과제는 호부총들이 통치하고 있던 지역들의 통치였다. 비록 군사적 우위를 통해 해당 지역을 통제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해당 지역에 대한 통치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왕건이 각지를 통치한다는 것은 크게 보면 2가지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하나는 해당 지역에 대해 수취를 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해당지역의 민들에 대한 직접 사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었다. 전자는 호구조사와 양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후자는 지방관 파견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이 가운데 보다 중요한 사안은 호구조사와 양전을 거쳐 해당지역을 편제 즉 ‘置邑’하고 그에 따라 수취를 단행하는 것이었다. 고려초 호구조사와 양전에 의한 치읍은 지역적 상황에 따라 시기적 차이를 보인다.<sup>9)</sup> 상이한 시기에 이루어진 치읍이 완성되는 시기는 대략 성종 14년으로 당나라 제도에 입각한 지방제가 개편된 시기이다.<sup>10)</sup>

성종 14년 唐制를 채용한 지방제도의 개편과 더불어 황도 개주도 새롭게 당나라 식으로 개편되었는데 당의 京兆府에 해당하는 開城府를 두고 그 예하에 6개의 赤縣과 7개의 畿縣을 두었다. 이른바 경기제의 전범이 완성된 것이다. 13개의 적현과 기현은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지 않아 확인할 수는 없으나 현종대 개편된 12개현, 즉 개성현, 貞州, 德水縣, 江陰

6) 『고려사』권 56 지리지 왕경개성부

7) 『세종실록지리지』권 148, 개성유후사

8) 『신증동국여지승람』권 4 개성부

9) 채옹석, 앞의 책, 69~79쪽.

10) 채옹석, 앞의 책, 78쪽.

縣, 長湍縣, 松林縣, 臨津縣, 兔山縣, 臨江縣, 積城縣, 坡平縣, 麻田縣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이해된다.<sup>11)</sup> 문제는 이들 현 가운데 어떤 현이 6개의 적현이고 7개의 기현인가이다.

윤무병은 왕경과의 거리, 왕릉의 소재 등을 근거로 송악, 개성, 덕수, 임진, 정주, 송림을 적현으로 간주한 반면<sup>12)</sup>, 정학수는 개성 도성내부인 京內, 개주 관할 영현이었던 개성현, 덕수현, 임진현, 송림현, 강음현을 적현으로 이해하고 나머지 정주, 장단현, 토산현, 임강현, 적성현, 파형현, 마전현을 기현으로 이해했다.<sup>1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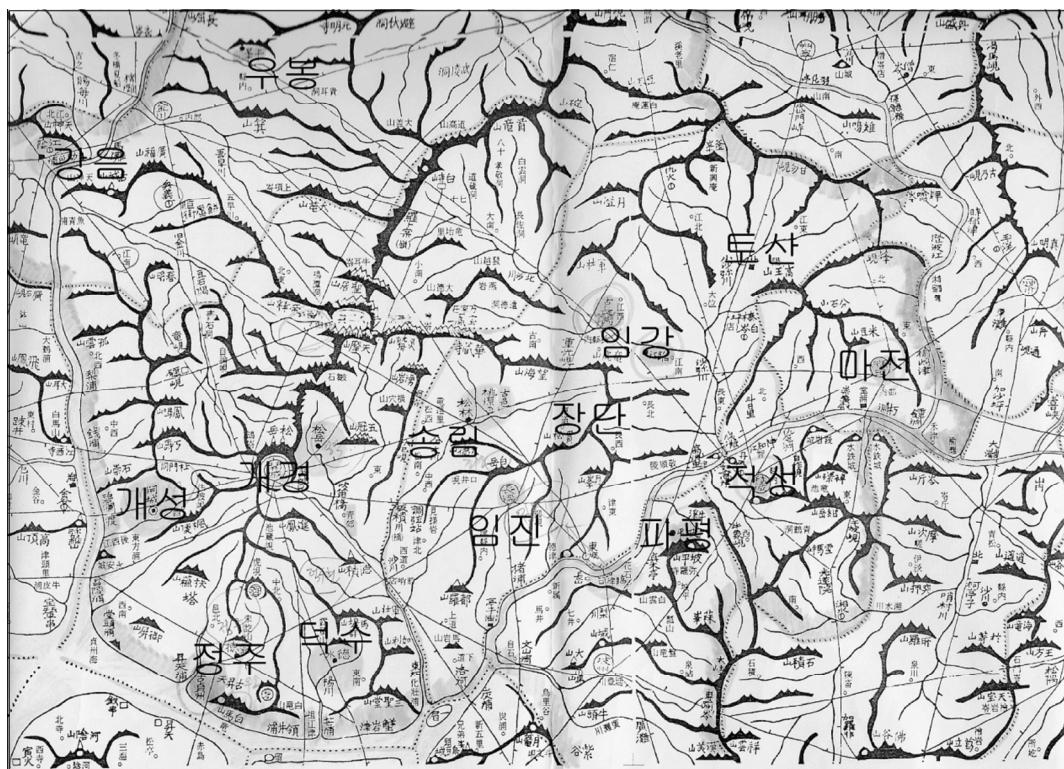


그림 1. 대동여지도의 경기 12현(정학수, 『고려전기 경기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95쪽 재인용)

성종 14년 적·기현 제도 정비가 성종 14년 군현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조치라는 데 연구자들의 이견은 없다. 주목되는 바는 이러한 개편의 배경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군

11) 변태섭, 앞의 책, 242쪽.

12) 윤무병, 「소위 적현에 대하여」, 『이병도화감기념논총』, 일조각, 1956. 정은정 역시 이견해를 수용하였다.(정은정, 앞의 책, 111쪽)

13) 정학수, 앞의 논문.

현제도의 개편은 치읍의 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므로 기본적으로 성종 14년 군현제의 개편과 적·기현제의 실시는 호구조사와 양전이 이 시기에 와서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sup>14)</sup> 물론 성종 14년 군현제 개편을 호구조사와 양전의 결과로 간주할 수만은 없다. 유교적 통치 이념의 지향과 같은 국가 통치 이상이 역으로 지방제의 개편을 유도하기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방에 대한 지배는 해당 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 파악을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호구조사와 양전을 기본 전제로 하였을 것이다.

성종 14년 군현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사항은 목종원년에 실시된 전시과의 개정이다. 성종은 재위 15년 10월 왕위를 조카인 목종에게 선위한 뒤 사망하였다. 이어 즉위한 목종은 원년 3월에 安逸戶長에게 호장 직전의 반을 내려주었으며, 그해 12월 전시과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였다. 목정이 개정한 전시과는 부친 경종이 만든 전시과와는 근본적 차이가 있었다. 주지하듯이 목종대의 전시과는 성종대의 관제개편에 기반한 것이다. 성종 14년 처음으로 문무 관계를 나누어 문산계를 도입하였다.<sup>15)</sup> 이러한 관계의 개편을 기반으로 18과의 전시과가 개정되었을 것이다. 한편 전시과의 개정은 양전을 전제로 한다. 전국적인 양전과 군현의 구획이 정비되지 않으면 관료들에게 토지를 지급하는 전시과 제도는 시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성종 14년 군현제도의 정비와 그 일환으로 이루어진 적현과 기현의 설치는 모두 이전까지 호구조사와 양전 그에 따른 치읍의 결과로 이해된다.

한편 성종 14년 적·기현제, 지방제도 개편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군사적 성격의 강화이다. 절도사제도와 같은 군사적 성격의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적·기현 역시 군사적 성격이 내포되어 있었는데 왕경은 적현, 기현 그리고 적현과 기현을 둘러싸고 있던 關內道에 의해서 중첩적으로 보호받고 있었다.<sup>16)</sup> 성종 14년 군현제 개편과 적·기현제도의 개편이 군사적 성격을 가지게 된 원인은 거란과의 긴장이 자리하고 있다. 성종 12년 거란의 1차 침입이후 고려와 거란의 군사적 긴장은 지속되고 있었고 이는 부분적으로 고려 지방제 개편에 군사적 성격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성종은 거란의 침입이후 元郁을 송나라에 보내어 군사를 얻어 거란에 보복하려 했으나 송의 반대로 실패하였다.<sup>17)</sup> 이에 성종은 서희를 보내 여진을 몰아내고 長城鎮과 歸化鎮에 성을 쌓아 국방을 강화했다.<sup>18)</sup> 따라서 적·기

14) 채웅석, 앞의 책.

15) 『고려사』 권77, 백관 문산계.

16) 정은정, 앞의 논문, 84~87쪽.

17) 『고려사절요』 권2 성종 13년 6월.

현의 설치와 그를 둘러싼 관내도의 설치는 거란과의 긴장이라는 상황에 대한 반영이었다.

### III. 현종 9년 경기의 설치

성종 14년 설치된 적·기현은 현종대에 와서 京-畿로 개편된다. 현종 9년 개성부가 혁파되고 대신 開城縣과 長湍縣에 현령을 두었으며 개성현은 정주, 德水縣, 江陰縣을 관할하고, 장단현은 松林峴, 臨津縣, 兔山縣, 臨江縣, 積城縣, 坡平縣, 麻田縣을 각각 관할했다. 현종 9년 경기제의 개편이 가진 가장 주요한 특징은 京內가 적·기현으로부터 분리되어 5부 방리를 중심으로 새롭게 정비되고 경을 둘러싼 12개 현을 경기로 삼았다는 점이다.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이었던 개성현과 장단현은, 다른 지역의 주현들이 경·목·도호와 같은 계수관에 예속된 것에 반해, 직접 상서도성에 예속되었다.

현종 9년 경기제의 개편은 각도의 安撫使를 폐지하고 4都護·8牧·56知州郡事·28鎮將·20縣令을 둔 조치<sup>19)</sup>와 더불어 시행된 것으로 이해된다.<sup>20)</sup> 현종 9년 지방제도 개혁은 기본적으로 ‘주현-속현’ 운영체계를 확립한 것<sup>21)</sup>으로 계수관제의 확립, 丁數에 따라 읍격을 편제하는 방식을 확대한 것이기도 하다.

현종대 지방제의 정비는 성종 14년 이후 시도된 지방지배인 주·현제를 통해 지방세력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에 실패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수립되었으며, 이는 목종대 이후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 한 지속적 노력의 결과로 간주되어 왔다. 또 절도사에 의한 군사적 기능은 약화되고 민정 중심의 운영 체계를 구현한 것으로 이해된다.<sup>2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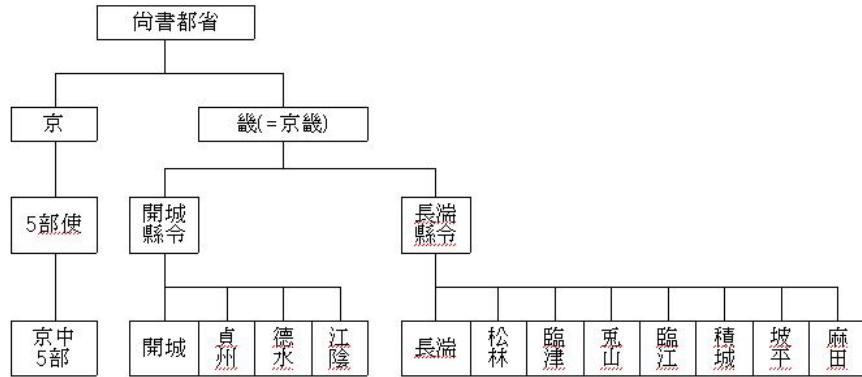
18) 『고려사절요』 권2 성종 13년 8월.

19) 『고려사절요』 권3 현종 9년 2월.

20) 변태섭, 앞의 책, 245~246쪽; 정학수, 앞의 논문, 141쪽.

21) 윤경진, 『고려 군현제의 구조와 운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159~179쪽.

22) 구산우, 『고려전기 향촌지배체제연구』, 혜안, 2003, 165~181쪽.



현종 9년 경기의 행정체계(정학수, 앞의 논문, 147쪽 표4-3 재인용)

현종 9년 지방제 개혁의 의미를 이상과 같이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경기지역은 왕이 거주하는 특별한 지역이라 지방세력에 대한 통제 등과 무관할 뿐 아니라, 수취방식 등 여러 면에서 지방과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성종대 적·기현제를 혁파하고 京內와 인근의 고을을 구분한 이유가 설명되어야 한다.

현종대 경기제로의 개편 배경에 대해 도성 안과 밖을 분리하여 지배를 강화하는 방향을 취했을 것이라 해석<sup>23)</sup>하기도 하나, 개성부의 폐지가 지배의 강화와 연결시킬 수 있을지, 나아가 지방제의 재편과 왕경 주변지역의 재편을 같은 방향에서 논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논증이 필요해 보인다.

현종 9년 경기제의 개편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은 현종대 거란과의 관계와 성곽의 축조이다. 강조의 변란과 더불어 목종이 폐위되고 왕위에 오른 이가 현종이다. 현종의 즉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이는 거란이었다. 성종 12년 거란의 연호를 사용하기로 하였음에도 고려는 거란의 침략을 대비해 북방에 성을 수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거란에 대응해 왔다. 목종대에도 성곽의 수축을 계획하지 않았는데, 『고려사』 병지에는 목종대 비교적 활발한 북방 지역 축성기록이 확인된다. 성곽의 축성이 북부 지방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현종은 즉위 후 羅城의 축조를 결정했다.<sup>24)</sup>

이러한 상황에서 거란은 목종의 폐위와 현종의 즉위를 빌미로 침공해 왔다. 거란의 2차

23) 정학수, 앞의 논문, 142쪽.

24) 『고려사』 권4 현종 세가 현종 즉위년 3월.

침입이 시작된 것이다. 거란주가 직접 보병과 기병 40만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흥화진을 포위하여 고려군과 접전하였고 通州(지금의 평안북도 선천군)에서 강조를 사로잡은 뒤 곽산을 함락시키고 청천강을 건너 서경을 함락했다. 서경이 함락되자 왕은 개경을 버리고 남쪽으로 피난길을 떠났다.<sup>25)</sup> 이듬해 거란주는 개경으로 난입해 태묘과 궁궐을 불태우자 왕은 나주까지 피난가야 했다. 왕의 피난과 무관하게 개경을 불태운 거란군은 곧장 말머리를 돌려 퇴각했고 한 달이 되지 않아 압록강을 건너 퇴각했다. 이에 왕은 다시 어가를 개경으로 돌렸고 한 달여 만에 개경으로 환도했다.<sup>26)</sup> 환도한 뒤 현종은 거란의 침입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황성인 송악성을 충축하였다.<sup>27)</sup> 거란의 함락으로 피해를 입은 개경에 대한 정비는 현종 5년 社稷壇의 수리<sup>28)</sup>에서 확인되듯이, 이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되었을 것이다.

한편 거란과의 긴장은 계속 유지되었는데 거란이 압록강에 교량을 가설하고 다리 좌우로 성을 쌓았으며 흥화진을 포위하고 통주를 공격해 왔다. 북방의 변방은 거란의 침략으로 1년 가까이 이어지자, 현종은 郭元을 송나라로 보내 구원을 요청하기까지 했다.<sup>29)</sup> 그러나 송나라는 거란과 화목하게 지내라는 실망스러운 답변을 보내었고 고려는 거란과 거듭되는 전란에 직면해 있었다. 거란은 현종 6년 1차례의 대규모 침략이후 현종 9년 12월에 蕭遜寧이 10만을 거느리고 침략해 왔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현종 9년 경기제의 개편은 거란의 압박이 강력해 지던 시점에 이루어진 조치이다.

거란과의 군사적 대결이 임박해 있던 현종 9년, 경기제의 개편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현상은 나성의 축조이다. 나성은 현종 즉위년 수축이 계획되었으나 거란의 침략으로 한동안 유보되었다가 다시 축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성은 낙성까지 21년 소요되었다는 현종 20년 8월의 기사를 고려하면<sup>30)</sup> 현종 즉위년 계획과 더불어 수축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성이 높다.<sup>31)</sup> 『고려사절요』에 의하면 나성은 姜邯贊의 건의로 축조가 시작되었고 王可道가 축성의 책임자였다.<sup>32)</sup> 나성의 축조는 경도에 성곽이 없는 것을 우려한 강감찬의 건의로 시작되

25) 『고려사』 권4 현종 세가 현종 원년 11월조의 기사를 참조.

26) 『고려사』 권4 현종 세가 현종 2년 정월, 2월조의 기사를 참조.

27) 『고려사』 권4 현종 세가 현종 2년 8월 기사일.

28) 『고려사』 권4 현종 세가 현종 5년 7월 경인일.

29) 『고려사』 권4. 현종 세가 현종 6년 11월 갑술일.

30) 『고려사』 권4. 현종 세가 현종 20년 8월 갑인일.

31) 『고려사』 지리지에 의하면 나성은 현종이 처음 즉위하여 정부 304,400명을 동원하여 축조하였다고 한다.(『고려사』 권56 지10 지리 왕경개성부 현종 20년, “二十年, 京都羅城成【王初即位, 徵丁夫三十萬四千四百人, 築之, 至是功畢. 城周二萬九千七百步--하략】”)

32) 『고려사절요』 권3 현종 20년 8월 “先是, 平章事姜邯贊以京都無城郭, 請築之, 可道初定城基”

었지만, 나성을 축조하게 된 배경은 거란의 압박이 적지 않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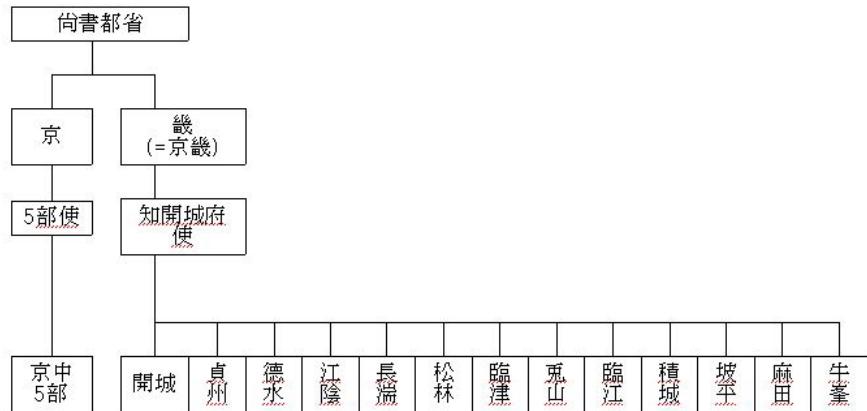
그런데 성곽의 축조는 단순한 방어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만리장성에서 확인되듯이 성곽의 축조는 공간의 구획을 결정한다. 즉 나성이 축조되면 이제 나성의 안과 밖은 명확하게 공간적으로 구획될 수밖에 없다. 즉 나성의 안은 皇都의 영역 즉 京內가 되고 나성의 외부는 畿가 되는 것이다. 비록 나성이 현종 20년에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종 즉위년 나성의 축조가 계획되었다면 나성을 경계로 한 구획은 현종 즉위년 이미 기획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京內 즉 나성 내부의 행정구획인 5부 방리 역시 나성이 완공되기 5년 전인 현종 15년에 정비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고는 단지 가능성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나성이 환공되기 전 이미 나성 내부의 공간이 구획되었다면, 나성이 계획되고 수축되고 있을 때 현종은 이미 경과 기를 구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자면, 현종 9년 경기제의 성립은 거란의 압박에 따른 나성의 축조와 그로 인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비록 나성이 현종 20년에 완공되었다고 하더라도 계획이 현종 즉위년에 수립되었다면 성곽의 축조는 현종 9년 이전부터 시작되었을 것이고 그 성곽의 경계를 기준으로 경과 기를 구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현종 9년 성종의 황성에 근거하지 않은 적·기현제가 성곽에 근거한 경기제로 전환하게 된 주요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 IV. 문종대 경기제의 변화

고려의 경기제는 문종대 한차례 더 큰 변화를 갖게 된다. 문종 16년 知開城府事를 복구하고 상서도성에서 관할하던 11개현을 개성부에 소속시켰으며 서해도平州 임내에 있던 牛峯郡도 개성부에 예속시켰다.<sup>33)</sup> 문종 16년 개성부의 재설치는 일견 성종 14년으로의 회귀로 보이기도 하지만, 대다수 연구자가 인정하듯이, 경과 기를 구분한 현종 9년의 경기제를 보완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주목되는 점은 우봉군을 개성부에 소속시킴으로서 개성부의 관할 지역을 다소 확장하였다는 점이다. 그런데 우봉군의 경기지역으로의 편입은 곧이어 별어질 경기 확대 이른바 ‘대경기’의 서막이었다.

---

33) 『고려사』 권56, 지리 왕경개성부.



문종 16년 경기제(정학수, 앞의 논문, 153, 표4-5를 재인용)

『고려사』 지리지에 의하면 문종 23년 楊廣道, 交州道, 西海島의 41개 주현이 경기로 편입되었다. 양광도의 경우 漢陽 沙川 交河 高峯 豐壤 深岳 幸州 海州 見州 抱州 峯城 金浦 陽川 富平 童城 石泉 荒調 黃魚 富原 果州 仁州 安山 衿州 南陽 守安이, 交州道의 경우 永興 鬼山 安峽 僧嶺 朔嶺 鐵原이, 서해도의 경우 延安 白州 平州 俠州 新恩 牛峯 通津 安州 凤州 瑞興이 각각 경기도에 예속되었다.<sup>34)</sup> 이 기록의 수용여부는 논자들에 따라 이견이 있다.

이 기록이 공양왕 2년조의 세주에 나와 있다는 점, 41개의 주현명이 문종 당시의 원래 이름이 아니라 고려말 공양왕대의 그것으로 표기되었다는 점, 경기에 편입된 주현이 그 이후에 소속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예컨대 凤州는 문종 30년에도 ‘黃州牧管內 凤州’로 표기), 원래 경기 13현 가운데 하나인 토산현, 우봉현을 포함시킨 점 등을 들며 문종대 경기의 확대 즉 ‘대경기제’의 시행을 부정하는 견해<sup>35)</sup>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문종대 전시과 개정에서 확인되지 시지 지급지에 대한 규정이 ‘대경기제’의 영역과 일치한다는 점, 고려말 전제개혁 상소에서 문종대 ‘대경기제’ 실시가 언급된 점, 송나라의 제도를 수용하면서 송의 ‘대경기제’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문종대 경기도가 54현으로 확대되었다고 보기도 한다.<sup>36)</sup>

34) 『고려사』 권54 지리지 왕경개성부

35) 변태섭, 앞의 책, 252~253쪽.

36) 정은정, 앞의 책, 116~124쪽.

여기에 재반론이 나왔다. 대경기를 통제하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점, 확대된 시지지급 지역이 대경기 지역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점, 전시과 체제에서 토지분급지는 경기에 한정되지 않았던 점, 고려에는 개성부가 다시 설치된 이후 당과 송에서 실시한 경기채방사나 전운사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지적하며 대경기제의 실시를 부정하였다.<sup>37)</sup>

이러한 견해를 수용하며 보다 세심하게 대경기제를 부정한 연구도 있었다. 柴地는 공한지라 간주할 수 없으므로 시지를 공한지로 간주한 견해를 수용하여 경기개발 문제와 경기제 확대를 연결시킬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문종 23년 경기제 확대기사를 고려말 사전혁파론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만들어 낸 것으로 문종 23년(1069)의 기사는 공민왕 18년(1369)의 度田 즉 양전 기사였음을 주장한 것이다.<sup>38)</sup>

그러나 재반론도 결함이 있다. 우선 문종 23년조의 기사가 조선건국세력들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변경된 것인지부터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확실히 창왕 원년 이후 전제개혁에서 핵심적 논점은 경기 과전의 문제였다. 趙浚은 창원 원년 2차 상소에서 경기에 과전을 설치할 것을 주장했고 李穡을 필두로 文益漸 등은 조준에 맞서고 있었다. 공양왕이 즉위한 뒤, 역시 이색과 조준은 경기 과전의 문제로 대립하고 있었다.<sup>39)</sup> 공양왕 즉위년(1389) 이른바 조준의 3차 상소는 경기 과전의 원칙을 확정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므로 문종 때의 사례를 언급하며 논지를 강화하려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의도가 문종때 경기가 확장되었다는 점을 부인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려사』지리지에서 문종 23년 경기 확장의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경기제 부정론에서도 보자면 이 기사는 조선건국세력의 입장에서 사전 개혁을 강화하기 위해 공민왕 18년의 기록을 변경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가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고려사』찬자 혹은 지리지의 찬자가 조선건국 세력의 입장에서 전제개혁론을 옹호하였음을 논증해야 한다.

주지하듯이 『고려사』는 수차례의 교정과정을 거쳐 조선 문종 원년에 와서야 출간될 수 있었다. 출간과정에서 자신의 조상을 미화하려 한 권제와 체제의 개편을 위해 수차례 간행이 연기되었던 것이다. 때문에 『고려사』 출간될 당시 조준의 견해를 굳이 옹호하기 위해 그

37) 정학수, 앞의 논문, 178~179쪽.

38) 윤경진, 「『고려사』지리지 대경기 기사의 비판적 검토」, 『역사와 현실』69, 2008.

39) 전제개혁론을 둘러싼 정국의 동향에 대해서는 신은제, 「고려말 정국의 동향과 전제개혁론의 전개」, 『한국중세사 연구』32, 2014를 참조.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었는지의 문제는 별도의 논증을 필요로 한다. ‘以實直書’를 원칙으로 한 『고려사』에서 현재까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고려사』의 내용이 변질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고려사』 저술 당시 기록이 미비해 그 연대를 정확히 고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어도 의도적 수정의 사례를 찾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지리지는 그 저자가 명확한 유일한 志이다. 지리지는 梁誠之가 찬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40)</sup> 따라서 내용을 변경하였다면, 양성지가 사전개혁을 옹호하기 위해 저지를 일이 된다. 그러나 양성지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필자가 보기에도, 양성지 스스로가 문종대 경기가 확대된 것으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성이 높다. 다만 그것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어 공양왕 2년 기사의 세주로 처리하였을지 가능성도 있다. 경기 확장에 대한 양성지의 인식은 그가 편찬에 참여한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경기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文宗 16년에 다시 개성현을 府로 승격시키고, 또 西海道의 平州를 나누어 牛峯郡에 소속시켜 개성부에 예속시켰다. 忠烈王 34년에 별도로 開城縣令을 두어 府에 속하게 하고, 城外를 관장하게 하였다. 忠肅王 원년에 楊廣道라 하였다. 恭讓王 2년에 처음으로 경기를 左·右 도로 나누었다. 장단 임강 토산 임진 송림 마전 적성 파평을 좌도로 하고, 개성 상음 海豐 덕수 우봉을 우도로 했다. 또 文宗 때의 舊制에 의하여, 양광도의 한양 南陽 仁州 安山 交河 陽川 衿州 果州 抱川 瑞原 高峯과 交州道의 鐵原 永平 伊川 安峽 漣州 朔寧을 좌도에 예속시키고, 양광도의 富平 江華 喬桐 金浦 通津과, 서해도의 延安 平州 白州 谷州 遂安 載寧 瑞興 新恩 俠溪를 우도에 예속시켰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 의하면 공양왕 2년 경기 좌우도의 설치를 명확히 문종때의 구제에 의거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조준의 견해를 수용한 것으로 고려말 이해 여러 사람들에게 수용되고 있는 견해였다. 그렇다면 문제는 조준의 견해가 문종대의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가 공양왕 2년 개편되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주지하듯이 공양왕대에는 경기 과전을 원칙으로 하는 과전법이 수립된 시기이다. 공양왕 2년은 창왕 즉위와 더불어 시작된 量田에 따라 작성된 田籍을 급전도감에서 반포한 해이자<sup>41)</sup>, 이전에 있던 전적을 시가에서 불태운 해이다.<sup>42)</sup> 따라서 이 시기에는 이미 과전법 실

40) 『단종실록』 권8, 단종 1년 10월 경자일.

41) 『고려사절요』 권34 공양왕 2년 정월.

시를 위한 준비가 완료된 시기였다. 과전법은 경기 과전을 원칙으로 하였으므로 기왕의 경기 8현으로는 과전의 규모를 감당할 수 없었다. 때문에 경기도를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보자면 경기의 확대는 과전법의 시행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종대의 경기 확대가 주목된다.

문종대는 고려의 田制에서 몇 가지 중요한 조치들이 단행되었다. 우선 문종 23년 토지 측량의 기준을 보수의 따라 정하였다. 이른바 方33步를 1結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였다.<sup>43)</sup> 이러한 보수의 확정은 이 시기 대대적인 量田의 전조 혹은 결과로 이해된다. 그리고 양전은 조세수취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실제 문종 23년에는 田稅를 정하였다.<sup>44)</sup> 양전과 전세 확정은 전시과에도 영향을 미쳤다. 문종 30년 문무양반의 전시과를 다시 정했다.<sup>45)</sup> 따라서 문종대 양전과 전세책정 토지분급제의 정비는 고려말 창왕~공양왕대의 전제 개혁과 대단히 유사하다. 문제는 문종대 전시과를 다시 정할 때 경기가 확대되었는가이다. 이 문제와 관련한 핵심적인 기록이 문종 30년 전시과에서 시지의 분포지이다. 1일정과 2일정으로 기재된 분급대상 시지의 위치는 확장된 경기 즉 문종대 ‘대경기제’의 주요한 근거였다.

한편 고려전기 柴地는 空閑地 혹은 陳荒田으로 간주하기도 하나, 시지는 문자 그대로 땔나무를 채취하는 땅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온돌이 확산되어 있던 고려에서 땔나무의 채취는 생활에 필수적 요소였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규보는 좋은 주거지의 조건 중 하나로 땔나무를 채취할 수 있는 산을 꼽았다.<sup>46)</sup> 이렇듯 시지를 柴木를 채취하는 땅으로 간주하면, 시지를 官人的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外方에 두기는 어렵다. 운송 때문이다. 시목을 채취하는 땅인 시지를 먼 지방에 두고 이로부터 땔나무를 채취하여 개경까지 운반하기에는 수송비 부담이 너무 커졌다. 자기를 굽는 가마를 폐기하는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인근 지역에 땔나무가 부족해 질 경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목을 채취하는 시지는 개경 인근에 자리해야 했다.

그렇다면 문종대 시지를 지급하기 위해 대상지를 개경 인근 지역으로 확대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문종대 활발하게 산전이 개간되고 있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주지하듯

42) 『고려사절요』 권34 공양왕 2년 9월.

43) 『고려사』 권78 식화지 전제 경리 문종 23년.

44) 『고려사』 권78 식화지 전제 조세 문종 23년.

45) 『고려사』 권78 식화지 전제 전시과 문종 30년.

46) 『동국이상국집』 권23 記 四可齋記.

이 문종대 田品의 규정은 산전의 개간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사정의 반영이라는 점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는 연구자는 많지 않다. 고려전기 왕성하게 개간된 山田이 구체적으로 어떤 토지를 의미하지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平田에 대립하고 평전은 하천변에 위치한 토지<sup>47)</sup>라는 점을 고려하면 산전은 산 혹은 구릉부에 위치한 토지로 이해된다. 이러한 산전의 개간은 한편으로는 경작지의 확대를 의미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땔나무를 채취할 수 있는 초채지 즉 시지의 감소를 의미할 수도 있다. 문종대 전시과가 가진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로 시지의 감소가 꼽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전의 확대는 시지의 감소와 일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종은 시지의 분급대상지를 외곽으로 더 확대하였을 것이다.

목종, 문종대 전시과 지급액

과	목종 원년		문종 30년		비고
	전	시	전	시	
1	100	70	100	50	
2	95	60	90	45	
3	90	55	85	40	
4	85	50	80	35	
5	80	45	75	30	
6	75	40	70	27	
7	70	35	65	24	
8	65	33	60	21	
9	60	30	55	15	
10	55	25	50	15	
11	50	22	45	12	
12	45	20	40	10	
13	40	15	35	8	
14	35	10	30	5	
15	30		25		
16	27		22		
17	23		20		
18	20		17		

요컨대, 문종대에는 田品이 규정되었으며, 양전이 시행되었으며, 전세의 액수가 결정되었으며, 토지가 관료들에게 분급되었다. 이 과정에서 시지로 지급할 토지가 부족하게 되었는데 이는 고려전기 활발하게 진행되던 산전의 개간이 초래한 결과였다. 이에 문종은 시지

47) 신은제, 「고려시기 사회경제사 연구의 진전을 위한 모색」, 『한국중세사연구』38호, 2014.

로 지급할 토지를 기존의 경기 즉 元京畿가 아니라 인근의 고을로 확장했고 고려말 전제개혁론자들이 보기에 이것은 과전법 시행을 위해 경기를 확장한 것과 동일시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문종대 경기의 확대는 실체가 없는 일이 아니라 문종대 개간과 양전 등의 사건들 속에서 발생한 현상으로 생각된다. 다만 확대된 경기를 관할할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경기의 확장 혹은 대경기제로 명명하기 위해서는 공양왕 2년의 상황과 연관시켜 천착할 문제로 판단된다.

## V. 맷음말

고려가 건국한 뒤 태조 왕건은 자신의 세거지인 송악과 인근의 개성현을 통합해 개주를 설치하였다. 호족들을 한편으로는 제압하고 한편으로는 통합하여 고려를 건국한 태조로서는 고려 전역에 대한 체계적 통제를 실현하기 어려웠고 그것은 뒷날을 기약해야 했다. 고려 시대 지방을 본격적으로 제어하기 시작한 시기 성종대 부터였다. 성종은 이전시기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온 양전과 호구조사를 바탕으로 置邑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고 그 결과 성종 14년 일련의 제도개혁을 일단락 지을 수 있었다. 이 제도 개혁과정에서 성종은 당나라의 제도를 모방하여 전국을 10도로 나누고 개경을 6개의 적현과 7개의 기현으로 구분한 뒤 개성부로 하여금 관할하도록 했다. 성종대 적·기현제는 한편으로는 전국적으로 籍의 작성이 완료된 시기에 이루어 진 결과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거란의 위협이라는 상황에서 군사적 성격의 제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다.

성종대 마련된 적·기현제는 현종 9년 京과 畿를 구분한 경기제로 변화한다. 현종 9년 경내와 기를 구분하여 경은 5부로 구획하고 기는 12개 현을 나누고 개성현이 주현으로 3개의 속현을 관할하고 장단현이 주현으로 7개의 속현을 관할하였다. 이러한 체계는 현종 9년 완비된 주현-속현체계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현종대 경기제의 확립에서 보다 중요한 사항은 경내와 기가 구분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거란의 침입으로 개경의 복구가 필요했고 특히 송악성과 나성을 축조하여 공간적으로 京內와 京外가 구분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제도 개혁이었다.

경기는 문종대 다시 한번 변화를 맞는다. 비록 그 변화에 대해서 연구자들 사이에 논란은

있지만, 문종대 양전, 전품규정, 전시과의 분급과 더불어 개경 인근 지역에 대한 일정한 재 편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참고문헌

<<사료>>

『고려사』, 『고려사절요』,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三峯集』, 『동국이상국집』, 『단종실록』

<<논문>>

구산우, 『고려전기 향촌지배체제연구』, 혜안, 2003.

변태섭, 「고려시대 경기의 통치제」, 『고려정치제도사연구』, 일조각, 1982.

신은재, 「고려말 정국의 동향과 전제개혁론의 전개」, 『한국중세사연구』32, 201.

신은재, 「고려시기 사회경제사 연구의 진전을 위한 모색」, 『한국중세사연구』38호, 2014.

윤경진, 「『고려사』지리지 대경기 기사의 비판적 검토」, 『역사와 현실』69, 2008.

윤경진, 『고려 군현제의 구조와 운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윤무병, 「소위 적현에 대하여」, 『이병도화갑기념논총』, 일조각, 1956.

정은정, 『고려7시대 개경의 도시변화와 경기제의 추이』,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정학수, 『고려전기 경기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채웅석, 『고려시대 국가와 지방사회』, 서울대 출판부, 2000.

## 토론

**「고려전기 경기의 설치와 그 의미」에 대한 토론문**

정은정 | 부산대학교

문헌자료와 제도사적 접근에서는 여전히 고려 경기의 伸縮에 대한 논란은 상존한다. 경기 가 13현으로 고정적인가 유동적인가의 문제는 결국은 경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귀결된다.

경기는 적기 13현에서 출발하며, 시종일관 변함없이 유지된다는 견해는 왕실의 능묘 조성지가 임진강 예성강 일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기 12현에 분포하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에 비해 경기가 신축한다는 견해는 왕도를 지탱하는 경기의 다층화된 기보 기능에 주시한다. 처음 군사적 기보, 재분배 시스템의 정비에 따른 기보 역할의 요구, 거경시위자의 근린 생활권 조성 등 경기의 변화와 국가구심력의 길항이 권역의 신축에도 유기적으로 투영된 것으로 파악한다.

이처럼 고려 경기의 설치와 신축 여부를 둘러싸고 팽팽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경기 1000년의 역사성을 현종대 경기제에서 출발한다는데 견해가 모아진 가운데, 경기 제의 실체를 구명하려는 논의가 재부각되고 있다.

사실 경기의 영역 개발을 도시사적 관점에서 보려는 견해의 출발점은 문종대 전시과 시지의 경기 확대지급에 천착하면서 시작된다. 최근 조선시대 과전법을 새롭게 조망하는 가운데, 고려 문종조 전시과에 대한 재검토 또한 요구되고 있다. 전시과 제도와 문종조 대경기제의 상관관계를 깊이 다룬 연구로서 주목할 만하다. 다만 필자가 잠깐 언급하고는 있지만, 중세고고학회 발표인 만큼 발굴성과가 접목된 연구로까지 이어지지 못한 점은 아쉽다.

### 1. 연구의 개요

경기 1000년의 역사적 연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현종 9년의 경기 제도는 중요한 연결고

리이다. 본 연구는 고려 경기 설치의 의미를 정치적 측면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 설 것을 제안한다. 특히 정도전의 조선경국전이 국가재정 운영 항목을 부전에 기술하고, 부전의 첫 항목이 주군인 점, 경읍과 지방을 구분하여 국가통치 수취관련 사안을 제시한 점에 주목하였다. 경기 설치와 변화를 지방제도 편제, 국가재정 문제와 관련지어 검토하여 했다.

기존 연구에서 신분제적 예적 질서를 경기 공간에 투사하려는 측면에 천착하여 경기를 고정적인 것으로 보려던 견해와는 다소 다른 입장에 서 있다. 사실 경기를 신축하는 공간으로 보려할 때 핵심되는 부분은 문종구제로 표방되는 전시과 시지의 기내분급 여부와 추후의 흐름이다. 식화지 외관록 녹과전 토지지목, 사전구폐 등 일련의 전제를 제시해주면, 대경기를 적극 긍정하는 토론자로서는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듯하다. 또한 경기확장을 얘기할 단서는 고고학 자료로 인정되는 분묘군과 고급관인총의 일상생활유적 등이다. 이에 대한 논의를 기대했으나 사실상 발표 준비의 시간 상 제외된 듯하여 아쉽다.

2. 성종대 군현제 개편의 방향이 군사적 성격이며 왕경은 적현 기현 관내도에 의해 성립되었다. 적기현 성립의 배경을 거란침입으로 인한 방어망 구축만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다른 변수는 없는가. 현종 9년 경기제는 도성안팎을 구분하여 지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지만, 개성부의 폐지가 지배의 강화와 연결지를 수 있을지 또 다른 논증이 필요하다고 전제하였다. 나성축조와 행정구역 개편이 중심적 요인이라 했는데, 성곽 구분에 따른 경기제 설정이라는 측면은 현상일 뿐, 다른 부차적 요인과 결과를 설명해야 하지 않을까

3. 대경기를 부정하는 견해에 논리적 대응을 한 부분은 이를 긍정하는 토론자에게 상당히 반가운 부분이다. 필자는 문종 23년 기사가 문종구제를 표방한 조선건국세력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변경된 것인지, 고려사 기록 자체가 변질된 것이 아니었음을 꼼꼼히 따지고 있다.

고려사 출간 당시 조준의 견해를 옹호하기 위해 내용을 개변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며, 의도적 수정사례를 찾기 곤란하다는 지적을 했다. 혹 고려사 지리지가 오류가 있었다면, 양성지가 사전개혁을 옹호하기 위해서, 또 양성지 스스로 문종대 경기가 확대된 것을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제시한 의견은 모두 타당한 견해라서 토론자도 이견은 없다.

특히 문종대 시지 지급대상자를 개경 인근으로 확대한 이유를 산전개간에 주목하였다. 문종대 田品의 규정은 산전의 개간 사정을 반영한다. 山田의 지목이 논란이 될 것인데, 필자

는 대체로 산 혹은 구릉에 위치한 토지로 이해한다. 그렇다면 대경기내 산지 구릉지의 지역적 분포를 그려서 경기확대의 점진적 추이를 검토해 보는게 어떨까 싶다. 이는 전체적인 토지의 입지유형과 농업기술의 부분과 관련되는 것이라서 간단한 언급은 필요할 것 같다. 대체로 산 혹은 구릉에 위치한 토지로 이해된다. 산전개간으로 인해 경작지가 확대되며 한편으로 초채지 즉 시지가 감소된다. 문종대 전시과 특징 중 시지의 감소가 꼽힌다는 점에서 산전의 확대는 시지의 감소와 관련있으며. 이로 인해 문종은 시지의 분급대상지를 외곽으로 확대시켜 나갔다. 문종대 양전 전품규정 경기확대가 관련을 가지면서 개경 주변지역이 재편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4. 문종대 산전과 시지가 직접 연결될 만한 개연성은 있는가. 양전 전품규정이 실제 재정운영을 위한 전초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대경기의 성립과 재정운영의 문제를 보다 직접적으로 다루었으면 한다.

문종대 경기확대 이후 녹과전 분급까지 경기의 권역 변화를 설명할 틀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토지제도 부분과 군현제 방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다른 다양한 장치에서 점검할 필요도 분명 있다. 그런 점에서 문종대 경기확대와 영역의 신축을 염두한다는 입장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그런만큼 선생님의 문제의식을 기대한다.



# 고려시대 강화의 유적과 공간

이희인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 | 목차 |

- I. 머리말
- II. 강화의 위상과 유적
- III. 도읍의 공간
- IV. 군현의 공간
- V. 맺음말

## I. 머리말

919년(태조 2) 태조 왕건은 송악산 남쪽에 도읍을 정하고 開州로 삼았다.<sup>1)</sup> 내년이면 천백주년이 되는 고려의 開京 定都는 새 왕조의 수도가 정해진 것 뿐 아니라 한반도의 정치·사회·경제의 중심이 동남부에서 중부 지역으로 이동한 역사적 사건이기도 하다. 이후 왕조의 교체에 따라 도읍이 개경에서 한양으로 한 차례 옮겨졌지만 1,000년 이상 국가의 중앙이 한반도 중부에 자리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한편 고려시대에는 개경 주변에 왕도의 배후지로서 특별 구역을 설정한 京畿制가 시행되었다. 周代 봉건제의 王畿에서 비롯되어 唐代에 체계화된 경기제의 개념은 삼국시대에 수용되었으나 고려시대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京畿는 고려 중앙의 공간 범위가 되었다.<sup>2)</sup> 1018년(현종 9) 정식으로 경기라 불리기 시작한 지역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동에 따라 영역과 위상은 변화하였지만 수도 개경의 畿輔地域으로 역할을 이행하였고 이후 조선왕조 국토 운영의 밑바탕이 되었다.<sup>3)</sup> 이러한 맥락에서 고려 건국과 개경 정도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한반도 국토 운영에 있어 중대한 분기

1) 『高麗史』 卷56, 志 10, 地理 1, 王京開城府.

2) 정학수, 2006, 「고려 개경의 범위와 공간구조」,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4~51쪽 참조.

3) 신안식, 2003, 「고려시대 경기의 위상과 역할」, 『인문과학연구논총』25, 명지대인문과학연구소

점이라 볼 수 있다.

여타의 지방과 구분되는 차별적인 영역으로 개경과 경기는 400여 년 간 유지되었지만 13세기 몽골의 침입에 따른 강화 천도로 변화를 맞이한다. 강화는 유일하게 개경을 공식적으로 대체한 도읍이었다. 강도시기 경기제의 운영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강화는 개경에 대한 출입과 연구가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중세 도성”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sup>4)</sup> 그러면서 강화는 고려의 국토 운영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서도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강화에 대한 관심은 강도시기에 집중되어 있지만 강화는 일개 지방 군현에서 일약 도읍이 되었고, 경기에 포함되기도 하였던 지역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강화는 지방과 도읍, 경기로 이어지는 중앙과 지방의 위상을 모두 지녔던 이중적인 공간이며, 그래서 고려의 도읍과 지방 군현의 공간 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다.

이 글에서는 문헌에 나타나는 강화의 위상 변화와 공간 그리고 강도시기를 포함하여 최근 까지 지표·발굴 조사된 유적의 분포를 통해 강도시기와 전후의 강화의 공간에 대한 초보적인 검토를 시도 해보고자 한다.

## II. 강화의 위상과 유적

### 1. 시기별 위상

삼국시대 穴口(郡), 통일신라시대 海口(郡)로 불렸던 江華(縣)<sup>5)</sup>의 천도 이전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는 찾기 어렵다. 『고려사』 高麗世系의 기록<sup>6)</sup>을 토대로 강화가 일찍부터 왕건 세력의 배후지였다고 인식하기도 하지만<sup>7)</sup> 고려 건국세력과 연관이 있다는 정황은 잘 보이지 않는다.

844년(문성왕 6) 8월 강화에 신라 하대의 군진 가운데 하나인 穴口鎮이 설치된다.<sup>8)</sup> 이것

4) 윤용혁, 2017, 「강도사 연구의 쟁점」, 『강화고려도성 기초학술연구』 1,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10쪽.

5) 『三國史記』 卷35, 志4, 地理2, 漢州 海口郡.

6) 『高麗史』 高麗世系. “…白州의 유상희 등이 왕건의 조부인 作帝建을 위해 개주·정주·염주·백주 4주와 함께 강화·교동·하음 3현의 백성을 동원해 永安城을 쌓고 궁궐을 지어 주었다”

7) 김갑동, 2015, 「고려건국기 강화의 동향과 토착세력」, 『신편 강화사 증보』 상권, 145쪽.

으로 미루어 보면 강화는 적어도 9세기 중엽까지는 신라 중앙 정부의 영향권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게다가 왕건 세력이 귀부한 이후 궁예가 孔巖(양천), 黵浦(김포)와 함께 穴口(강화)를 격파한 사실을 감안하면<sup>9)</sup> 강화가 송악 지방을 근거지로 하였던 왕건 세력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932년(태조 15) 후백제 견훤이 예성강 일대를 공략하는 과정에서 인근 염주와 백주, 정주와 다르게 강화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sup>10)</sup> 당시 군사적으로도 강화의 중요성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 초 군현 개편 과정에서 군에서 현으로 강등된 사실도 고려 중앙의 강화에 대한 인식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sup>11)</sup>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천도 이전 강화의 위상을 알 수 있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강화를 물류의 집산지로 이해하지만<sup>12)</sup> 적어도 천도 이전 강화는 물류의 혜택을 입지 못한 지역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개경의 길목에 있지만 천도 이전까지 강화 韋氏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유력 성씨도 배출하지 못하는 사실은 강화가 경제적으로 실제로는 소외된 통과 도시였다는 것을 보여준다.<sup>13)</sup> 천도 이전 강화가 박술희와 왕규, 무신집권기 왕숙(강종)과 희종 등 정치적 인물의 유배지로 기록에 주로 등장하는 것은<sup>14)</sup> 강화의 정치·경제·군사적 위상이 그리 높지 않았다는 반증이라 하겠다.

다만 1018년(현종 9) 강화현에 지방관이 파견되는 점이 주목된다.<sup>15)</sup> 당시 군현 개편 과정에서는 태조~성종 대에 이미 지방관이 파견된 곳을 포함해 모두 47개 군현이 主縣이 되었는데 이 가운데 강화가 포함된 것이다. 현령이 파견됨으로서 강화현은 鎮江·河陰·喬桐 등 3개의 속현을 거느리는 고려의 강화 지역 통치의 거점이 된다. 고려 초에 위상이 높지 않았던 강화가 현종 9년 주현이 된 것은 지방 통치에서의 중요성이 인정되었음을 의미한다.<sup>16)</sup>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정치·군사적 의미보다는 지방제도의 성격이 행정을 기준으로 바뀌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sup>17)</sup> 강화의 위상이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후

8) 『三國史記』卷11, 新羅本紀11, 文聖王 6년 8월.

9) 『三國史記』卷50, 列傳 10, 弓齋.

10) 『高麗史』卷2, 世家 2, 太祖 15년 9월.

11) 염성용, 2015, 「고려전기 강화의 기상」, 『신편 강화사 증보』 상권, 172~181쪽 참조.

12) 정은정, 2009, 「고려시대 개경의 도시변화와 경기제의 추이」,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13쪽.

13) 김기덕, 2015, 「무인집권기 강화의 동향」, 『신편 강화사 증보』 상권, 197~199쪽.

14) 『高麗史』卷92, 列傳 5, 諸臣 朴述熙: 卷127, 列傳 40 叛逆 王規: 卷20, 世家 20, 明宗 27년 9월 : 卷21, 世家 21, 熙宗 7년 12월.

15) 『高麗史』卷56, 志 10, 地理 1, 楊廣道 江華.

16) 박종진, 2017, 『고려 지방제도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69쪽.

17) 박종진, 위의 책, 62쪽,

강화는『고려사』兵志에 의하면 인종 대 경기에 포함되는 등<sup>18)</sup> 위상의 변화가 일부 보이나 천도 이전까지 전략적·물류적 측면에서 주목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강화가 역사의 전면에 부각되는 것은 39년간 고려의 도읍이 자리하면서다. 1232년(고종 19) 7월 도읍을 옮긴 뒤 강화는 江都라 불렸고, 강화현은 군으로 승격되었다.<sup>19)</sup> 송악군의 영역에 개경이 자리하면서 개주라 칭한 것과 같은 맥락인 셈이다.<sup>20)</sup> 천도 이후 강도는 본궐과 별궁, 관아 등 통치 공간과 외성과 중성 등 성곽 그리고 능묘와 사원, 태묘와 같은 이념 공간이 개경을 모방해 건설되었다. 다만 강도시기에 경기제가 운영되었는지는 분명치 않은데, 배후 지역에 대한 정비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sup>21)</sup> 어쨌든 강화는 강도시기 정치·군사적 중심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운의 집결지가 되면서<sup>22)</sup> 경제적으로도 이전과 다른 차별적인 위상을 지니게 되었다.

1270년 강화는 다시 지방이 되었다. 몽골과의 강화 직후 내성과 외성이 헐리고<sup>23)</sup>, 환도 이후에는 元의 頭輦哥[튀렝게]가 민가를 불태우고 재물을 약탈하면서<sup>24)</sup> 많은 시설이 파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원이 지속적으로 강화의 사정을 살피면서 복구의 여지는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sup>25)</sup> 환도 후 20년이 경과한 1290년(충렬왕 16) 哈丹賊의 침입으로 강화로 피신한 충렬왕이 머문 곳이 궁궐이 아니라 선원사였다는 것은<sup>26)</sup> 강도의 주요 시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강화가 다시 왕실의 피난처가 되었다는 사실은 강도시기 이후 강화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고려 중앙의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 준다.

환도 직후 강화군의 읍격이 유지 혹은 환원 되었는지 분명치 않다. 다만 공민왕 재위시기 에 강화는 府로 승격 되는데<sup>27)</sup> 이는 고려 말 극성을 부린 왜구의 침입에 따라 개경 방어의

18) 정은정, 앞의 논문, 211~212쪽.

19) 『高麗史』卷56, 志 10, 地理 1, 楊廣道 江華.

20) 이희인, 2016, 『고려 강화도성』, 해안, 209쪽.

21) 정은정, 앞의 논문, 220쪽.

22) 박종진, 2002, 「강화천도 시기 고려국가의 지방지배」, 『한국중세사연구』제13호, 72~74쪽.

23) 『高麗史』卷24, 世家 24, 고종 46년 6월.

24) 『高麗史』卷26, 世家 26, 元宗 11년 7월.

25) 『高麗史』卷26, 世家 26, 元宗 11년 9월; 卷27, 世家 27, 元宗 13년 9월.

26) 『高麗史』卷30, 世家 30, 忠烈王 16년 11월.

27) 『고려사』에는 1377년(우왕 3) 강화부가 설치된 것으로 기록되지만 강화부사에 대한 기록이 공민왕 때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승격 시기는 우왕 이전으로 추정된다.(박종진, 2015, 「개경 환도이후의 강화」, 『신편 강화사 증보』, 364쪽)

요충지로서 강화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고려 말 강화와 교동은 조운의 일시적 집결지이자<sup>28)</sup> 개경의 관문으로 전국 군현 가운데 왜구의 침입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이다.<sup>29)</sup> 그 결과 공민왕~우왕 대 왜구의 출몰로부터 개경을 방어하기 위한 수군 중심의 방어체계에서 강화는 핵심적인 거점이 되었다. 한편 1390년(공양왕 2) 강화는 경기 右道에 포함되면서<sup>30)</sup> 縣內에 속하게 되었다.

요컨대 강화는 현종 9년 지방관이 파견되었으나 천도 이전 정치·군사·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려 중앙의 주목을 받았던 지역은 아니었다. 그러나 도읍이 이곳으로 옮겨지면서 강화에 대한 인식은 변화했다. 환도 이후 강화는 다시 지방이 되었지만 이전 시기와 달리 물류의 중간 집산지가 되었고 개경 방어의 전략적 거점이 되었다. 또, 고려 말에는 경기에 포함되는 등 시기별로 다양한 위상을 지니게 되었다.

## 2. 유적 현황

지금까지 강화도에서 강도시기를 포함해 고려시대에 조성 또는 운영된 것으로 파악되는 유적은 대략 80여 개소 정도다. 최근 강화읍 일대에서는 도로와 건축 공사,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都城과 고려시대 건물지가 여러 곳 발굴되었고 강화 북부의 하점·양사·송해면 일대에서 강화~인화 간 도로 개설에 따른 조사에서 건물지와 분묘 유적이 확인되었다. 이외 지역에는 왕릉, 산성, 분묘, 건물지, 사지, 요지 등이 분포하는데 왕릉 등 일부 유적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표 조사만 이루어진 상태다.

### 1) 도읍 일대

우선 강도를 에워쌌던 길이 11.39km의 都城이 남아있다. 동쪽 해안 방면 제외하고 도읍 을 ‘ㄷ’ 형태로 둘러싼 형태다. 성벽은 흙으로 쌓아 올렸으며 기단석렬 위에 판축 토루를 쌓고 그 위에 내·외피를 덮은 구조다. 도성의 안팎에는 강도시기에 조성 또는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도성 안쪽에서 9개소의 유적이 조사되었는데 이 중

28) 1352년(공민왕 1) 교동 甲山倉에 왜구가 침입했고, 1360년(공민왕 9)에는 강화에 침입해 4만석의 미곡을 탈취했다는 기록은 교동을 포함한 강화에 조운미를 비축할 수 있는 시설이 많았다는 것을 말해 준다.(박종기, 2006, 「고려 말 왜구와 지방사회」, 『한국중세사연구』24호, 한국중세사학회, 181쪽)

29) 박종진, 앞의 글, 378쪽.

30) 『高麗史』卷56, 志 10, 地理 1, 王京開城府.

현재 강화군청이 자리한 관청리 일대에 5개소가 분포한다. 관청리 657번지유적과 이에 인접한 687-1번지유적에서는 회랑 건축물이 조사되었고, 향교골유적, 관청리 163번지유적과 145번지유적에서는 건물터와 축대, 步道 시설이 확인되었다. 각 유적에서는 양질의 청자와 기와가 출토되었다. 관청리 일대에서 조사된 유적은 건물의 형태와 출토 유물의 수준을 볼 때 강도의 궁궐 또는 관아, 사원의 흔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관청리 이외의 지역 가운데 갑곶 일대에서는 건물지 십 수기가 조사되었다.<sup>31)</sup> 이 중 인화~강화 도로구간의 M지점은 산 경사면을 따라 석축으로 5단의 대지를 조성하고 건물을 배치하였는데 상당한 위계를 갖춘 건물로 파악된다.

도성 외곽에는 월곶리·옥림리유적, 대산리 산105번지유적, 인화~강화간 도로 강화산단지점과 옥림리유적, 신정리 572-29번지유적 등이 확인되었는데 건물지가 다수다. 각 유적은 대부분 도성에 인접하거나 멀어도 수 백m 이내의 거리에 분포한다. 건물지 이외에 분묘유적도 확인되는데 강화산단지점에서는 석곽묘와 토광묘 169기로 구성된 분묘군이 조사되었다.<sup>32)</sup>

한편 도성 안팎에는 출토유물로 볼 때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寺址 10여 개소가 분포한다. 지금까지 조사결과 강화에는 전등사 등 현존 사찰을 포함해 고려시대에 운영된 것으로 판단되는 사원 유적이 약 30여개소다.<sup>33)</sup> 이 가운데 도성 일대에 사지가 가장 밀집해 있다. 도성 안쪽에는 왕립사지, 병풍암사지, 천등사지, 묵왕사지, 범머리사지 등이, 바깥에는 선원사지, 송악사지, 용장사지, 선행리사지 등이 분포한다. 선원사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적은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서 조성 및 운영시기를 특정하기 어렵지만 천도와 함께 많은 종교 시설이 이전 및 건립된 점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수가 강도시기에 조성·운영된 사원의 흔적일 가능성이 있다.<sup>34)</sup>

## 2) 도읍 외곽

도성을 벗어난 외곽 지역에는 강도시기 왕릉과 이궁터가 남아있다. 홍릉, 석릉, 곤릉, 가릉 등 4기의 왕릉과 陵主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왕릉과 동일한 구조와 규모의 석실분 3기가

31) 기호문화재연구원, 2017, 『인화~강화 도로건설공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32) 기호문화재연구원, 2017, 앞의 자료.

33) 인천시립박물관, 2009, 『강화의 절터 지표조사 보고서』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2010, 『한국의 사지·사지 현황조사보고서(上)』

34) 이희인, 앞의 책, 187~188쪽.

분포한다. 강화 고려 왕릉은 도성 서쪽의 고려산에 자리한 고종 홍릉을 제외하고 나머지 왕릉 3기와 석실분 중 1기가 진강산 일대에 자리한다. 진강산은 왕실뿐만 아니라 최항, 유경현 등 강도시기 지배층의 주요한 매장지로 활용되었던 지역으로 파악된다. 한편 마니산 남쪽 자락 이궁터가 자리한다.<sup>35)</sup> 이곳은 1259년(고종 46) 연기설에 따라 基業을 연장하기 위해 조성한 이궁·가궐 가운데 하나로 강도시기에 건립된 별궁과 가궐, 이궁 가운데 현재 유일하게 흔적이 확인되는 사례다.

아직 구체적인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강화도 전역에서 지표조사 결과 고려시대에 운영되었을 것으로 파악되는 성곽과 분묘, 사지, 요지 등이 분포한다. 강화도의 성곽은 대부분 해발 250m~460m에 자리한 산성이다. 강화 본도에 하음산성(봉천산), 고려산성(고려산), 정족산성(삼랑성)이, 교동에는 화개산성(화개산)이 있다. 분묘군은 지금까지 13개소가 확인되었다.<sup>36)</sup> 창후리 고분군 등 일부 유적만 발굴된 상태라 대부분의 분묘군은 조성 시기가 불확실 하지만 강화 토착 주민 또는 강도시기 개경과 내륙에서 이주한 사람들의 매장지일 것으로 추정된다. 지표조사 결과로 보면 석곽묘와 토광묘가 주된 묘제로 추정된다. 다만 고려시대 상위 계층의 분묘 유형인 판석재 석곽묘가 많이 확인되는 점이 주목되는데 이는 천도 당시 개경에서 이주한 지배층의 무덤일 가능성이 높다.<sup>37)</sup> 한편 사지가 약 20여개 소가 분포한다. 이 가운데 마니산 일대에 5개소가 확인되어 가장 밀집도가 높다.<sup>38)</sup> 제의 유적으로 참성단과 봉천대가 있다.

이 밖에 도성 외곽 지역에서 확인된 건물지 유적으로는 ‘신봉리·장정리 유적’이 있다. 봉천산 남사면 중턱의 경사면에 단을 조성한 뒤 그 위에 건물을 조성하였는데, 중심 건축물은 中庭을 중심으로 ‘回’자형으로 배치하였다. 지금까지 도성 바깥 지역에서 거의 유일하게 조사된 권위 건축물이다.<sup>39)</sup> 이 밖에 강화 동남쪽 선두리에는 도기 요지가 분포한다.<sup>40)</sup> 발굴에서 가마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넓은 폐기물 퇴적층이 조사되어 이 일대에 대규모 도기 가마가 운영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35) 선문대학교 고고연구소, 2001, 『강화도 마니산 고려 이궁지 지표조사 보고서』

36) 인천시립박물관, 2003, 『강화의 고려 고분』

37) 이희인, 앞의 책, 205~207쪽.

38) 이희인, 앞의 책, 189쪽.

39) 중앙문화재연구원, 2013, 『강화 신봉리·장정리 유적』

40)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2004, 『강화 선두리 도기요지』

인천시립박물관, 2006, 『강화 군내도로 확·포장 구간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 III. 도읍의 공간

강화도성은 강화현(군)의 치소 지역에 건설되었다. 1232년 7월 7일 강화에 도착한 고종이 강화 客館을 처소로 삼았다는 기록이 이를 시사한다.<sup>41)</sup>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이 일대에는 강도 都城이 남아있고 안팎으로 강도시기 고급 건물지가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강도의 공간 구조는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도읍의 핵심 공간인 본궐의 위치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 도성의 주요 구성 요소인 별궁과 관아, 성곽, 태묘의 배치는 더 말할 것이 없다. 사실상 왕릉을 제외하고 강도 핵심 시설의 위치와 배치에 대해서 분명한 것이 하나도 없는 셈이다. 문헌과 고고자료 모두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도읍의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궐의 위치가 가장 중요하며, 강도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 1. 본궐의 위치

강도의 본궐터는 그동안 ‘고려궁지’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고려궁지’에 대한 여러 차례 조사에서 고려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아<sup>42)</sup> ‘고려궁지= 본궐터’의 공식은 근거를 잃었다. 최근 강화 관청리 일대에서 조사된 유적과 지형 등을 토대로 강도 본궐은 ‘고려궁지’ 서남쪽의 궁골 일대에 자리했다는 견해가 제시되면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었다.<sup>43)</sup> 그러나 본궐이 견자산 북쪽에 있었다는 반론도 여전히 존재한다.<sup>44)</sup> 이는 문헌과 고고자료의 불일치와 그에 따른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강도의 본궐의 입지는 먼저 지형 조건을 통해 범위를 좁혀 볼 수 있다. 도성이 자리했던 강화읍 일대의 최근 간척이전 해안선 분석 결과 천도 이전에는 강화산성 남문과 견자산(정자산) 부근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던 것으로 파악된다.(삽도 1)<sup>45)</sup> 도읍의 동쪽 지역은 견자산에서 동쪽 갑곶까지 길게 뻗어 있는 구릉과 평지의 북쪽과 남쪽의 갯골을 따라 해수의 영향

41) 윤용혁, 앞의 글, 15쪽.

42) 한림대박물관, 2003, 『조선궁전지 발굴조사 보고서』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1, 『강화 조선 궁전지Ⅱ』

43) 이희인, 2013, 「고려 강도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6, 앞의 책.

이상준, 2014, 「고려 강도궁궐의 위치와 범위 검토」, 『문화재』제47-3호, 국립문화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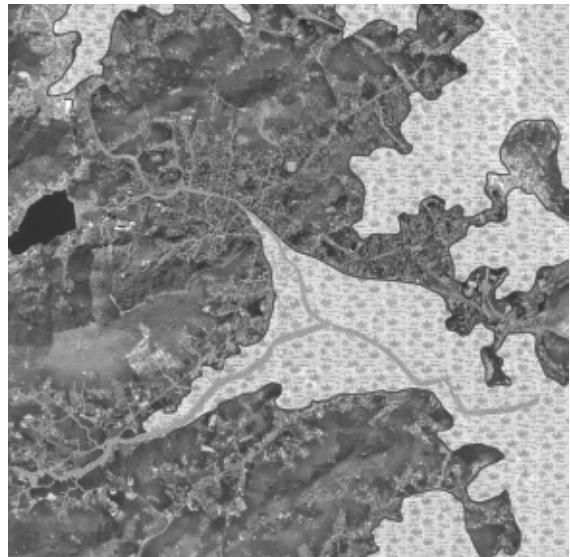
44) 김창현, 2016, 「고려시대 강화도읍 궁궐」, 『고려강도의 공간구조와 고고유적』, 인천시립박물관·강화고려역사재단 공동학술회의.

45)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2017, 『강화 고려도성의 자연지리학적 연구』, 42~44쪽.

을 받았다.<sup>46)</sup> 따라서 현존하는 도성을 기준으로 볼 때 강도의 중심지는 관청리와 신문리, 남산리 일대에 조성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가운데 강도의 본궐은 북산(송악산) 남쪽 자락에 해당하는 관청리 일대에 자리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강도 건설의 기준이었던 개경의 본궐이 송악산 남쪽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확인된 관청리 일대 유적군 모두 본궐터의 후보가 될 수 있다. 관청리 일대 유적군은 유적마다 조사 면적이 넓지 않아 현재로서 구체적인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유구와 출

토유물로 보아 강도에 조성된 궁궐이나 관아, 사원, 저택 등 권위 건축물의 흔적일 가능성성이 높다. 관청리 유적군 가운데 강도 본궐과 관련한 유적으로 주목을 받은 것은 관청리 657번지 유적이다. ‘고려궁지’에서 서남쪽으로 약 180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이 유적에서는 조선시대 유구와 함께 3기의 고려 건축물이 확인되었다. 이 중 1호 건축물은 정면 7칸, 측면 1칸으로 주간 거리 3m 내외의 회랑 건축물로 추정된다. 1호 건축물 북쪽에는 3호 건축물 일부가, 남쪽에는 2호 건축물 일부가 연결되어 있는데 3개의 건물이 회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양상이다.<sup>47)</sup> 그런데 최근 유적 남쪽 687-1번지에서 657번지 유적에서 조사된 회랑과 동일한 축선으로 이어지는 건물 기초가 발견되었다.<sup>48)</sup> 각 지점의 유구를 합쳐 보면 남북 방향으로 길이 약 60m의 회랑이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된다.<sup>49)</sup> 궁궐이나 관청, 사원 등 권위 건축물에서 주로 확인되는 회랑 건축물의 존재는 이 일대가 강도의 중심 공간 가운데 하나였음을 암시한다. 한편 이곳에서 동쪽으로 약 4~500m 떨어진 강화군청 주변에서 2개의 유적이 조사되었다. 관청리 163번지 유적(강화군청 별관부지)에서는 건물지 2기와 석축이 확인되



삽도 1. 간척이전 강화읍 일대 지형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2017)

46) 이희인, 앞의 책, 178쪽.

47)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1, 『강화 성광교회~동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구간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48) 한성문화재연구원, 2017, 『강화 관청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49) 김병희, 2018, 「강화도성의 구조와 성격」, 『고고학으로 본 한국중세사회Ⅱ- 고려성곽』, 한국중세고고학회, 25쪽.

었고<sup>50)</sup> 145번지 유적(노외주차장부지)에서는 기단과 축대, 배수로, 보도 시설이 조사되었다.<sup>51)</sup> 강화군청 주변 유적군도 막새와 명문기와, 고급 청자가 출토되어 높은 위계의 건물 흔적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좀 더 범위를 좁혀 보면 관청리 657번지와 687-1번지 유적에서 확인된 건물지는 본궐과 관련된 시설일 가능성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60m에 이르는 대형 회랑의 존재가 무엇보다 특징적이며, 지형 상으로 강화군청 일대 보다 본궐의 입지로 적합하기 때문이다.



삽도 2. 강화읍 일대 지형과 유적 분포(이희인, 2016)

강도의 중심이 자리했던 현재 강화읍 도심지는 북산과(송악산) 남산(화산), 견자산(정자산)이 둘러싼 작은 분지 지형이다. 이곳은 북산에서 뻗어나온 능선을 기준으로 동서 구역으로 나뉜다.(삽도 2) 능선 서쪽은 동쪽에 비해 넓고 완만한 구릉과 평탄지가 펼쳐져 있지만 강화군청 일대는 서쪽의 작은 능선과 동쪽의 견자산 그리고 북산 자락이 에워싸면서 능선 서쪽 구역이 비해 면적이 좁고 경사도가 있다. 657번지와 687-1번지 유적과 강화군청 주변 유적군과의 직선거리는 약 4~500m 정도지만 지형상으로는 능선

에 의해 단절되어 있다. 반면 657번지와 687-1번지 유적 일대는 북산 방향으로 완만하게 경사가 시작되는 부분으로 북쪽 구릉 지역(궁골)를 포함하면 개경 만월대의 입지와 유사하다.

특히 이 일대의 水系 검토 결과 2개의 小하천이 궁골 일대를 감싸 안아 흐르다가 강도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東洛川(현재 복개)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파악된다.<sup>52)</sup> 이는 개경 만월대 주변 하천이 沙川과 합쳐지는 양상과 흡사하다. 이와 관련하여 657번지 일대 동남쪽에 위치하는 관청리 405번지 유적(용흥궁 주차장 부지)이 주목된다. 이 곳은 오랫동안 물이 차

50)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5, 『강화 관청리 163번지 유적』

51) 계림문화재연구원, 2014, 『강화읍 관청리 145번지 유적』

52) 이상준, 앞의 글, 114쪽.

있었던 연못 자리로 파악되는데 이는 개경 본궐 동쪽에 있던 東池와 같은 기능을 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sup>53)</sup> 이렇게 보면 강도가 개경을 모방해 건설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강도의 본궐은 관청리 405번지 유적 서쪽에 자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본다.

한편 강도 본궐터의 후보지로 견자산과 북산 사이, 즉 강화중학교 일대가 지목되기도 한다.<sup>54)</sup> 이곳을 궁궐터로 보는 근거는 『고려사』에 전하는 강도 화재 기사에 등장하는 延慶宮이다. 1245년(고종 32) 견자산 북리 민가 800여 호 화재로 연경궁과 법왕사, 어장고, 대상부, 수양도감 등이 함께 연소되었는데<sup>55)</sup> 여기서 연경궁을 본궐의 오기라고 보는 것이다. 연경궁은 개경의 별궁 가운데 하나지만 본궐의 착오로 기록되기도 하였으며 개경 법왕사는 궁궐 동쪽 황성 안에 있었기 때문에 견자산 북리에 있는 연경궁이 본궐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강도에서는 화재 이후 법왕사는 복구되지만 연경궁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볼 때 화재로 소실된 연경궁은 본궐이 아니라 실제로 별궁을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sup>56)</sup> 물론 견자산 일대는 강도시기 최우의 진양부가 있었던 곳으로 강도의 중심 공간 중 하나였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sup>57)</sup> 게다가 조선 후기 견자산 바깥을 ‘고려 궁궐의 옛터[麗宮故址]’로 인식하기도 했던 것을 감안하면<sup>58)</sup> 현재로서 본궐의 입지로서 가능성을 전혀 배제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관청리 일대 유적의 양상과 지형, 水系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강도의 본궐터는 견자산 주변보다는 657번지유적과 687-1번지유적이 확인된 ‘고려궁지’ 서남쪽 일대로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보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 2. 도읍의 공간 구조

본궐의 위치 문제에서 보았듯이 지금으로서 강도의 전반적인 공간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강도는 개경을 본 따 강도를 건설했지만 실제 개경의 모습이 강도에 얼마나 구현되었는지가 분명치 않다. 다만 문헌 기록상 개경에서처럼 강도 본궐 동쪽에 법왕사가 배치된 것이나, 개경 만월대 동남쪽 정자산 부근 십자로에 있던 진

53) 이상준, 앞의 글, 120~122쪽.

54) 김창현, 2016, 앞의 글.

55) 『高麗史』卷53, 志7, 五行1, 火.

56) 정학수, 2017, 「강도시기 궁성(본궐)의 위치와 구조」, 『강화 고려도성 기초학술 연구』 1,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150쪽.

57) 『高麗史』卷129, 列傳42, 叛逆, 崔沆.

58) 『輿地圖書』江都府志, 古蹟.

양부가 강도에도 궐 동남쪽 견자산 부근에 자리한 것을 보면 큰 틀에서 개경의 공간 구조가 강도에 반영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강도는 기존 강화현(군)의 치소 지역에 급박하게 건설된 데다가 도성 안쪽에는 간척이전 바닷물이 들어왔던 지형 특성상 도시 구조는 동일할 수 없었을 것이다. 태조의 진전사원인 봉은사를 강도에서는 참지정사 車惆의 집을 개조해 조성한 예처럼<sup>59)</sup> 강도가 처한 시대적 상황과 공간의 차이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개경의 예에 견주어 보면 강도 본궐의 동쪽에는 관아 시설이 집중적으로 조성되었을 것인데 강화군청 일대에서 조사된 유적이 그 흔적의 일부일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본궐 남쪽 東洛川 이남(신문리, 남산리 일대)은 인구 밀집 구역이었던 것 같다. 1234년(고종 21) 1월과 3월 궐남리의 화재로 각각 수천 호가 불에 소실 된 것은 이 일대가 가장 과밀한 민가 밀집 지역이었음을 보여준다.<sup>60)</sup> 강도에는 개경과 지방에서 많은 인구가 이주하였으나 도성의 범위를 기준을 강도는 개경에 비해 면적이 3/5 수준인데다가 견자산 부근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던 지리적 특성상 공간이 부족했다. 천도 이후 도성 동쪽 구간에 제방을 쌓아 상당 면적이 매립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간척지는 농지로 활용되었을 것이다.<sup>61)</sup> 그래서 도성 외곽 까지 민가는 물론 도읍 운영에 필요한 시설들이 분포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향후 검토가 필요하지만 앞서 언급한 도성 인접 지역인 월곶리, 옥림리, 신정리 일대에서 조사된 고려 건물지가 이와 관련된 유적일 가능성이 있다. 이 가운데 월곶리에서 조사된 8기의 건물지는 中庭을 두고 주변으로 회랑을 배치한 형태로 양질의 청자와 막새기와 등이 출토되었는데 이는 도성 바깥에도 권위 건축이 다수 분포했음을 시사한다.<sup>62)</sup>

한편 앞에서 보았듯이 도성 바깥에는 왕실과 관리 그리고 주민의 매장 공간과 사원 등도 자리했다.<sup>63)</sup> 이 가운데 강도 주민의 매장 공간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 없는데 도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 무덤을 조성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인화~강화간 도로부지 내

59) 『高麗史』 卷23, 세가 23, 고종 21년 2월.

60) 『高麗史節要』 卷16, 高宗 21년 1월, 3월.

61) 이희인, 앞의 책, 178~182쪽.

62) 유적은 최항의 저택인 長峯宅 또는 大廟의 흔적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국방문화재연구원, 2016, 『강화 월곶리·옥림리유적』)

63) 강화도성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아야 하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넓은 의미에서 강도는 강화도 섬 전체를, 좁은 의미의 강도는 도성 인근까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좁은 의미의 도성의 구체적인 범위는 현재로서 알기 어렵다.(이희인, 2016, 「고려 강도시기 성곽 연구의 현황과 과제」, 『고려 강도의 공간구조와 고고유적』 인천 시립박물관·강화고려역사재단 공동학술회의, 134쪽)

강화산단지점에서 169기가 확인된 대규모 분묘군이 주목된다. 12~14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파악되는 이 유적은<sup>64)</sup> 도성에 인접한 야산에 자리하고 있어 강도는 물론 천도 전후 강화현 주민들의 공동묘지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강도시기가 한 세대이상 이어진 것을 감안하면 이 밖에도 도성 인근에 대규모 묘지가 여러 곳 조성되었을 것이다.

## IV. 군현의 공간

### 1. 문헌과 지리 자료로 보는 강화의 군현

통일신라시대 강화는 해구군과 수진·강음(호음)·교동 등 3개의 영현이 존재하였다. 844년 혈구진이 강화에 설치되었는데 진과 해구군의 관계는 알려져 있지 않다. 고려시대 해구군은 강화현으로, 수진과 강음(호음)현은 각각 진강과 하음현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sup>65)</sup> 기본적인 체계는 이전 시기와 같다. 다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1018(현종 9) 강화현이 주현이 되었고 진강·하음 교동은 속현의 위상을 유지하였다. 이 중 교동현은 1127년(명종 2) 監務파견으로 독립 현이 된 것으로 이해되지만 예속 관계는 분명치 않다. 이 밖에 海寧鄉이 있었다.<sup>66)</sup> 1개의 주현과 3개의 속현, 1개의 향으로 구성된 강화의 군현 체계는 조선 초까지 유지되었다.<sup>67)</sup>

고려시대 강화의 주·속현 가운데 강화·하음·진강현은 본섬에, 교동현은 교동도에 자리하였다. 각 현의 위치는 조선시대 지리지와 읍지에 대략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하음현은 河陰山(현 봉천산), 진강현은 진강산 일대에 있었다.<sup>68)</sup> 그러나 각 현의 관할 지역은 분명치 않은데 하음현은 현재 하점·양사면 일대를 관할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진강현은 마니산 남쪽 장봉도를 포함하는데<sup>69)</sup> 오늘날 양도면, 화도면, 불은면, 길상면과 옹진군 북도면 등 강화 남부 일대의 상당히 넓은 면적을 영역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4) 기호문화재연구원, 2017, 앞의 자료.

65) 『三國史記』 권35, 志4, 地理2, 漢州 海口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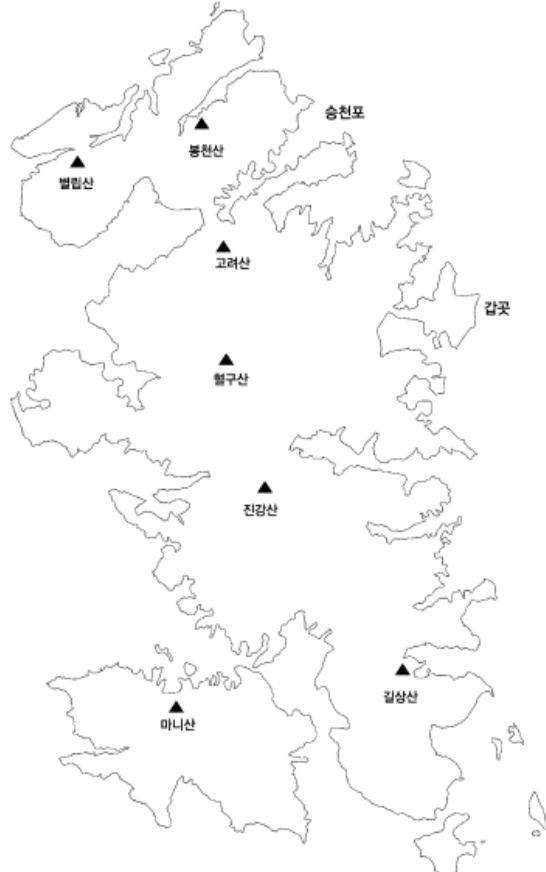
66) 『高麗史』 卷56, 志 10, 地理 1, 楊廣道 江華.

67) 『世宗實錄』 지리지에는 해녕향은 폐지되었고, 진강과 하음현은 존속하는 것으로 기록되지만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폐현으로 전한다.

68) 『輿地圖書』, 『江都府誌』 山川.

69) 『新增東國輿地勝覽』 江華都護府, 古蹟.

한편 강화현이나 교동현의 위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록이 없다. 강화현의 치소는 아마도 조선시대 강화의 읍지가 자리했던 지금 강화읍 일대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기록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강화현의 관할 범위는 확실치 않은데 高麗山 일대를 포함한 강화 중, 동북부 일대, 오늘날 강화읍을 중심으로 내가 선원면 일대를 범위로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보면 강화현의 영역은 강도시기 도성보다 크다. 교동현의 경우도 별도로 분리된 섬에 자리했기 때문에 위치를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고려시대 교동현의 영역은 현재 교동도와 지금은 간척으로 석모도와 한 섬이 된 松家島까지 포함한다. 한편 해녕향은 진강현 서쪽 5리, 지금의 양도면 일대로 추정되고 있다.



삽도 3. 간척이전 강화도의 지형(이희인, 2016)

그러나 강화 주 속현의 치소와 생활 공간은 상당히 제한되었을 가능성성이 높다. 강화는 천도 이후 시작된 간척으로 많은 지형 변화가 이루어졌고 오늘날 평지는 대부분 과거 바닷물이 드나들었던 지역이기 때문이다.(삽도 3)<sup>70)</sup> 앞서 본 것처럼 강화읍 동쪽 구간은 천도 직전까지 바닷물이 깊숙이 들어왔기 때문에<sup>71)</sup> 강화현의 주요 생활공간은 현재 강화읍 도심 일대 였을 것이다.(삽도 1) 하음현은 현재 봉천산 남쪽의 신봉리 일원이 주요 공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봉천산 주변 지역도 망월평을 비롯한 평지 구간 대부분이 해수의 영향을 받았던 곳이었다. 진강산 남쪽도 고려시대에는 바닷물이 들어왔던 곳이었다. 마니산 일대는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古家島라는 섬이기도 했다.<sup>72)</sup> 따라서 진강현의 치소와 생활 공간은 진강산

70) 이하 강화도 지형 변화는 이희인, 앞의 책, 56~61쪽 참조.

71)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2017, 앞의 책, 42~44쪽.

72) 『江華府志』山川.

남쪽 도장리와 온수리 일원에 자리했을 가능성이 높다. 교동현의 영역인 교동 섬도 간척 이전에는 화개산과 수정산 일대를 중심으로 크게 2~3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조선 전기 교동현의 읍치가 화개산 서북쪽 고구리에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sup>73)</sup> 고려시대 교동현의 치소도 화개산 부근에 있었을 것이다.

## 2. 군현의 공간과 유적

문현을 통해서 각 군현의 대략적인 위치는 파악되지만 치소와 마을 등 구체적인 공간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고고학적 자료는 거의 없다.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는 하음현의 치소 지역으로 전하는 봉천산(하음산) 남산 중턱의 신봉리·장정리 유적이 유일하다. 인화~강화 도로구간 A지점에서 확인된 유적에서는 고려~조선시대 건물지 9기가 확인되었는데 2개 지점에서 각각 건물지 5기와 건물지군 2기가 조사되었다. A-3구역의 건물지는 석축 기단 위에 난방시설을 조성하였고, 이중 1호 건물지는 건물지 2동이 직교하여 중정을 이루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A-4지점은 경사면에 4개의 단을 조성한 뒤 각 단 위에 건물을 조성하였는데 중심 건축물은 중정을 중심으로 ‘回’자형으로 배치구조가 확인된다. 건물지(군)은 배치와 구조로 볼 때 권위 건축물로 여겨지고 있다. 건물지는 하음현의 치소 지역에 자리하고 천도 이전에 조성된 것을 감안하면 하음현의 治所와 관련된 시설의 흔적일 가능성이 있다.

고려시대 속현은 주현의 통제를 받았지만 주현에는 지방관의 파견되면서 外官廳이 존재하는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인 운영 면에서는 주현과 속현은 동등한 행정 단위로 파악된다.<sup>74)</sup> 주현은 물론 속현에도 공식 관부인 邑司를 두었으며 읍사가 있는 곳이 곧 군현의 治所였다.<sup>75)</sup> 고려시대 군현의 읍사는 조선시대와 달리 일반적으로 城內, 즉 治所城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치소성은 대부분 산성이었는데, 양계의 치소성에는 읍사와 거주시설이 함께 있지만 다른 지역은 성 밖에 거주 시설이 자리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sup>76)</sup> 강화 군현에도 각각의 치소가 있었을 것인데, 조선시대 지리지와 읍지에 기록된 고려 시대 현의 위치는 곧 치소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라 이해된다.

73) 『新增東國輿地勝覽』喬桐縣, 山川。

74) 윤경진, 2001, 「고려 군현제의 운영원리와 주현-속현 영속관계의 성격」, 『한국중세사연구』10, 103쪽.

75) 최종석, 2005, 「고려시기 치소성의 분포와 공간적 특징」, 『역사교육』95, 203~205쪽.

76) 최종석, 앞의 글, 208쪽.

강화도 군현의 치소와 관련하여 산성에 주목된다. 강화에는 하음산성, 정족산성, 고려산성, 화개산성이 분포한다.<sup>77)</sup> 각 산성이 자리한 곳은 공교롭게도 강화현을 비롯한 각 현의 공간 범위와 부합된다. 하음산성은 봉천산(하음산) 정상에, 정족산성은 진강현 영역인 온수리에 있다. 화개산성은 교동의 화개산 정상과 북사면 일대에 위치하며 고려산성은 고려산 정상과 북사면에 자리한다. 강화의 산성은 축조와 운영 시기는 밝혀지지 않아 자료로서의 활용 범위는 제한적이다. 그러나 지표조사를 통해 파악된 성벽의 구조와 출토유물, 문헌 기록을 참고하면 산성은 천도 이전부터 운영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강화의 군현의 운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

하음산성은 둘레 290m로 봉천산(하음산) 정상부를 에워싼 소규모 테뫼식 산성이다. 하단부 일부만 남은 성벽은 2:1~3:1 비율의 면을 다듬은 장방형 석재로 수평을 맞추고 ‘品’형으로 쌓아올렸다. 산성 안팎에서는 통일신라시대~고려시대 기와가 주로 출토되었다.<sup>78)</sup> 고대 성곽의 성벽 축조 방식과<sup>79)</sup> 출토 유물을 감안할 때 고려시대 이전부터 운영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조선 地誌에는 하음산성에 대한 기록은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산성은 조선시대 이전에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정족산성은 둘레 2.3km의 석축으로 쌓여진 포곡식 산성으로 강화 산성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현존하는 성벽은 17세기에 축조하고<sup>80)</sup> 18세기에 고쳐 쌓은 것이지만<sup>81)</sup> 고려시대 이곳에는 삼랑성이라는 이름의 성이 존재했다. 1259년(고종 46) 삼랑성 내에 假闕을 세운 것을 볼 때<sup>82)</sup> 지금과는 규모·구조는 다를 수 있지만 천도 이전부터 산성이 축조·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교동 화개산성은 석축의 포곡식 산성이다. 초축 시기는 알 수 없지만<sup>83)</sup> 성내·외에서 고려~조선시대 기와 및 토기편이 출토되고 조선 초까지 古蹟化되지 않았던 것을 보아<sup>84)</sup> 고

77) 육군박물관, 2000, 『강화도의 국방유적』

한편 844년 강화에 설치된 혈구진의 鎮城으로 전하는 ‘혈구진성’은 조선시대 馬城으로 판단되어 여기에서는 제외한다. (이희인, 앞의 책, 139쪽)

78) 육군박물관, 앞의 책.

79) 서정석, 2002, 『백제의 성곽』, 학연문화사

80) 『江都志』城郭

81) 『輿地圖書』江都府誌, 城池

82) 『高麗史』卷24, 世家24, 高宗 46년 4월.

83) 산성 내에서 발견된 백제 패총은 축조 시기가 삼국시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시사한다.(인천시립박물관, 2004, 『교동 대룡리유적-시굴 및 지표조사 보고서』)

84) 『世宗實錄』地理志 京畿 富平都護府 喬桐縣.

려시대에 산성이 활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성은 화개산 정상부를 에워싼 내성에 이어 북사면 계곡부를 감싸는 외성의 이중성으로 총 둘레가 2km가 넘는다.<sup>85)</sup> 그러나 조선 초 산성의 규모가 약 1km 정도로 기록된 점을 감안하면<sup>86)</sup> 내성과 외성 중 하나는 후대에 수증 축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sup>87)</sup>

고려산성은 고려산 정상과 북사면 계곡부를 포함하는 포곡식 산성이다. 둘레가 1.1km로 알려져 있으나<sup>88)</sup> 현재 성벽의 흔적은 뚜렷하지 않다. 일부 잔존한 성벽은 허튼총 쌓기로 축조되어 대동항쟁기 입보용 산성의 형태와 흡사하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고적조에는 토성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 형태와 차이가 있다. 『강도지』에는 고려시대에 쌓은 것으로 전하나, 성 안팎에 통일신라시대 기와류가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초축 시기가 올라갈 가능성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강화도내 산성은 축조 시기는 불확실하지만 대체로 천도 이전에 축조·활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산성은 고대로부터 군사시설이면서 군현성의 역할을 하였고<sup>89)</sup> 고려시대에도 치소성으로 기능하였다. 고대 성곽 가운데 중형급 이상의 성곽이 지방 제도와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sup>90)</sup> 강화의 산성은 하음산성을 제외하고 모두 둘레 1km 내외의 대형 성곽으로 고려시대 이전부터 각 군현의 치소와 관련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sup>91)</sup>

다만 현재로서 고려시대 강화 군현의 치소가 산성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강화현의 치소는 천도 직후 고종이 강화현 객관을 임시 거처로 하였다는 것을 볼 때<sup>92)</sup> 평지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려산성은 실체가 아직 분명하게 파악되지 않았지만 강화현의 중심 지역과 5km 가량 이격되어 있는 점도 고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천도 이후 강화군(현)의 치소가 이전하면서 고려산성이 치소성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sup>93)</sup> 하음현의 치소도 이규보가 천도 이후 한동안 현의 객사 행랑에 머물렀

85) 육군박물관, 앞의 책.

86)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화개산성의 길이가 3,534척, 즉 약 1,200m로 기록되어 있다.

87) 『肅宗實錄』肅宗 3년 2월 1일 戊申.

88) 육군박물관, 앞의 책.

89) 서영일, 2005, 「한성 백제시대 산성과 지방통치」, 『문화사학』24호, 11~16쪽.

90) 백종오, 2007, 「인천연안의 고대성곽에 대하여」, 『인천연안의 고고학』, 서울경기고고학회 · 인천시립박물관, 79쪽.

91) 고대 성곽은 둘레를 기준으로 300m 이하는 보루, 600m 이하는 소형, 600~800m는 중형, 800~1,200m는 대형, 그 이상은 초대형으로 분류된다.(서정석, 앞의 책)

92) 『高麗史節要』卷16, 高宗 19년 7월.

93) 김창현, 2005, 「고려시대 강화의 궁궐과 관부」, 『국사관논총』106, 248쪽.

『고려사』와 조선 전기 지리지에 고려의 궁궐터가 ‘府東十里’에 있다고 전하는데 이는 당시 강화의 치소가 서쪽

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하음산 아래에 있었을 수 있다.<sup>94)</sup> 특히 하음산성은 둘레가 290m에 불과해 거주 시설은 물론 읍사의 설치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진강현과 교동현의 경우 치소성의 존재 여부를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강화의 산성이 치소성의 기능을 수행했는지는 향후 조사와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지만, 유사시 입보처나 제의 공간과 같은 각 군현의 주요 공간이었을 가능성은 높다.

이 밖에 강화 군현의 공간 구조를 밝히기 위해서는 생활공간과 사원, 분묘, 생산시설 등이 확인되어야 하지만 미래의 조사를 기대해야 하는 현실이다.

## V. 맺음말

강화는 고려시대 중앙과 지방의 위상을 모두 지녔던 독특한 공간이다. 공간의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읍은 물론 주·속현의 공간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이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자료의 한계 때문이다. 강화의 공간 구조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문헌과 고고학 등에서 다양한 자료가 확보되어야 하지만 지금의 수준에서 구체적인 접근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도읍의 경우 궁궐 자리나 천도 후에 쌓은 외성과 중성, 내성의 실체 등 기본적인 공간 구조가 여전히 분명치 않다. 군현의 치소, 분묘와 사원, 산성, 주거 공간 등은 말할 나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의 국토 운영을 이해함에 있어 강화가 가지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섬이라는 제한된 공간의 특성상 도읍과 주·속현의 범위를 상대적으로 분명하게 설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강화를 도읍뿐만 아니라 군현이 함께 존재하였던 복합적 역사공간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를 위해서는 강도시기 뿐만 아니라 천도 전후의 지형 변화, 섬 내에 산재한 산성과 사찰, 분묘군 등에 대한 충체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 가까운 시기에 자료가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

어딘가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치소가 언제 이동되었는지는 분명치 않은데, 천도 직후 또는 이후에 이전되었다가 15세기 이후 다시 환원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치소가 이전한 장소는 강화읍 서쪽의 고려산 남쪽 고천리 일대가 유력하다.(윤용혁, 2002, 「고려시대 강도의 개발과 도시정비」, 『역사와 역사교육』 7, 16쪽)

94) 『東國李相國集』卷1.

## 참고문헌

- 『三國史記』, 『東國李相國集』, 『高麗史』, 『高麗史節要』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江都志』, 『輿地圖書』江都府誌
- 기호문화재연구원, 2017, 『인화~강화 도로건설공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거례문화유산연구원, 2011, 『강화 조선 궁전지Ⅱ』.  
계림문화재연구원, 2014, 『강화읍 관청리 145번지 유적』.  
국방문화재연구원, 2016, 『강화 월곶리·옥립리유적』.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2010, 『한국의 사자·사지 현황조사보고서(上)』.  
육군박물관, 2000, 『강화도의 국방유적』.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2004, 『강화 선두리 도기요지』.  
인천시립박물관, 2009, 『강화의 절터 지표조사 보고서』.  
\_\_\_\_\_, 2006, 『강화 군내도로 확·포장 구간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_\_\_\_\_, 2003, 『강화의 고려 고분』.  
중앙문화재연구원, 2013, 『강화 신봉리·장정리 유적』.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1, 『강화 성광교회~동문간 도시계획도로 구간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_\_\_\_\_, 2015, 『강화 관청리 163번지 유적』.  
한림대박물관, 2003, 『조선궁전지 발굴조사 보고서』.  
한성문화재연구원, 2017, 『강화 관청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2017, 『강화 고려도성의 자연지리학적 연구』.  
김갑동, 2015, 「고려건국기 강화의 동향과 토착세력」, 『신편 강화사 증보』 상권, 강화군군사편찬위원회.  
김기덕, 2015, 「무인집권기 강화의 동향」, 『신편 강화사 증보』 상권, 강화군군사편찬위원회.  
김병희, 2018, 「강화도성의 구조와 성격」, 『고고학으로 본 한국중세사회Ⅱ-고려성곽』, 한국중세고고학회.  
김창현, 2016, 「고려시대 강화도읍 궁궐」, 『고려강도의 공간구조와 고고유적』, 인천시립박물관·강화고려  
역사재단 공동학술회의.  
\_\_\_\_\_, 2005, 「고려시대 강화의 궁궐과 관부」, 『국사관논총』106.  
박종기, 2006, 「고려 말 왜구와 지방사회」, 『한국중세사연구』24호, 한국중세사학회.  
박종진, 2017, 『고려 지방제도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_\_\_\_\_, 2002, 「강화천도 시기 고려국가의 지방지배」, 『한국중세사연구』제13호, 한국중세사학회.  
백종오, 2007, 「인천연안의 고대성곽에 대하여」, 『인천연안의 고고학』, 서울경기고고학회·인천시립박물관.  
신안식, 2003, 「고려시대 경기의 위상과 역할」, 『인문과학연구논총』25, 명지대인문과학연구소.  
서정석, 2002, 『백제의 성곽』, 학연문화사.

- 서영일, 2005, 「한성 백제시대 산성과 지방통치」, 『문화사학』24호.
- 엄성용, 2015, 「고려전기 강화의 기상」, 『신편 강화사 증보』 상권, 강화군군사편찬위원회.
- 윤용혁, 2017, 「강도사 연구의 쟁점」, 『강화고려도성 기초학술연구』 1,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 이상준, 2014, 「고려 강도궁궐의 위치와 범위 검토」, 『문화재』 제47-3호, 국립문화재연구소.
- 이희인, 2016, 『고려 강화도성』, 혜안.
- \_\_\_\_\_, 2016, 「고려 강도시기 성곽 연구의 현황과 과제」, 『고려 강도의 공간구조와 고고유적』 인천시립박물관·강화고려역사재단 공동학술회의.
- 정은정, 2009, 「고려시대 개경의 도시변화와 경기제의 추이」,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학수, 2006, 「고려 개경의 범위와 공간구조」,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7, 「강도시기 궁성(본궐)의 위치와 구조」, 『강화 고려도성 기초학술 연구』 1,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 윤경진, 2001, 「고려 군현제의 운영원리와 주현-속현 영속관계의 성격」, 『한국중세사연구』 10.
- 최종석, 2005, 「고려시기 치소성의 분포와 공간적 특징」, 『역사교육』 95.

## 토론

### 「고려시대 강화의 유적과 공간」에 대한 토론문

정학수 | 인천문화재단 인천역사문화센터

이 논문은 지금까지 발표자가 문헌과 고고자료를 통해 고려시기 강도에 대해 연구해 왔듯이, 그 연장선상에서 고려시기 강화도의 위상과 공간구조를 검토해 보려 하였습니다.

토론자는 지금까지 발표자가 고려시기 강도에 대해 학계가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내왔다고 생각하고, 또 인문지리학의 토대 위에 문헌기록과 고고자료로 검증하는 방법론에 기초한 역사상 구성을 거의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발표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려시기 강화도는 지방에서 일약 도읍이 되었다가 다시 지방이 된 독특한 곳이었습니다.

발표자는 이를 중앙과 지방의 위상을 모두 지녔던 이중적인 공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더구나 강화는 섬이라서 “도읍과 주·속현의 범위를 상대적으로 분명하게 설정”할 수 있고 “이런 맥락에서 강화를 도읍뿐만 아니라 군현이 함께 존재하였던 복합적 역사공간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토론자는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도읍은 군현제 토대 위에 설정된 것이기에, 강화도는 ‘이중적인’ 혹은 ‘복합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송악에 구현된 경과 기, 강화에 구현된 경과기처럼 강화도에 구현된 ‘축소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도시기의 경기제 운영은 불분명합니다. 강화가 언제 경기에 편입되었는지도 그렇습니다.

강화천도 이전 고려의 경기는 왕실의 기반지이자 거경시위자의 물적 토대(지배층의 별서·무덤이나 전시과 양반구분전 등)로 기능했습니다. 강도시기에는 육지와 조운을 통해 조달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는 강도를 중심으로 거경시위자의 물적 토대를 설정하고 ‘수세구역’을 확보했다고 여겨집니다. 물류와 교통 경로 파악도 중요한 과제하고 생각합니다.

강도시기 강화도의 공간구조 이해를 위해서는 치소와 성곽 등과 함께 무덤의 분포 양상도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화천도 이전 강화현의 중심지는 어디였을까요? 혈구진의 진성으로 전하는 ‘혈구진성’은 조선시기 馬城으로 판단되어 발표자는 ‘치소성’에서 제외했는데요. 혹자는 후대에 말목장으로 이용되었다고 해서 이전에 치소성이 아니었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2018

## 경기 천년 및 고려 건국 천백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발 행 경기문화재연구원 · 한국중세고고학회

인 쇄 2018년 06월 08일

발행일 2018년 06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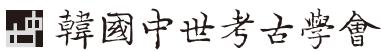
출 판 세종문화사 (051-463-5898)



경기문화재연구원

(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인계동)

031-231-8551



(49301)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401 (하단동, 청운빌딩)

051-206-4202

